

동북아시대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 책임연구원 :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 ▶ 공동연구원 : 이경자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위촉연구원 : 한지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청소년 국제교류는 청소년 정책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특별히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 동북아지역의 평화공동체 구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되짚어 보는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지역 한·중·일 3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교류활동의 참여 실태 및 효과성을 검증하는 한편, 동북아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의 목적 및 각 주체별 역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에 비해 몽골과 러시아와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으며, 남북 청소년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자간 교류 역시 한·중·일 3국에 편중되어 있어서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교류사업의 주제와 형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 및 재외동포 등을 포함한 한민족 교류사업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참여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참가자 집단의 경우 미참가자 집단에 비하여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나 국제교류활동이 다른 국가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매칭분석(matching method) 방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 참여집단과 미참여 집단 사이에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의식, 다문화수용성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나타나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학계 및 현장, 정책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가 청소년 국제교류,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평화공동체 구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연구였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동북아지역의 평화공동체 구축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먼저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각 부처 및 지자체, 교육청,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적 편중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교류사업을 체험탐방형, 토론형, 자원봉사형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실태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다변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편 청소년 10,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제교류활동 경험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이나 세계시민의식, 다문화 수용성 등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 국제교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일 간의 국가 호감도, 동북아 현안에 대한 인식, 청소년교류의 공통의제에 대한 서로 간의 공통된 인식 및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국제교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교류활동의 정의와 목적, 지원 방안, 동북아지역의 현안, 동북아지역 교류의제, 청소년교류활동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고, 일본과 중국의 청소년 교류정책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법적 정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공통의제를 발굴하여 국제교류 시에 청소년들 간에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국가 간 교류 이상으로 다자간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몽골, 러시아, 북한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사업 콘텐츠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청소년 인식, 국제교류활동 효과, 중국 및 일본 정책, 델파이 조사, 정책 제언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음. 또한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한편, 동북아지역 현안에 대하여 한·중·일 3국간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음.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을 조사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의 목적, 각 주체별 역할, 발전 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2.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논의, 관련 정책과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현황과 실태,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현황을 파악함.

2) 양적 연구

- 우리나라 청소년 10,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제교류 참여 실태 및 효과, 그리고 동북아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매칭분석 (matching method)을 활용하여 국제교류 참가자와 미참가자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함. 또한 중국 국제교류 참가자 264명, 일본 국제교류 참가자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중·일 3국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함.

3)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청소년 교류사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제교류센터, 국립국제교육원, 한·중·일3국협력국, 민족문제연구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4) 전문가 델파이조사

-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5) 국외출장

- 일본 국제교류 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실무자 면접조사 수행을 위하여 2015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출장을 실시함.

3. 주요결과

1) 동북아 평화공동체 관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실태 분석

- 청소년 교류활동의 정의를 살펴보고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관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의 방향이 재고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함.
-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의 주체별로 파악함. 일본과는 전통적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중국과의 교류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몽골과 러시아와의 교류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제기구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 봄.
 -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 다수가 체험탐방형에 속하며, 대다수는 유적지 탐방, 전통문화 체험, 학교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일반의 주제로 이루어짐. 역사평화 주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특색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문학, 어린이 동화, 스포츠교류 등 정부 사업에서도 특색 있는 테마형 사업이 일부 나타남.

- 토론형 사업은 주로 다자간교류로 이루어지며 외교부의 포럼 형태의 사업이 이에 속함. 체험탐방형 사업에 비해 청소년 상호교류와 현안에 대한 논의의 기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음. 지자체 청소년 교류사업에는 상대적으로 토론형 사업이 활발하지 않아 교류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형 사업은 몽골과 중국에 우리나라 혹은 한·중·일 청소년들이 파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많지 않으며, 앞으로 한민족교류의 방식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국가 간 교류의 경우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에 비해 몽골과 러시아와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으며, 남북 청소년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자간 교류 역시 한·중·일 3국에 편중되어 있어서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교류사업의 주제와 형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북한 및 재외동포 등을 포함한 한민족 교류사업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 · 인식 조사 결과 및 효과

- 우리나라 청소년 10,506 명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활동 경험,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의식, 다문화수용성, 동북아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전체 응답자 중 국제교류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21명(4.0%)이었고, 그 중 68.3%가 1번만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국제교류 참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제교류 참가집단과 비참가 집단을 추출하여 비교해 본 결과, 참가집단이 비참가 집단에 비해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국제교류활동이 다른 국가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집단에서는 동북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가 비동북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동북아 현안과 관련하여 시베리아 철도 연결사업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고,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남북한 화해 및 평화통일과 한·중·일 간 영토분쟁 해결 및 일본의 식민지배 반성 등을 꼽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전쟁방지 및 남북평화,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 문화교류를 꼽음. 중국과 일본과의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참가자들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국제교류활동 참가 경험이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 국제교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매칭분석(CEM) 방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 사이에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의식, 다문화수용성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음.
- 중국 및 일본 국제교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중·일 3국간, 그리고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낮게 나타나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국가 상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 동북아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시베리아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 가장 높았고 이에 비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동북아지역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는 영토분쟁과 남북통일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역사문제, 환경 문제 등이 제시되었지만 3국간의 응답비율에는 차이가 있었음.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과제로는 안보 문제가 3국 공통으로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문화교류가 높게 나타남.
-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중국과 일본 참가자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한국은 60%였음.
-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공통 의제로는 대중문화와 청소년문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공통의제별 국가 간의 선호도를 보면, 전통문화,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은 반대로 매우 낮게 나타남. 한편 생태계 보전 및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재해재난 예방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남.

3) 해외 사례 분석

-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은 1950년대 이후 시작되었으며, 2010년 수립된 「아동청소년 비전」에서 세부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음. 청소년정책의 주관 부처인 내각부는 지자체,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와 긴밀한 협조아래 선발, 사전 연수, 사후 관리 등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갖춘. 특히 사업 효과의 지속성 및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 사업이 전국, 지역, 국제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은 독립적인 정책이기보다 여러 정부 문건을 통해 장려되고 있음.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외교부와 교육부를 통해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화전국 청년연합회와 중국공청단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단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이밖에도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민간조직국제교류촉진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이루어짐.
- 한·중 교류는 유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중·일 교류와 비교하였을 때 정부 주도의 교류사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음.

4)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정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83.3%로 대다수를 이루었음.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50%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는 한류 확산, 유사한 문화의 공유 등이 있었고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몽골, 러시아에 대한 이해 부족, 중국, 일본에 대한 경쟁의식, 동북아의 역사문제, 국가주의 등이 있었음. 북한과의 교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됨.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공통의제로는 청소년문제와 대중문화, 생태계보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중국과 일본과는 역사문제, 몽골 및 북한과는 전통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의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장기적 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확대와 같은 제도적 지원 강화, 사업운영 내실화, 홍보 확산 등이 제안됨.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교류사업 이외에도 국가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청소년교류사업 개선을 위해 체계적 운영, 내실화, 프로그램 콘텐츠 강화 등이 강조됨.

4. 정책제언

-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교류활동의 목적을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자기계발과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의 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6년부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을 평가할 예정이어서 투입이나 결과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민간 및 국제기구의 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남·북 청소년 교류 기반조성을 위하여 통일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교류센터는 단위 사업을 단순히 주관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연계하는 허브기능과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된 동북아지역의 공통의제 등을 분석하여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청소년교류활동사업의 콘텐츠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8
II. 동북아 평화공동체 관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실태 분석	11
1.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	13
2.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7
3.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및 문제점	32
III.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 조사 결과 및 효과	61
1.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 조사 및 효과 분석	63
2. 중국 및 일본 국제교류 참여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109
IV. 해외 사례 분석	125
1.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시사점	127
2.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시사점	142
V.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157
1.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159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162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75
1. 요약 및 결론	177
2.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언	180

참고문헌	185
부 록	199
1.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조사 표본설계 관련 통계표	201
2.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조사 가중치 및 모수추정	209
3.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조사 설문지	212
4. 청소년 국제교류 1차 델파이조사표	220
5. 청소년 국제교류 2차 델파이조사표	227

표 목 차

〈표 II-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현황(2015)	18
〈표 II-2〉 여성가족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현황	20
〈표 II-3〉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사업 추이	22
〈표 II-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현황(특별시 및 광역시)	25
〈표 II-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현황(도)	26
〈표 II-6〉 동북아지역 국가별 지자체 및 교류도시 교류 빈도 현황	29
〈표 II-7〉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국가 간 파견 및 초청 교류사업	33
〈표 II-8〉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기타	34
〈표 II-9〉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자원봉사	34
〈표 II-10〉 외교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국가 간 파견 및 초청 교류사업	35
〈표 II-11〉 외교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포럼 및 회의	36
〈표 II-12〉 외교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기타	37
〈표 II-13〉 교육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국립국제교육원	38
〈표 II-14〉 교육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기타	39
〈표 II-15〉 교육부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40
〈표 II-16〉 통일부, 환경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41
〈표 II-17〉 지자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문화일반	42
〈표 II-18〉 지자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테마형	43
〈표 II-19〉 지자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해외봉사	44
〈표 II-20〉 민간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역사	45
〈표 II-21〉 민간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남북 평화	46
〈표 II-22〉 민간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기타	48
〈표 II-23〉 국제기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50
〈표 II-24〉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 문화일반	52
〈표 II-25〉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 문화일반 주제의 확장형	53
〈표 II-26〉 토론형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55

〈표 Ⅲ-1〉 학교 급 및 학년별 모집단 크기와 목표표본 크기	65
〈표 Ⅲ-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66
〈표 Ⅲ-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67
〈표 Ⅲ-4〉 설문지 조사문항 전문가 검토 현황	68
〈표 Ⅲ-5〉 청소년 국제교류 조사 항목	69
〈표 Ⅲ-6〉 글로벌 역량	70
〈표 Ⅲ-7〉 세계시민의식	71
〈표 Ⅲ-8〉 다문화수용성	72
〈표 Ⅲ-9〉 자아존중감	73
〈표 Ⅲ-10〉 동북아 국가 호감도	74
〈표 Ⅲ-11〉 동북아 지역 현안 인식(1)	74
〈표 Ⅲ-12〉 동북아 지역 현안 인식(2)	75
〈표 Ⅲ-13〉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국제교류(1)	76
〈표 Ⅲ-14〉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국제교류(2)	76
〈표 Ⅲ-15〉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 조사 결과 및 효과	78
〈표 Ⅲ-16〉 글로벌 역량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79
〈표 Ⅲ-17〉 세계시민의식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80
〈표 Ⅲ-18〉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81
〈표 Ⅲ-19〉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82
〈표 Ⅲ-20〉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	83
〈표 Ⅲ-21〉 최근 1년 간 해외로 여행을 가 본 경험	84
〈표 Ⅲ-22〉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	86
〈표 Ⅲ-23〉 일본에 대한 호감도	89
〈표 Ⅲ-24〉 중국에 대한 호감도	91
〈표 Ⅲ-25〉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92
〈표 Ⅲ-26〉 북한에 대한 호감도	94
〈표 Ⅲ-27〉 몽골에 대한 호감도	95

〈표 III-28〉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97
〈표 III-29〉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은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98
〈표 III-30〉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 (다중응답분석)	99
〈표 III-31〉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다중응답분석)	99
〈표 III-32〉 중국과 일본 국제교류의 효과에 대한 견해 1	101
〈표 III-33〉 중국과 일본 국제교류의 효과에 대한 견해 2	102
〈표 III-34〉 중국과 일본 국제교류의 효과에 대한 견해 3	104
〈표 III-35〉 중국과 일본 국제교류 시 공동의제 견해(다중응답분석)	105
〈표 III-36〉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청소년 국제교류 효과 매칭분석 결과 (CEM 모형)	106
〈표 III-37〉 세계 시민의식에 미치는 청소년 국제교류 효과 매칭분석 결과 (CEM 모형)	107
〈표 III-38〉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청소년 국제교류 효과 매칭분석 결과 (CEM 모형)	108
〈표 III-39〉 중국 및 일본 청소년 현황	109
〈표 III-40〉 중국 및 일본 국제교류 참가자 대상 조사 항목	110
〈표 III-41〉 중국 및 일본 참가자 기본 정보	110
〈표 IV-1〉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2014년)	134
〈표 IV-2〉 연도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예산	136
〈표 IV-3〉 내각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개요 (2013년도 파견사업)	136
〈표 IV-4〉 2015년 내각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세부내용	137
〈표 IV-5〉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자 사후관리사업	139
〈표 IV-6〉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의 주요 프로그램	146

〈표 IV-7〉 2010년 국가별 유학생 수	154
〈표 IV-8〉 2014년 국가별 유학생 수	154
〈표 IV-9〉 국가별 유학생 수(2014)	155
〈표 V-1〉 델파이 전문가 패널 현황	160
〈표 V-2〉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161
〈표 V-3〉 청소년교류활동의 법적 정의 관련 의견	163
〈표 V-4〉 청소년교류활동의 목적 관련 의견	163
〈표 V-5〉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및 역할 관련 의견	165
〈표 V-6〉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지역의 긍정적인 환경 요인	168
〈표 V-7〉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지역의 부정적인 환경 요인	169
〈표 V-8〉 북한 관련 환경 요인	169
〈표 V-9〉 동북아지역 청소년 공통의제	170
〈표 V-10〉 동북아지역별 공통의제의 타당성 분석 결과	171
〈표 V-11〉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정책적 지원	172
〈표 V-12〉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방안	173
〈표 V-13〉 청소년 교류사업 운영 및 개선 방안	174
〈표 VI-1〉 청소년교류활동의 공통의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과 국제교류 참가자의 의견	178
〈표 VI-2〉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181

그 림 목 차

【그림 II-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 국제교류 인원 국가별 현황(%)	19
【그림 II-2】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및 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교류인원 국가별 현황	25
【그림 II-3】 지방자치단체 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교류인원 국가별 현황	27
【그림 II-4】 동북아지역 국가별 교류 지자체 및 교류도시 현황	28
【그림 II-5】 전국 단위 학교에서의 자매결연 현황	30
【그림 II-6】 시기별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단위학교 자매결연 체결 현황	31
【그림 II-7】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 - 체험탐방형	51
【그림 II-8】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 - 토론형	54
【그림 II-9】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 - 자원봉사형	56
【그림 III-1】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빈도	87
【그림 III-2】 참여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시기	87
【그림 III-3】 참여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기간	88
【그림 III-4】 참여 국제교류 프로그램 방문 국가	88
【그림 III-5】 국가별 호감도 긍정(조금+매우 좋다)과 부정(조금+매우 싫다) 응답 비중	96
【그림 III-6】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국제교류 참여 시기	111
【그림 III-7】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국제교류 참여 기간	111
【그림 III-8】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기존 국제교류 참여 국가	112
【그림 III-9】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한국에 대한 편견 변화	113
【그림 III-10】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한국 재방문 의사	113
【그림 III-11】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이번 일정 중 도움이 되었던 경험	114
【그림 III-12】 한·중·일 국제교류 참가자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호감도	115
【그림 III-13】 한·중·일 국제교류 참가자의 북한에 대한 호감도	116
【그림 III-14】 한·중·일 국제교류 참가자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116

【그림 Ⅲ-15】 한·중·일 국제교류 참가자의 몽골에 대한 호감도	117
【그림 Ⅲ-16】 한·중·일 국제교류 참가자의 동북아 지역 외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	117
【그림 Ⅲ-17】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의 효과: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이익	118
【그림 Ⅲ-18】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의 효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존	118
【그림 Ⅲ-19】 동북아 지역의 시급한 현안	119
【그림 Ⅲ-20】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20
【그림 Ⅲ-21】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 동북아지역 평화와 공존에 기여	120
【그림 Ⅲ-22】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 상대국의 문화와 역사 이해 증진에 기여	121
【그림 Ⅲ-23】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 경쟁과 갈등 극복 및 협력에 도움	121
【그림 Ⅲ-24】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공통의제	122
【그림 Ⅳ-1】 일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추진체계도	130
【그림 Ⅳ-2】 일본 청년 국제교류기구 조직도	131
【그림 Ⅳ-3】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센터 조직도	132
【그림 Ⅳ-4】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조직도	135
【그림 Ⅳ-5】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체계도	139
【그림 V-1】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165
【그림 V-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66
【그림 V-3】 민간단체의 역할	167
【그림 V-4】 국제기구의 역할	167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 장
서 |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 간, 문화 간 거리가 좁혀져가는 이 시대에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한 리더십과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체험과 교류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공존의식 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상호 협력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협력의 확대와는 달리 외교, 안보에 관한 협력은 매우 미진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 간의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상호협력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과 함께 동북아 평화협력을 주된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현실 진단에 기초해 있다.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동북아 갈등 구조를 다자간 협력체계(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s)로 완화하고 유라시아 협력²⁾과 연동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12번째 국정전략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127번째 국정과제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3). 외교부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외교안보지형에 관한 진단에서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과는 달리 정치, 외교적 협력이 이에 미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외교부, 2015: 10).

2)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묶어서 지칭하는 말로 유라시아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다자간 대화와 협력의 논의사항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 문제나 영토, 안보 등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보다는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주제부터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비전통 연성 안보 의제(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을 넘어 동북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사이버테러나 원자력 안전,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재난구호 등을 의미한다(외교부, 2015: 15).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전략은 이러한 주제를 대상으로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향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치, 군사, 영토 등 전통적인 안보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전략은 단순 교류가 아닌 공동대응 의제를 발굴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협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는 경제교류를 포함하여 모든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교류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일이나 중·일 간의 전통적인 안보의제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략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손열, 2014).

청소년 국제교류는 몇 가지 측면에서 동북아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동북아 평화협력 실현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인 동북아 청소년들 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 등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우며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이지만 청소년들의 호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들이기도 하다. 한국인권신문(2013)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73.1%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응답이 73.8%로 35.6%에 불과한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부정적인 응답이 나오고 있다.³⁾

두 번째로 비전통 연성 안보 의제는 문화, 체육, 예술이나 학술적인 교류처럼 전문가들 위주의 교류·협력과는 달리, 보편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라는 점에서 일반청소년들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제시하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에너지·철도 물류 연결, 창조적 대륙(기술·문화 융합), 평화의 대륙(동맹구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으로 만들어 가자는 구상”을 지칭한다(외교부, 2015: 5).

3) 한국인권신문 (2013.6.26). 청소년들, “남북통일에 미국은 도움, 중국은 반대할 것!”

http://www.committee.co.kr/sub_read.html?uid=3887§ion=sc59§ion2=사회, 2015년 2월 27일 인출.

참여할 수 있어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전통적인 안보 의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정부나 학자 간 교류보다는 청소년 국제교류 시에 보다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동북아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남북통일 및 동북아 평화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국제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목표에 대한 검토 및 재설정을 통해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관점에서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정책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정책기본 계획 등을 통해 사업화되어 왔다. 주요 내용은 국가 간 청소년교류,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 국제교류 행사 지원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발전과 대외적 위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은 개발 초기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대비 효과성과 수혜 대상이 소수에 그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예산이 줄고 담당부서 인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안보 지형 변화와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거시적으로 향후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동시에 미시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으로는 먼저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과 정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당면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청소년 국제교류 의제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된 비전통 안보 의제나 전통 안보 의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이외에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은 과제와 우리나라의 정책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대표성이 있는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며 한·중·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비롯하여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상호 인식 및 평화 구축을 위한 쟁점들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적 수요와 참여요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장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수행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변화하는 정치, 경제, 문화 환경에 따른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의 개선 방안 및 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해 보았다.

2. 연구내용

1)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개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 국제교류의 목적 및 방향을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 평화공동체와 관련된 이론 고찰을 통해 전통적인 안보담론에서 벗어나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청소년 국제교류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국제교류 사업의 몇 가지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평화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2)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과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현황 및 청소년 참여 실태, 그리고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정책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청소년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 관련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과 청소년 참여 실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청소년 국제교류 해외사례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와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발굴을 위하여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최근 인재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중장기인재발전계획강요(國家中長期人才發展計劃綱要, 2010-2020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장려하고 있다(中國教育部, 2010).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 역시 글로벌 역량 강화에 주목하고 있는 일본청소년교육진흥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日本青少年教育振興機構, 2014). 두 국가와 한국과의 차이점은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를 교육 관련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출장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 실태조사 및 효과성 검증

본 연구에는 동북아지역을 포함하여 국제교류 전반에 대한 참여 실태와 함께 동북아 지역 평화 관련 이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 간 교류 차원에서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과 일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이 연구는 매칭방법(Matching Method)을 활용하였다. 매칭방법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실험설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무작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표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CEM(Coarsened Exact Matching) 방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Iacus, King, and Porro, 2008; 김기현 · 신인철, 2012).

5)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국가들의 변화하는 정치, 경제, 문화 환경에 따른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의 개선 방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국제교류 정책의 목적 및 지향성, 각 주체별 역할, 청소년 교류 공통의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과 정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을 도출하여 그 특징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동시에 일본,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연구도 수행하였다.

2) 양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국제교류의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실태 및 인식조사는 전국적으로 10,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여러 과제들의 실태조사를 통합해 실시하는 통합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은 데이터매칭 방법의 일종인 CEM 방법을 활용하여 대표성을 갖는 실태조사 자료에 실험설계 방식을 적용한 효과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국립국제교육원의 협조 아래 올해 국가 간 교류사업에 실제로 참여했던 일본 참가자 149명과 중국 참가자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장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향 설정 및 청소년교류사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간 교류, 한·중 특별교류 등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제교류센터, 교육부 사업을 담당하는 국립국제교육원, 외교부의 사업을 담당하는 한·중·일 3국협력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의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4) 전문가 델파이조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의 타당도 분석은 타당도 비율과 합의도, 수렴도를 통해 수행되었다.

5) 국외출장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국제교류 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과 관련 실무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위해 국외출장을 실시하였다. 국외출장은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방문기관은 일반재단법인 일본청년국제교류기구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센터(一般財団法人日本青年國際交流機構・青少年國際交流推進センター)와 공익재단법인 국제청소년연수협회(公益財団法人國際青少年研修協會) 등이다.

일본청년국제교류기구는 1959년도 내각부에 설립한 기관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도부현에 47개의 국제교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청년 교류회의, 일본·아세안 청년 리더 서밋, 청소년 국제교류 전국 포럼, 청소년 국제교류 스터디 투어 등이 있다. 국외출장 시 면담자는 아츠코 혼다(濫子本田) 일본청년국제교류기구 부회장이다. 그리고 공익재단법인 국제청소년연수협회(International Youth Association of Japan KSKK)는 1973년 국제 간 우호교류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문부과학성의 허가로 공익재단법인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곳은 청소년 해외연수 교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면담자는 타카다 히로유키(高田裕之) 사무국장이다. 기관 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제 II 장

..... 동북아 평화공동체 관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실태 분석

1.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
2.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현황 및 문제점
3.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 II 장

동북아 평화공동체 관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실태 분석*

1.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

1)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

여기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류(exchange)란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이듯이 개인 간에, 국가 간에, 지역사회 간에 인적, 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는 행위로 정의해볼 수 있다(김창환, 유시은, 김윤영, 2013: 21). 교류는 크게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로 구분되기도 하며, 교류 내용에 따라서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정보 교류 등으로, 교류 대상에 따라서는 국가, 지역, 기업, 대학, 정치인, 연구자, 학생, 청소년 교류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청소년 교류는 청소년들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로 대상의 특성 상 경제 교류나 정보 교류와 같은 물적 교류보다는 인적 교류이며 경제, 정치 교류보다는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교류 형태로 이루어진다. 청소년 교류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370호, 2015.6.22, 일부개정) 제3조의 3 정의에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활동 중의 하나이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정의는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13182호, 2015.2.3, 일부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법 제2조(정의) 4에서 ‘청소년 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이 장의 일부는 김기현, 황세영(2015).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및 사업현황. 청소년 정책 이슈브리프, 제16호로 발간된 바 있음.

**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과 황세영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이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 국제교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에 속하며 지역 간의 교류를 제외한 국가 간 교류라 할 수 있다. 남북 간 교류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독립적으로 교류활동의 한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국제교류에 포함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윤철경, 이민희, 박선영, 박숙경, 신인순(2011)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광의와 협의의 정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의의 정의는 교류를 상호주의에 의한 등가적 교환으로 청소년 간의 만남이 없는 해외탐방, 견학, 여행, 연수 등을 제외하는 것이다. 반대로 광의의 정의는 이를 포함하는 것이다. 윤철경 외(2011)는 협의의 정의보다는 광의의 정의가 바람직하나 청소년활동의 정책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통과 만남, 상대에 대한 기여와 상호 이해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1: 16).

여기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를 개인 간에 혹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하고자 하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교류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대상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이외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국가 간 교류 역시 청소년 교류활동에 포함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자 한다. 이는 교류 대상이 상이할 경우 교류 목적이나 교류 성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동북아에 대한 정의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는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동북아지역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는 아시아의 동북부 지역으로 좁게는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 국가를 지칭하기도 하며 넓게는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과 시베리아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동북아는 지정학적 정의보다는 정책적 정의로 접근하고자 하며 최근 유라시아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최근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 공동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정치안보적 담론에서 벗어나 평등과 공존공영, 그리고 개방과 포용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광익, 2004; 임현진, 2010; 박승우, 2011).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기후변화와 환경 등과 같은 이슈들이 동북아지역의 중요 의제로 부각되며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외교부, 2015). 다른 한편 ‘동북아시아’ 공동체가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그 경계와 정체성이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변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제기된다(박승우, 2011). 따라서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개념은 국가 주도의 계획이나 보편타당한 원리로서가 아닌 현실 상황에서 다양하게 직면하는 공동의 이슈에 대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즉, 단순히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한다거나 반대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 위주의 사업의 한계를 넘어 청소년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하며 나아가 여러 현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등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교류 지역별 특성, 사업의 목적 및 특징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 국제교류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전통적인 안보 및 역사 관련 이슈를 포함하여 정치, 문화, 환경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목적 및 주제 설정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을 이론적 혹은 정책적 정의에 따라 하향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안 및 청소년의 인식에 대한 실증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향식의 접근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3)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에 관한 논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이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다른 청소년활동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수혜자가 많지 않고 개인당 비용도 크다는 점에서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나 연구들은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만족도 조사나 통제집단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사후 검사 등으로 효과성에 관한 검증 작업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김옥순, 2011). 다만 평가도구와 관련해서는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나 글로벌역량 등을 측정하는 문항 개발이 이루어진 바 있고 비교집단 없이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이 시도된 바 있다(오해섭 · 김진화, 2004).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관한 비교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윤철경 외(2011)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에 실시한 국가 간 교류와 해외자원봉사 활동, 해외테마체험단, 한중특별교류 등에 참여한 1,125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원자료를 제공받아 국가 간 교류 이해증진도와 글로벌 역량 증진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평균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한중특별교류가 4가지 프로그램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어 여성가족 부에서는 2013년 및 2014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양계민(2013), 김호순, 김준영, 강동균, 이필만(2014)의 연구를 통해 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실제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를 주로 청소년들 자신이 지각하는 글로벌 역량 및 세계시민의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실제 사업의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되었는지 또는 사업의 어떤 내용 또는 방식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질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제교류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조남익·김고은(2014)의 연구는 효과성 검증과 관련하여 통제집단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실험설계를 토대로 국제교류활동 참여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협력이나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25명의 소규모 대상을 통해 분석한 결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여 국제교류활동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에는 동북아 평화공동체와 관련된 문항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국제교류의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행정기관의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교류 실태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은 청소년정책을 총괄적으로 제시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a, 2012). 「청소년기본법」에서는 5년 단위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다섯 번째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하 ‘제5차 계획’)으로 불리고 있다.

제5차 계획에서의 정책과제는 모두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를 포함한 정책과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가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과제 중에서 15대 중점 과제로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의 세부 실천과제로는 ①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함양, ② 다문화 프로젝트 촉진, ③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④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다원화, ⑤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a, 2012).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세부 실천과제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이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과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활성화 및 상호이해 증진 과제 역시 국제교류정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의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교류 인원, 지원범위 등을 확대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보편적 국제교류 사업 추진, 수준별·연령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청소년교류센터의 조직 및 기능 확충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저개발 국가 청소년들을 위한 개발협력(ODA)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b, 2012; 김기현·황세영, 2015: 2). 세부 실천과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이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단위의 추진주체로 포함되어 있다.

*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중앙행정기관 부분)과 황세영 부연구위원(지자체 및 교육청 부분)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표 II-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현황(2015)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교류국가	교류대상 및 인원	예산	
				2014	2015
여성가족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22개국	만15-24세 618명	4,519	4,319
	한·중청소년 특별 교류	중국	만15-24세 972명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8개국	만15-24세 311명		
	국제회의·행사 파견	국제기구	만15-24세 18명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 초청연수	재외동포 거주국	만13-23세 1,000명	3,043	3,243
	국내 청소년 해외연수	미국, 독일	만13-23세 45명		
	한·중 청년교류 사업	중국	만24세 300명		
	한·일 대학생 교류 사업	일본	대학생 60명		
통일부	남북한 청소년 교류 사업	북한, 중국	남·북·중 유소년/유소녀 축구대회 남측 선수단 89명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북측 선수단 32명	4 (11)	10
합 계				7,566	7,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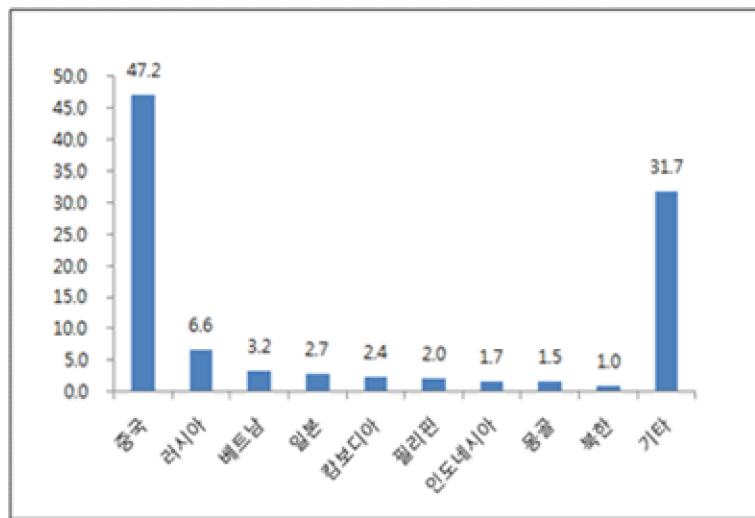
1) 당초 예산은 11백만 원이었으나 집행은 4백만 원만 이루어짐.

* 출처 : 여성가족부(2015c)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한 2014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편을 살펴보면, 글로벌·다문화역량 강화 과제에 대한 중앙부처의 세부사업 수는 18개에 이르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113억 원이다(여성가족부c, 2015). 사업 수로는 전체 청소년정책 사업(248개) 중 7.3%에 해당하며 예산규모로는 전체 예산(6조 7천억 원)의 0.2%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책영역 중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부문의 전체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부사업 내용을 토대로 직접적으로 국제교류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추려 부처별로 <표 II-1>에 제시하였다. 3개 부처 전체 예산은 75억 원으로 해당 정책 과제(113억 원)에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중에서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단일 사업 내에서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 국가별 국제교류 인원을 통해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체 국제교류 인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절반에 가까운 47.2%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러시아가 6.6%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고, 이어 나머지 국가들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청소년 교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9.0%로 절반 이상에 이른다.



* 출처 : 여성가족부(2015c)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내용을 분석해 정리한 것임. 김기현·황세영(2015).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및 사업현황. 청소년 정책 이슈브리프, 16호, p. 3.

【그림 II-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 국제교류 인원 국가별 현황(%)

그런데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시행계획에는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모두 제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행계획 자료가 모든 사업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 장에서는 각 부처에서 발간하는 백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2 여성가족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현황

국가	주관기관	교류인원 및 기간	국가	주관기관	교류인원 및 기간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30명, 10일간	폴란드	교육체육부	10명, 10일간
사우디	청소년복지처	10명, 10일간	인도	청소년체육부	20명, 10일간
일본	내각부	30명, 15일간	파키스탄	청소년부	10명, 10일간
중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40명, 10일간	이집트	청소년부	10명, 10일간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10명, 10일간	그리스	교육종교부	3명, 6일간
러시아	교육부	20명, 10일간	터키	청소년체육부	20명, 10일간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10명, 10일간	스페인	청소년청	3명, 15일간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16명, 10일간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10명, 10일간
핀란드	교육부	3명, 6일간	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청	6명, 7일간
칠레	청소년처	20명, 10일간	튀니지	청소년체육부	10명, 10일간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50명, 20일간	싱가폴	국가청소년위원회	10명, 7일간
몽골	사회복지노동부	10명, 10일간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35명, 10일간
멕시코	청소년원	12명, 10일간	브루나이	문화청소년체육부	10명, 10일간
이스라엘	청소년교유험회	10명, 10일간	카메룬	외교부	10명, 10일간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10명, 10일간	콜롬비아	교육부	10명, 10일간
체코	교육청소년체육부	10명, 10일간	UAE	청소년체육청	10명, 기간 명시하지 않음
수단	청소년체육부	10명, 10일간	카타르	청소년체육부	12명, 7일간

* 출처 :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백서」, pp. 119-120.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한·중 청소년 특별 교류,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국제회의·행사 파견 사업 등으로 2014년 예산 규모는 4,31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여성가족부의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교류인원을 2013년 1,614명에서 2017년까지 1,800명으로 늘리고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비율을 같은 기간 동안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먼저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상대국 정부의 청소년 담당 부처 간의 약정 등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4: 118). 국가 간 교류는 청소년기관 방문,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 및 토론, 홈스테이, 역사문화탐방, 산업시설 견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14)에 따르면, <표 II-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14년 현재 34개 국가와 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4년에는 22개 국가에 302명의 한국 청소년을 파견하고 316명의 외국 청소년을 초청해 총 618명을 대상으로 교류를 시행하였다. 교류 국가 중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를 포함한다면 중국, 일본, 몽골 등과 함께 4개국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총 교류인원은 100명으로 전체 교류인원 중 16.2%를 차지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과는 1992년 양국 수교 시에 교류합의가 이루어졌고 주관기관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이며 매년 40명씩 10일 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교류인원은 1,465명에 이르고 있다. 일본과는 1984년 정상회담공동선언을 근거로 1987년부터 내각부를 주관기관으로 추진 중이며 매년 30명씩 15일 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2014년까지 전체 교류인원은 1,702명에 이르고 있다. 몽골과는 2001년 사회복지노동부와 청소년분야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사전합의에 따라 2000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10명씩 10일 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까지 전체 교류 인원은 318명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는 1995년 교육부와 청소년협력계획서를 체결하였고 1994년부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20명씩 10일 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전체 교류인원은 401명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는 2003년 양국 정상회담의 청소년 교류 합의에 의해 2004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매년 500명씩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까지 총 교류인원은 7,776명에 이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121). 마지막으로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은 2007년 한·중·일 3국 정상 회담에서 3자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하여 추진 중이며 매년 개최 장소를 달리해 2012년까지 각 국가별로 100명 규모로 참여해 이루어졌다(여성가족부, 2014: 122).

표 II-3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사업 추이

년도	한·중 청소년 교류		한·중·일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해외자원봉사단	
	교류국가	교류대상 및 인원	교류국가	교류대상 및 인원	교류국가	교류대상 및 인원	교류국가	교류대상 및 인원
2004	중국	초청 487 파견 -	-	-	104개국	16,518명	-	-
2005	중국	초청 483 파견 -	-	-	126개국	80,830명	-	-
2006	중국	초청 489 파견 98	-	-	147개국	70,897명	23개국	503명
2007	중국	초청 491 파견 97	중국	100명	16개국	482명	5개국	191명
2008	중국	초청 404 파견 95	일본	100명	10개국	54명	14개국	662명
2009	중국	초청 480 파견 195	한국	100명	20개국	85명	12개국	630명
2010	중국	초청 479 파견 382	중국	100명	15개국	85명	12개국	654명
2011	중국	초청 482 파견 197	일본	98명	9개국	59명	11개국	704명
2012	중국	초청 484 파견 492	한국 일본	297명 98명	4개국	18명	5개국	160명
2013	중국	초청 484 파견 485	미개최	미개최	6개국	42명	9개국	457명
2014	중국	초청 478 파견 494	미개최	미개최	4개국	16명	8개국	311명

* 출처 : 문화관광부(2004). 「청소년백서」, 한국청소년위원회(2005). 「청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2006~2007). 「청소년백서」, 보건복지가족부(2008~2009). 「아동·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2010~2014). 「청소년백서」.

외교부에서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제출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중 재외동포청소년 초청연수 사업은 매년 7월~8월 중 7박 8일로 추진되며 연수대상은 만13~23세 재외동포 및 국내 청소년 1,000명이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나누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650명, 대학생은 350명 규모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한국 전통문화나 농어촌 체험, 1일 교환학생체험, 한류문화체험 등 한국 문화를 알리고 청소년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국내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9박11일 동안 이루어지며 미국의 뉴욕,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만13~23세 청소년 45명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재외동포청소년 초청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일반 청소년 외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북한이탈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중 청년교류사업은 양국 청년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상호 우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300명을 대상으로 각 1회 상호교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측 주관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며 중국 측 주관기관은 인민대외우호협회이다. 중국 측 초청 인원은 청년공무원이며 한국측 파견 인원은 만24세 이상 청년과 다문화 청소년, 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포함된다.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은 1971년 한일각료회담 합의 이후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 197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일본 대학생 대표단 방한 초청은 연 1회 9박10일 동안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한국 대학생 대표단 방일 파견 역시 같은 일정과 인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도 행사의 경우 상대국의 식문화 체험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난타공연 등 문화체험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외교부에서 제시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이하 TCS)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립외교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들도 존재한다. TCS는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상호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2010년 제3차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를 채택해 2011년 한국에서 개소하였으며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외교부, 2014). TCS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청년 대사 프로그램(Young Ambassador Program)을 운영 중이며 대학생들의 발표 프로그램인 3개국 뉴 웨이브(The Trilateral New Wave) 등이 추진 중에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협력(ODA)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므로 몽골과 관련된 사업 정도가 사업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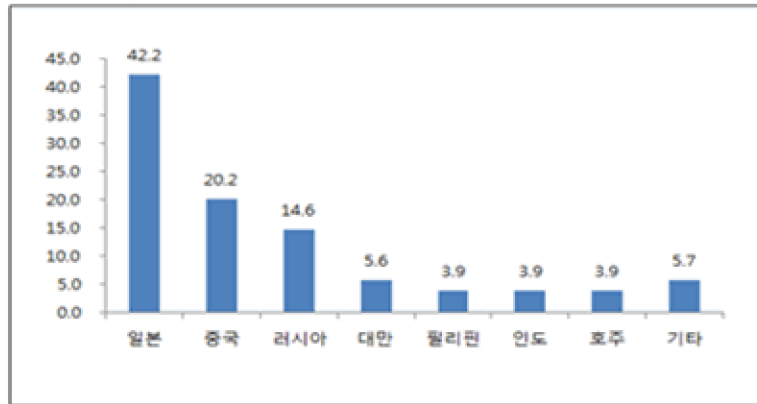
통일부에서 추진 중인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0년 이후에는 2012년 인천시 후원으로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추진한 제2회 인천평화컵국제 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린 바 있다(김형주, 2014; 김창환 외, 2013). 이 행사는 중국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에서 31명, 북한에서 40명 등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남북한 간의 인적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의 통일 미래를 대비한 평화통일 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남북 젊은 세대 간의 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201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건립하였다. 현재 남북한 교류 사업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교류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는 국제화교육이나 외국교류기관 및 유학생 유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등 국제교류 그 자체보다는 국제화 혹은 세계화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각급 학교를 포함해 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교환학생 등의 규모로 볼 때 가장 많은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교류 사업 및 활동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유학이나 학술 목적의 활동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한일 및 한중 중고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교육지원부의 국제교류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실태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4>와 같다.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제출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시도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시군구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15년 현재 5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구 단위 사업이 대부분이며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시 단위 사업과 구 단위 사업이 동시에 존재하고 나머지는 시 단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구에서 홈스테이 문화교류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봉구에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북경시 창평구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서구는 일본과 중국 두 국가에 초·중·고등학생 30명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림 II-2]에서 보듯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중 인원대비로 볼 때, 일본이 4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중국이 20.2%, 러시아가 14.6%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 여성가족부(2015d)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내용을 분석해 정리한 것임.

【그림 II-2】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및 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교류인원 국가별 현황(%)

표 II-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현황(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 백만원)

시	사업명	교류국가	교류대상 및 인원	예산	
				2014	2015
서울 특별시	중구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교류 사업	중국	중·고등학생 14명	15	15
	도봉구 청소년 국제교류 (자매결연국제도시 - 중국 북경시 창평구)	중국	중학생 32명	37	33
	강서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일본, 중국	초·중·고등학생 30명	27	27
부산 광역시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중국	고등학생 40명	20	18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	일본	중학생 100명	15	12
	모범청소년 해외탐방	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30명	50	50
	국제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지원 (부산-후쿠오카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일본	선수단 250명	60	50
대구 광역시	해외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중국, 일본(2)	청소년 각 25명	50	50
	중구 청소년 국제교류	중국	중·고등학생 42명	41	41
	수성구 청소년 국제교류	필리핀, 중국, 인도, 호주	해외자매도시 자매학교 학생 160명	20	20

시	사업명	교류국가	교류대상 및 인원	예산	
				2014	2015
인천 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싱가포르, 대만, 일본	14-19세 청소년 (싱가포르 11명, 대만 28명, 일본 20명)	70	48
광주 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말레이시아, 미얀마	청소년 28명	50	50
대전 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러시아	중학생 150명	75	85
울산 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미얀마	청소년 20명	20	20
합 계				566	533

* 양국 방문의 경우 인원수 대비 50%로 계산함.

출처 : 여성가족부(2015d),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도지역의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5>와 같이 시·도 차원의 국제교류 사업과 시군구 단위의 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전체 예산규모는 8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그림 II-3]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가별로는 중국이 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서 러시아가 24.9%, 일본이 16.9%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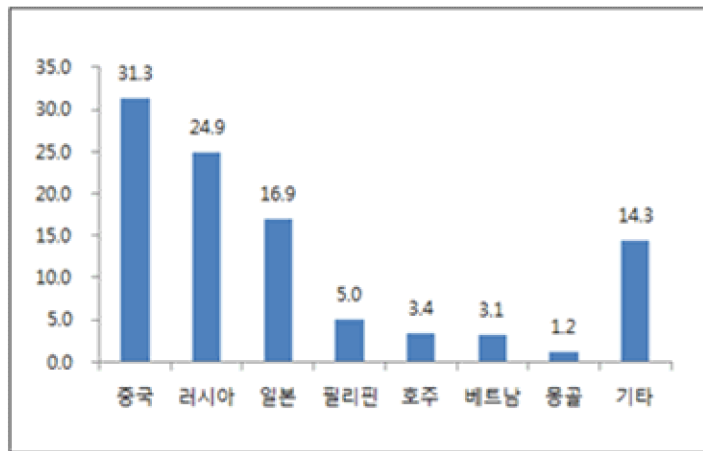
표 II-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현황(도)

(단위: 백만원)

도	사업명	교류국가	교류대상 및 인원	예산	
				2014	2015
경북	재러 한인4세 모국 연수	러시아	재러한인4세 청소년 200명	30	30
경기	가평군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호주, 미국	청소년 44명	229	251
충북	청소년 국제교류	중국(3), 서북미(1)	청소년 및 충청향우회 자녀 80명	36	48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문화 교류	중국	청소년 56명	35	30
	청주시 청소년 국제교류(한독)	독일	20명	30	10
	청주시 한·중 무술문화교류	중국	청소년 50명	35	30
	진천군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지원	필리핀	중고생 13명	40	40
충남	청소년 해외 선진문화 탐방	호주	도내 청소년 9명		20
	아산시 청소년 국제교류	헝가리	청소년 10명	42.6	54
전북	해외청소년봉사활동	라오스	중·고·대학생 청소년 18명	-	-

도	사업명	교류국가	교류대상 및 인원	예 산	
				2014	2015
전남	전남·미국 플로리다 한인회 청소년 국제교류	미국	중학생 19명	—	40
	재외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미국, 멕시코	5명	—	21
	전남·중국 장시성 청소년 국제교류	중국	고등학생 60명	49	49
	한일청소년 문화포럼	일본	학생 90명	10	9
경북	세계 청소년 웅변대회	베트남	청소년 3명	10	10
	해외봉사활동 운영	인도네시아	청소년 15명	27	27
경남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필리핀	청소년 16명, 소외계층 청소년 2명	6	3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 답사	중국	어려운 청소년 15명		—
	한일해협연안8개 시도현청소년 문화포럼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100명(각 25명)	71	71
	거제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일본	청소년 10명	0	10
	의령군 청소년 국제교류	중국	학생 17명	19	15
	함안군 청소년 국내·외 교류 행사 지원	몽골	11명	78	70
제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추진	일본	청소년 28명	35	25
	해외봉사활동	필리핀	청소년 14명	22	—
합 계				804	869

* 출처 : 여성가족부(2015d),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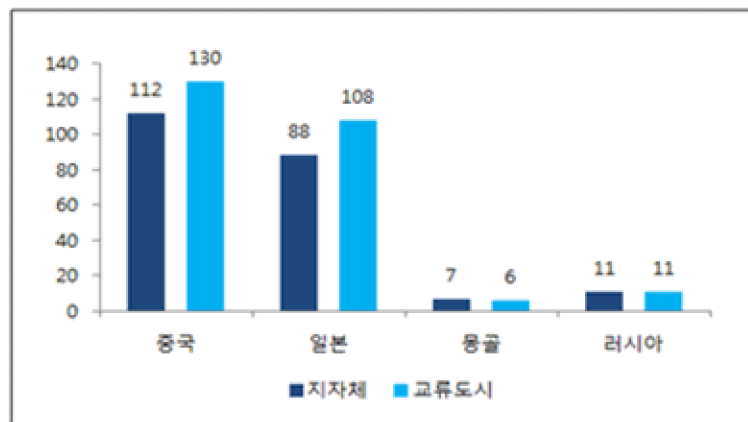


* 출처 : 여성가족부(2015d)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내용을 분석해 정리한 것임.

【그림 II -3】 지방자치단체 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교류인원 국가별 현황(%)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자료에서는 2015년도 일부 현황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교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다.⁴⁾ 청소년교류에는 홈스테이, 수학여행, 청소년 스포츠 교류, 어학연수, 국제 인턴십 등이 포함되며, 교류 시기는 1980~1990년대 일부를 포함하여 대부분 2000년대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 시도별 국제교류 자료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4]와 같다.

우선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 수는 112개이고 교류도시 수는 130개로 동북아 지역 국가 중에는 가장 많다. 일본과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 수는 88개이고 교류도시 수는 108개이다. 이에 비해 몽골과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 수는 7개, 교류도시 수는 6개이며, 러시아와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 수는 11개, 교류도시 수는 11개로,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지자체 수와 교류 도시의 수가 불일치하는 이유는 하나의 지자체에서 여러 곳의 해외 도시와 교류하고 있거나, 반대로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에서 외국의 도시 한 곳과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다(김기헌·황세영, 2015: 4).



* 출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http://exchange.gaok.or.kr/> 2015년 9월10일 인출 김기헌·황세영(2015).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및 사업현황. 청소년 정책 이슈브리프, 16호, p. 5.

【그림 II-4】 동북아지역 국가별 교류 지자체 및 교류도시 현황(건 수)

다음으로, 같은 자료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교류도시와의 교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빈도수는 교류일자를 각각 세어 나타낸 것이며, 보통 한 해에 1-2건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가장 교류가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http://exchange.gaok.or.kr/> 2015년 9월10일 인출.

활발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은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5건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자체 및 교류 도시의 숫자가 각각 92, 105개로, 일본의 58, 65개에 비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과의 교류가 양적으로 많지만 교류기간이 매우 짧은다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빈도 수 6-10 구간, 11-15 구간의 비중이 중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수의 지자체에서 일본 도시와 상대적으로 더 오래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로 산둥성 지닝시와 2007년 이후 총 19차례의 청소년 교류가 주로 학교 방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충북 보은군으로,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와 1995년 이후 총 21차례의 교류가 학생 교류, 홈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졌다. 몽골과의 교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로, 울란바타르시와 1997년 이후 6차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교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강원도 동해시로, 연해주 나훔카시와 1991년 이후 총 17회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표 II-6 동북아지역 국가별 지자체 및 교류도시 교류 빈도 현황

(단위: 건 수)

교류 빈도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지자체	교류도시	지자체	교류도시	지자체	교류도시	지자체	교류도시
1-5	92	105	58	65	5	5	9	9
6-10	23	24	34	35	1	1	1	1
11-15	6	6	8	8				
16 이상	3	3	2	2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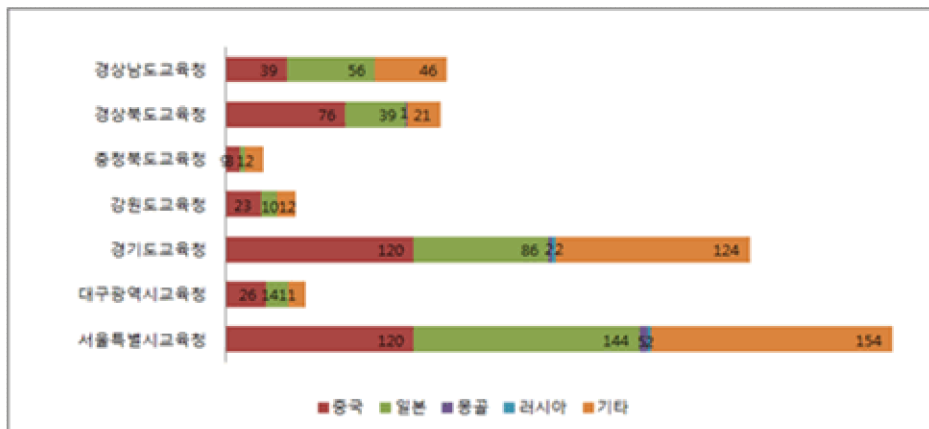
* 출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http://exchange.gaok.or.kr/> 2015년 9월 10일 인출.

3) 시도 교육청 국제교류 정책 및 실태

마지막으로 시·도 단위 교육청의 국제교류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제교류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지구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가지 갈등 및 문제의 해결, 인류의 공존과 공영 등이 강조되고(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기현·황세영, 2015: 5). 또한 교육청의 국제교육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국제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중국 상해와 일본 후쿠오카와의 학생 및 교사 교류사업, 아시아 청소년 교육포럼,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부산광역시 교육청, 2015). 제주도의 경우, 2010년부터 매년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를 통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 학생 및 교사를 초청하여 평화, 환경, 청소년문제 등의 테마에 대하여 토론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5).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아시아태평양청소년환경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단위 학교별로 자매결연을 통해 외국 학교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한 일선 초·중등학교의 자매결연 실태 자료를 토대로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교류 현황을 보면 [그림 II-5]와 같다.⁵⁾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학교 가운데 2/3정도가 지역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몽골과 러시아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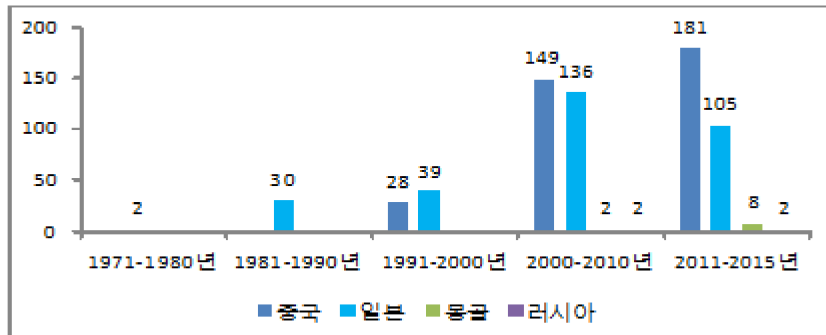
*출처 : 김기현·황세영(2015).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및 사업현황. 청소년 정책 이슈브리프 16호 p. 6.

【그림 II-5】 전국 단위 학교에서의 자매결연 현황⁶⁾(건 수)

5) 서울, 대구, 강원, 경북, 경남 교육청 자료는 2014년 현황을, 경기도, 충북, 충남 교육청 자료는 2013년 현황을 나타낸다. 나머지 지역은 2010년 이전 자료이거나 현황 파악이 안 된 경우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 경상남도 교육청 <http://www.gne.go.kr/>, 경상북도 교육청 <http://global.jbdream.or.kr/>, 충청북도 교육청 <http://global.cbe.go.kr/>, 강원도 교육청 <http://www.gwe.go.kr/>, 경기도 교육청 <http://www.goe.go.kr/>, 대구시 교육청 <http://www.dge.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www.sen.go.kr/> 2015년 9월 10일 인출.

단위학교에서의 국제교류 현황을 다시 시기별로 분석하면 [그림 II-6]과 같다.⁷⁾ 1970~1980년대에는 일본과의 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중국과의 교류는 1990년대 들어 활성화되어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골 및 러시아와는 2000년대 들어 교류가 조금씩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6] 시기별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단위학교 자매결연 체결 현황(건 수)

4)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의 특징 및 문제점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청의 수준에서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은 197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0년대 들어 조금씩 확대되다가, 2000년대 들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외교부가 가장 오래 전인 1971년부터 일본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시작하였고, 여성가족부는 1980년대 처음 시행한 이래 국가 간 교류 사업을 가장 많은 국가와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1990년대 이후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여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로 보면, 일본과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는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몽골 및 러시아와의 교류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김기현·황세영, 2015: 7).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 경북 교육청 자료는 자매결연 체결 연도가 나와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3.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부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본 절에서는 동북아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현황을 각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에서 최근 진행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및 프로그램들의 목적, 내용, 참가자 특성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사업의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은 2015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가장 최근 것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다.

(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크게 국가 간 교류, 한·중 특별교류,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등의 파견 사업과 아시아 청소년 초청연수, 국제청소년포럼 등의 국제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간 교류사업은 두 국가 간에 상호 파견 및 초청 방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의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으로는 우선 국가 간 청소년 교류협정을 맺은 일본, 몽골, 러시아 등 세 나라들과 이루어지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가 있다. 일본과는 198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추진을 합의한 이래, 1987년부터 매년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였고 29년째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러시아와의 교류는 1994년부터, 몽골과는 2000년부터 청소년 국제교류가 실시되었다. 중국의 경우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사업을 통해 보다 대규모 인원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는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합의에 의해 2003년 7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500명씩 상호 파견 교류하고 있다.⁸⁾ 국가 간 교류사업의 일정은 주로 문화 유적지 방문, 대학·기업 등 기관 방문, 청소년 간 교류회, 홈스테이 등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관광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별 목적, 기간 및 인원은 <표 II-7>과 같다.

* 이 절의 일부 내용은 김기현, 황세영(2015).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및 사업현황. 청소년 정책 이슈브리프, 제16호에 인용되었으며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8) 여성가족부(2015a). 2015년 한·중 청소년 교류 1차 파견 실행계획 및 발대식 운영 계획(안). 내부자료.

표 II-7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국가 간 파견 및 초청 교류사업

주관기관	사업명	목적 또는 주제	기간	인원(명)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 연맹	한·몽 국가 간 청소년교류 파견(2015)	○ 국가 간의 파트너십 강화 및 연계성 증진,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 개발	9박 10일	초청10 파견10
	한·일 국가 간 청소년교류 파견(2015)		14박 15일	초청30 파견10
	한·러 국가 간 청소년교류 파견(2015)		9박 10일	초청17 파견21
아시아교류 협회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사업(2015)	○ 한·중 청소년간의 이해와 우호증진 및 양국 간 협력관계 구축	7박 8일	초청498 파견478

*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s://www.kywa.or.kr/> 2015년 9월 7일 인출, 여성가족부(2015a), 2015년 한·중 청소년 교류 1차 파견 실행계획 및 발대식 운영 계획(안),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15b), 2015년 한·중 청소년 교류 2차파견 사업결과 보고, 내부자료.

이러한 국가 간 초청 및 파견 사업과는 별도로 중국과 일본과는 다양한 교류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사업으로는 인문학을 주제로 청소년들 간의 소규모 교류사업인 한·중 인문유 대강화사업이 있으며, 일본과의 교류사업으로는 양국 청소년이 당면한 공통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 대학생 토론회가 있다.⁹⁾

한·중·일 3국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청소년포럼의 경우, 청소년의 언어문화의 현실과 같이 3국의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써 상대방 국가의 문화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¹⁰⁾

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iye.youth.go.kr/> 2015년 9월 7일 인출.

10) 세계도덕재무장MIRA/IC한국본부 <http://www.mrakorea.or.kr/> 2015년 9월 7일 인출.

표 II-8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기타

주관기관	사업명	목적 또는 주제	기간	인원(명)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중 인문유대 강화사업(2015)	○ 국가간의 우호협력 증진 및 청소년 글로벌역량 강화 ○ 2015년 주제 : 한·중 청년 직업능력개발 및 창업 교류사업	7박 8일	청소년12
	한일 대학생 토론회(2015)	○ 청소년을 위한 한·일 협력사업 ○ 2015년 주제: 청소년이 바라보는 저소득 청소년 지원 방안/한·일 문화 이해 및 미래 협력 방안	3박 4일	한국대학생15 일본대학생15
세계도덕 재무장MRA/ IC한국본부	동북아청소년포럼 (2015)	○ 동북아 중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 2015년 주제: 동북아 발전을 위한 평화와 협력	5박 6일	한국35 중국25 일본25

*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iye.youth.go.kr/>,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http://www.mrakorea.or.kr/> 2015년 9월 7일 인출.

한편으로 중국과 몽골 지역과는 자원봉사단의 형태로도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자
원봉사단 파견의 목적 및 내용은 <표 II-9>와 같다.

표 II-9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자원봉사

주관기관	사업명	목적 또는 주제	기간	인원(명)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2015) :몽골파견	○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 및 국제 역량 강화 ○ 청소년 시설 개·보수 활동, 환경·위생 캠페인, 물품 지원 등	9박10일	몽골파견49 (3회)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2015) :중국파견		9박10일	중국파견16

*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iye.youth.go.kr/> 2015년 9월 7일 인출.

(2) 외교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다음으로 외교부의 국가 간 교류사업은 한·중 청년 교류사업과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이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한·중 대학생 교류사업은 2008년 한·중 정상회담 양국 공동성명서를 통해 청소년 상호초청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매년 400명 규모의 중국청소년대표단이 연 2회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100명의 한국청소년대표단이 중국에 파견되고 있다.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은 제5차 한·일 각료회담(1971) 합의에 의거하여 양국 외교부가 1972년부터 상대국 대학생 대표단 30명을 상호 초청하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외교관련 기관 방문, 대학 등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각국 간의 이해 제고 및 교류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강연 및 발표,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탐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¹¹⁾ 프로그램별 목적, 기간 및 인원은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외교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국가 간 파견 및 초청 교류사업

부처 (주관기관)	프로그램명	목적	기간	인원(명)
한국국제 교류재단	한일 대학생 교류 사업 (2015)	○ 한일 양국 대학생간 상호이해 및 우호 증진 ○ 2015년 주제: 문화콘텐츠	9박10일	초청30 파견30
	한중 청년 교류 사업 (2015)	○ 한·중 대학생의 상호 이해 제고 및 상호 우의 증진 ○ 양국 간의 교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 기반 조성	7박8일	초청180 파견80

* 출처 :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 2015년 9월 24일 인출.

이러한 국가 간 초청 및 파견 형태의 교류 사업 이외에도 외교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는 여러 국가의 청소년들이 공통의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대부분 1주일 이내의 행사 또는 포럼 형태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의 청년대사프로그램의 경우 12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3국의 청년들이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등 상대방 국가와 문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통의 이슈에 대해

11)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 2015년 9월 7일 인출.

토론 및 발표의 기회를 가지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¹²⁾

한편, 외교부에서는 한러대화사무국을 통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대학생대화프로그램을 매년 순회 개최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한러관계 전문가의 강연 및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³⁾ 몽골과는 국가 간 교류 사업은 없고, 동북아 청년비전포럼 및 한-중앙아시아 청년 모의정상회의 등 다자간교류 사업 내에서 교류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일·중 모의정상회담프로그램의 경우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을 목표로 문화, 경제 및 환경을 주제로 강의 및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11 외교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포럼 및 회의

부처 (주관기관)	사업명	목적	기간	인원(명)
TCS	청년대사 프로그램 (2015)	○ 한·일·중 3국의 차세대 지도자인 청년들의 3국 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간 우정 및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대표적 청년 교류	11박 12일	대학생14
	한일중 3국청년 모의정상회의 (2015)	○ 동북아 3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 및 우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체마인드 제고 ○ 2015년 주제: 동북아 공동체와 발전을 위한 한·일·중 3국 협력	4박 5일	한국10 중국10 일본10
아시아 교류협회	동북아(한중일) 청년 비전포럼 (2014)	○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 방안 모색 ○ 2014년 주제: 동북아 공동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해양경제, 해양환경)	7박 8일	한국20 중국, 일본, 대만, 몽골30
	한-중앙아시아 청년 모의정상회의 (2015)	○ 중앙아시아 5개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사하차치공화국, 몽골, 한국학생들이 모여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토의하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2015년 주제: 동북아 공동체와 발전을 위한 한·일·중 3국 협력: 한중일 환경 협력 방안	6박 7일	한국21 중앙아시아 5개국 각6
한러대화 사무국	한러대학생 대화(2015)	○ 향후 한러관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양성 ○ 폭넓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차세대들 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증진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양국 청년들의 실천적 연대와 참여 촉진 ○ 토론 내용을 토대로 합의문을 작성하여 양국 정부에 제출, 청년과 차세대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 ○ 2015년 주제: 한러 차세대협력-2020	4박 5일	한국대학생40 러시아대학생40

* 출처 :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http://www.tcs-asia.org/>, 아시아교류협회 <http://www.asiaaea.or.kr/>, 한러대화사무국 <http://ekrd.or.kr/>
2015년 9월 7일 인출.

12)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http://www.tcs-asia.org/> 2015년 9월 7일 인출.

13) 한러대화사무국 <http://ekrd.or.kr/> 2015년 9월 7일 인출.

동북아 청년 비전포럼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 대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주요 일정으로는 각 국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동북아시아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공동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탐색하는 ‘동북아시아 비전 포럼’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한-중앙아시아 청년 모의정상회의의 경우, 몽골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사하자치공화국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이 방한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¹⁴⁾

표 II-12 외교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기타

부처 (주관기관)	사업명	목적	기간	인원(명)
아시아교류 협회	한중일 청년 해외봉사단 (2015)	○ 한·일·중 3국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시아 저개발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라오스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3국 청년들의 우호 및 화합을 증진	5박7일	한국6 중국6 일본6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2015)	○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의 문화·역사를 체험 함으로써 한민족 정체성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청소년들의 유대감 증진을 통한 글로벌 차세대리더 성장협력 유도	7박8일	중국150 러시아 및 CIS200

* 출처 : 아시아교류협회 <http://www.asiaea.or.kr/>, 재외동포재단 <http://www.korean.net/> 2015년 9월 7일 인출.

그 외에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한중일 3국 청년들이 공동으로 라오스 지역으로 파견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한중일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과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초청프로그램인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이 있다.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의 경우 동북아지역에 한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전체 참가자 중에 러시아와 중국 동포 참가자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동북아지역과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전통문화체험, 홈스테이, K-pop 등 문화체험, 한국어 캠프, 리더십 포럼,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

14) 아시아교류협회 <http://www.asiaea.or.kr/> 2015년 9월 7일 인출.

15) 재외동포재단 <http://www.korean.net/> 2015년 9월 7일 인출.

(3) 교육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교육부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여 교육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교류의 목적은 교육과 학술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상호이해 및 우호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김기현·황세영, 2015: 4). 일본과의 교육 교류사업은 1993년 처음 추진된 이래, 2007년부터는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방일 규모를 늘려 추진하고 있다(국립국제교육원, 2015b). 그 중 일본과의 교육 교류사업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일 중고생 교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프로그램과 한·일 상대국어 선택 고교생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¹⁶⁾

표 II-13 교육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기관	프로그램명	목적	기간	인원(명)
국립국제교육원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2015)	○ 한·일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양국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 ○ 양국 간의 교육 및 문화, 학술 교류 촉진	9박10일	초청40 파견80
	한일 중고생 교류(2015)	○ 한·일 교육문화 교류 증진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호협력 기반 구축 ○ 국가 인재들의 국제적 안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 함양 ○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보급 확산과 유학생 유치의 초석 활성화	6박7일	중학생 100 고등학생 100
	한일 상대국어 선택 고교생 교류(2015)	○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및 일본어 선택 분위기 확산 유도 ○ 한·일 교육 교류 증진 및 상호 이해를 통한 협력 기반 구축	4박5일	초청54 파견54
	한중 중학생 교류(2015)	○ 한·중 간 교육교류 증진 및 상호 협력 도모 ○ 양국 간의 상호교류 프로그램으로, 상대 학교 방문 및 문화 유적지 견학, 홈스테이 등 생활문화를 체험	2박3일	중학생85
	한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 연수(2015)	○ 「한·중 교육교류약정」에 근거하여, 우수한 인재의 상호 초청 및 어학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한·중 인문교류 활성화 및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박5일	대학생50

* 출처 :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2015년 9월 7일 인출, 국립국제교육원(2015b).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2015년도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사업. 내부자료, 국립국제교육원(2015c). 한중 중학생교류 방한연수. 내부자료

16)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2015년 9월 7일 인출.

이들 프로그램에는 학교 방문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고등학생들은 일본 학교 방문을 통하여 하루 동안 여러 교과 활동 등을 직접 체험하고, 별도로 마련된 교류 프로그램 일정을 통해 학교 측의 소개발표 및 공연 등에 참여하게 되며, 대학생들의 경우 강연 일정도 포함된다.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사업의 경우 2012년에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방문 일정이 포함되었으며, 2015년에는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생 참가자들의 사전 공모시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한 한일 양국의 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국립국제교육원, 2015b).

한중 중학생 교류사업의 경우 중국의 ‘성’과 우리나라의 ‘도’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2015년의 경우 제주도에서 일정이 진행되었다. 홈스테이는 한국과 중국 학생의 가정 간 1:1 매칭으로 이루어진다(국립국제교육원, 2015c). 양국 교육부 간에 체결한 「한·중 교육교류약정」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 정부의 우수 인재 상호초청 및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¹⁷⁾.

교육부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일·중 어린이동화교류사업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류이며, 대다수의 청소년 국제교류가 대학생 또는 중·고등학생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색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2002년 일본에서 시작되어 2011년까지는 일본 정부의 초청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다가, 2011년부터는 중국의 제안으로 중국, 한국, 일본의 순서로 개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3국의 어린이들은 그룹별로 동화책 만들기 및 발표회를 개최하면서 전래동화를 테마로 문화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3).

표 II-14 교육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기타

주관기관	프로그램명	목적	기간	인원(명)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2013)	○ 한국, 일본, 중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이 모여 동화책 만들기라는 공동과제 수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협력하는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6박7일	한·중·일 초등학생100

* 출처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교육원 <http://unescoapceiu.org/> 2015년 9월 7일 인출.

17)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2015년 9월 7일 인출.

대부분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프로그램의 일정이 1-2주 이내의 단기간으로 운영되는 반면, 교육부의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은 대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대학에 3개월간 이상 파견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등, 장기간의 체류를 통한 국제적 교육 경험을 강조하는 사업이다.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은 2010년 한중일 정상회의 신규협력 사업으로 2011-2015년 5년 계획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본격 사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교육부, 2015). 국내에서는 서울대, 부산대 등 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에 이루어진 3국의 교류 현황은 <표 II-15>와 같다.

표 II-15 교육부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부처 (주관기관)	구분	공동/복수학위 과정 학생	교환교류 1학기 이상 체류 학생	단기교류 1학기 미만 체류 학생	합계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파견	중국 : 8(4) 일본 : 18(13)	중국 : 41(17) 일본 : 22(1)	중국 : 55(39) 일본 : 88(31)	232(105)
	초청	중국 : 15(2) 일본 : 13(8)	중국 : 38(9) 일본 : 31(5)	중국 : 87(20) 일본 : 136(34)	320(78)

※ ()는 전체 인원 중, 한중일 3국 순회 참가인원

* 출처 : 교육부 (2015). 2014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사업결과 보고서. 내부자료.

(4) 기타 부처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이외에도 환경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도 다양하지는 않지만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청년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한국이 역내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제안해 창설된 동북아지역 환경 분야 최고위급 환경협력 논의의 장으로 세 나라가 번갈아가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기간 중에는 각국 청년대표가 참여하는 청년포럼이 함께 열리고 있다. 청년포럼의 경우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큰 주제로 하여 3개국 청년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¹⁸⁾

통일부의 사업은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활성화, 상호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호순 외, 2014). 2014년에는 북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이 참가한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18) 환경부 <http://www.me.go.kr/> 2015년 9월 8일 인출.

통해 남북 청소년 간 교류가 있었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통해 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외에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북아평화대학생포럼을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화를 소재로 한중 청소년 영화캠프를 운영한 바 있다.

표 II-16 통일부, 환경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부처 (주관기관)	프로그램명	목적	기간	인원(명)
통일부 (한반도통일 미래센터)	남북 청소년교류 (2014)	○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이해 및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및 의식 제고	2박3일	173 (4개국 6개팀)
통일부 (주최:한글 글로벌피스재단)	동북아평화 대학생포럼 (2015)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차세대 지도자들의 역할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함 ○ 2015년 주제 :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	2박3일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대학생 100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청년포럼 (2014)	○ 동북아 지역의 환경 문제(황사, 산성비, 대기오염 등)에 대한 공동대응 및 역내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강구 ○ 한·중·일 3국간의 환경공동체에 대한 의식 제고	1박2일	국가별 대학생 1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한중 청소년 영화 캠프 (2011)	○ 해외 진출 기업의 브랜드와 전문성을 살린 현지 사회공헌 ○ 한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국에서 한중청 소년 이 영화를 매개로 공감대를 쌓고 교류 한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문화 공헌	4박5일	영화에 관심 많은 북경의 한·중 청소년 50

* 출처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환경부 <http://www.me.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2015년 9월 8일 인출, 한글글로벌피스재단 <http://www.gpikorea.org/> 2015년 10월 14일 인출.

2) 지자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다음으로 지자체별로 설립된 국제교류재단 또는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자체 청소년 국제교류센터는 광주국제교류센터로 1999년에 설립되었다.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사업은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는 2000년에 설립되었고, 인천국제교류재단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005년에 설립되었다. 그밖에 수원과 평택의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내용을 포함하였다.

표 II-17 지자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문화일반

기관명	사업명	구분	방문국	대상	프로그램
인천 국제교류 재단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상호교류(2015)	초청/파견	중국 대만 일본	청소년	홈스테이 전통문화체험 현대문화체험 기관 견학 주요명소 견학 학교방문 문화공연 청소년 교류 등
	인천모범청소년 해외연수(2015)	파견	중국	청소년	
부산 국제교류 재단	충청청소년교류방문단	초청/파견	중국	고등학생	
	가오슝청소년교류	초청/파견	중국	중·고등학생	
	상하이국제청소년우정캠프	초청/파견	중국	고등학생	
	오사카청소년교류	초청/파견	일본	청소년	
	상하이국제청소년 우정캠프	파견	중국	고등학생	
	한일미래세미나2015	초청/파견	일본	한국대학생25 일본대학생25	
	글로벌연수	초청/파견	중국 일본	대학생	
	한국-러시아 친선의 밤	초청/파견	러시아	대학생	
수원시 국제교류 센터	일본 정부초청 JENESYS2.0 수원-시즈오카 대학생 교류	초청/파견	일본	대학생	
	2015년도 일본어권 언어문화연수	파견	일본	한국청소년10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중국 제남시 청소년 수원 초청 (홈스테이)	초청	한국	중국청소년10 홈스테이가족	
	일본 후쿠이시 주니어대사 수원 초청 (홈스테이)	초청	한국	일본중학생10, 홈스테이가족	
	수원청소년 일본 아사히카와시 방문	파견	일본	고등학생10	
	수원시 주니어대사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시 방문	파견	러시아	중학생10	
	한-중 대학생 문화교류 (수원-베이징)	초청/파견	중국	대학생20	
	2015중국문화학교 (중국어연수 및 문화탐방)	파견	중국	중고등학생28	
	일본어 연수 및 문화탐방	파견	일본	중고등학생36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초청/파견	중국 일본	(중국초청)고등학생12 (중국파견)중학생12 (일본초청)고등학생12 (일본파견)중학생12	
서울특별 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	한중일청소년문화교류 (한-일교류/한-중교류)	파견	일본 중국	(일본)중학교15 (중국)고등학교15	

* 출처 : 인천국제교류재단(2015b), 자매우호 도시 간 청소년 상호교류 실적, 내부자료, 인천국제교류재단(2015a), 2015년도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예산), 부산국제교류재단(2014), 부산국제교류재단 활동성과, 부산국제교류센터(2015), 2015년도 청소년·대학생국제교류사업 일정표, 내부자료, 부산국제교류재단 <http://www.bfia.or.kr/>, 수원시국제교류센터 <http://www.swaic.or.kr/>, 수원청소년문화센터 <http://www.sycc.or.kr/>,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http://www.ptycc.or.kr/>, 서울특별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http://www.mizy.net/> 2015년 9월 8일 인출.

우선 많은 경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특색 있는 교류 테마보다는 홈스테이, 전통문화체험, 기관견학, 청소년 교류 등의 문화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일반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의 현황은 <표 II-17>과 같다. 인천과 수원국제교류재단은 중국 및 일본 자매우호도시와의 초청 및 파견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산은 러시아와의 교류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의 경우 한중일 3국 청소년이 한 자리에 모이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18 지자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테마형

기관명	사업명	구분	방문국	대상	프로그램
인천국제 교류재단	한중일 청소년 음악교류(2015)	초청/파견	중국 일본	청소년	음악축제참관, 공연관람, 야외합동캠프
	국제행사(2012)	초청/파견	중국	청소년	국제캠프참가, 여자축구 친선대회, 지역축제 참가
부산국제 교류재단	베이징 청소년교류단	초청/파견	중국	청소년	핸드볼친선경기, 전통문화체험, 학생교류, 캠퍼스투어
	한중일 아동우호그림전	초청/파견	러시아	중·고등학생	홈스테이, 문화탐방, 학생교류
	일본대학생 인턴십	초청/파견	일본	대학생	인턴십 체험, 비즈니스 매너 교육, 문화탐방
	차세대 리더캠프	초청	한국	대학생	부산문화 탐방, 학생 교류, 대학체험, 인터넷서널테이블
	부산-상해 어린이 바둑교류	초청/파견	중국	어린이	어린이 바둑교류, 홈스테이, 상해 시찰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한-중청소년 성곽문화재 연구교류: 중국진중시청소년 수원초청(홈스테이)	초청	한국	중국청소년10 홈스테이가족	홈스테이, 문화유적탐방, 학생교류

* 출처 : 인천국제교류재단 (2015c), 한중일 음악교류 개최 실적, 내부자료, 인천국제교류재단(2015a), 자매우호도시 국제행사 참가등 기타 청소년 교류 사업 내역, 내부자료, 부산국제교류재단(2014), 부산국제교류재단 활동성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http://www.sycc.or.kr/> 2015년 9월 8일 인출

한편 <표 II-18>과 같이 문화 일반을 넘어서 특정 테마와 방식에 초점을 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도 눈에 띈다. 인천국제교류재단은 음악을 주제로,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스포츠와 그림, 그리고 바둑을 주제로, 수원청소년문화센터는 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체험 중심의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해외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는 수원시의 캠프사업, 서울특별시 미지센터의 몽골파견사업 등이 있다.

표 II-19 지자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해외봉사

기관명	사업명	구분	방문국	대상	프로그램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수원시 청소년 해외봉사캠프 (2015)	파견	몽골	한국54 몽골27 캄보디아27	봉사활동(마을학교 방문, 교육봉사, 노력봉사, 미니체육대회) 체험활동(주민교류활동, 현지 문화탐방)
서울특별시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2015 미지몽골희망 원정단	파견	몽골	19세~24세 청소년15	문화탐방, 교육봉사활동, 토론, 대학생교류

* 출처 : 서울특별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http://www.mizy.net>,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http://swvc.suwon.ne.kr/>
2015년 9월 8일 인출.

3) 민간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민간단체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특징은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평화라는 테마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평화연대의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재외동포들과 교류를 통해 여러 민족 간의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곳으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교육 및 러시아 고려인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¹⁹⁾ 동북아평화연대의 동북아평화청년 캠프 ‘잇다’ 사업의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조선족 등 동북아시아 청년들과 우리나라 청년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다. 2014년 사업의 경우 제주 4·3 평화기념관, 강정마을 등 제주 지역의 역사 탐방을 주요 테마로 하여 제주지역과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동북아평화연대, 2014). Peace Asia 사업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고려인 및 러시아 청년, 그리고 재일동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이 있다. 그리고 부천시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부천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계에서 꿈을 찾다’ 사업의 경우, 중국 요녕성 및 백두산 지역을 탐방하고 현지 조선족 학생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동북아평화연대에서는 국가 간의 교류를 넘어서 동북아지역의 우리 민족과의 교류와 한국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경우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시민단체들 간 협력을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2002년 한일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가 시작된 이래 매년 한중일 역사 캠프를 개최해왔다. 2015년에는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로 이름을 바꾸어 상하이에서 개최되었으며, 중일전쟁 박물관, 윤봉길 의사 기념비, 루쉰기념관 등 역사유적지를

19) 동북아평화연대 <http://www.peaceasia.or.kr> 2015년 10월 22일 인출.

탐방하면서 위안부문제, 일제강점기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²⁰⁾

표 II-20 **민간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역사**

기관명	사업명	목적	기간	인원(명)
동북아 평화연대	동북아평화 청년캠프 '있다' (2014)	○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며 동북아 청년들의 경계 없는 소통과 평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3박4일	중국11 새터민3 한국17
	Peace Asia 청소년 교류활동 (2013)	○ 고려인을 포함한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사회 및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5박6일	러시아청소년21
	Peace Asia 共Zone여행 탐방단(2013)	○ 평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아닌 우리 동포들의 삶을 보기위해, 우리 동포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단을 느끼기 위해 재일동포들의 사연을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 기획됨. ○ 2013년 주제 :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	3박4일	한국청소년20
	햇살나눔 다문화 국제교류 " 경계 에서 꿈을 찾다 (2014) "	○ 동북아의 다양한 민족의 역사를 공유 하고 지역을 탐방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	5박6일	부천지역 햇살나눔, 다문화가정 중학생 25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동아시아청소년 역사체험캠프 (2015)	○ 한중일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전후 세대들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좁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구축	6박7일	전국15세~19세 청소년40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한일청소년 평화교류 (2015)	○ 한일 청소년 양국 상호 방문 평화 교류 활동	(나고야)3박4일 (도야마)3박4일 (한국)3박4일	일본고등학생8 한국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24
한일100년 평화시민 네트워크	한일청소년 평화캠프 (2012)	○ 한일 청소년들이 함께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배우고 인식하며, 역사현장 탐방을 통해 역사화해의 실현, 한국 사회 문화 및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	4박5일	한국청소년30 일본청소년10

* 출처 : 동북아평화연대(2014). 동북아평화청년캠프 '있다' 자료집, 동북아평화연대 <http://www.peaceasia.or.kr/> 2015년 10월 14일 인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http://www.ilovehistory.or.kr/>,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 한일100년평화시민네트워크 <http://cafe.daum.net/youthpeacecamp> 2015년 9월 10일 인출.

20)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http://www.ilovehistory.or.kr> 2015년 9월 10일 인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는 6 년째 한일청소년 평화교류단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2010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 동원 피해자를 위한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현지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와의 협력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나고야와 광주 지역의 청소년들 간에 매년 교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행사의 경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강제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터를 답사하고, 한일 관계를 위한 평화 토론회를 갖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²¹⁾

한일100년평화시민네트워크는 2008년 경기시민사회포럼과 교토자유대학 간 교류회를 중심으로 창립되어 강제징용문제 대응, 시민평화기행 등을 통해 한일 간의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한일청소년 평화캠프는 2009-2012년 사이에 운영되었으며, 수원, 후쿠오카, 교토, 오사카 등의 지역 탐방을 통해 한일청소년들이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교류회를 가졌다. 2012년 캠프에서는 일본의 이슬람다문화 아동들이 참여하여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일본사회와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²²⁾

표 II-21 민간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남북 평화

기관명	사업명	목적	기간	인원(명)
어린이 어깨동무	남북어린이만남 (2008)	○ 어린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만남을 가지기 위함	3박4일	어깨동무 어린이회원5
	글로벌 DMZ 통일캠프(2014)	○ 과거 전쟁의 역사 및 DMZ의 보존된 자연을 체험하고 미래를 생각해 봄.	2박3일	동아시아 어린이50

* 출처 : 어린이어깨동무 <http://www.okfriend.org/> 2015년 9월 10일 인출.

다음으로 <표 II-21>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간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도 추진된 바 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남북 어린이들이 문화적, 정서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²³⁾ 한중어린이평화캠프, 어린이평화한마당 등의 사업 등을 운영하였고, 2008년까지는 남북어린이만남 사업을 통한 어린이대표단의 방북 활동도 이루어졌다. 이후 활동은 국내에서의 평화교육 및 동북아시아 지역 간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DMZ통일캠프는 우리나라,

21) 동아일보(2015. 8. 4). 한일 청소년 6년째 '일제 강제노역 역사' 체험.

<http://news.donga.com/3/all/20150804/72854761/1> 2015년 9월 10일 인출.

22) 한일 100년 평화시민네트워크 <http://cafe.daum.net/youthpeacecamp> 2015년 9월 10일 인출.

23) 어린이어깨동무 <http://www.okfriend.org> 2015년 9월 10일 인출.

중국, 일본, 몽골 등 어린이들이 DMZ 지역을 탐사하고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동북아지역의 역사와 평화라는 주제 외에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표 II-22). 국제학생교류기구는 유엔 자문지위 기구인 EIL 국제연맹의 한국본부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 중 동북아지역에 한정된 사업으로는 한일청소년 국제아카데미가 있으며, 참가자들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지역문화탐방, 고등학교 방문, 홈스테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²⁴⁾

아시아희망캠프기구(ACOPIA)는 국제교류 봉사활동 민간단체로,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여 세계 청소년들이 환경, 개발, 평화, 복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한일 중고생포럼은 지구환경, 자원봉사, 국제교류 등을 주제로 그룹별 워크숍으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들은 한일미래포럼 기간 중에 자원봉사 서포터로 활동하면서 그룹별 발표의 기회도 갖게 된다. 아시아희망캠프 in Japan 사업은 일본 교토, 미야자키, 아키타 등의 지역 축제 기간 동안 우리나라 및 아시아 청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홈스테이 등 문화교류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⁵⁾ 한중일 대학생 국제워크캠프 in china(2015)는 3국 대학생들이 중국 장가계, 성도, 항주, 남경, 서안 등지를 여행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3국 간의 화해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한일경제협회는 양국 간 민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한일고교생교류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팀별로 양국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적 특징을 결합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실물경제체험, 사업전략수립, 사업부스 준비까지 사업 기획의 전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²⁶⁾

사단법인 한일협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간 교류활동을 지원하며, 특히 故이수현 씨 기념사업을 통해서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은 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동북아지역 교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는 한·중청소년그림교류전이 있다.

24) 국제학생교류기구, 일본 JEARN <http://www.eil.or.kr/> 2015년 9월 10일 인출.

25) 아시아희망캠프기구 <http://www.kjforum.org/>, 아시아희망캠프기구 <http://www.workcamp.asia/> 2015년 9월 10일 인출.

26) 한일경제협회 <https://www.jkcamp.org/> 2015년 9월 10일 인출.

표 II-22 민간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기타

기관명	사업명	목적	기간	인원(명)
국제학생 교류기구	한일 청소년 국제아카데미 (2014)	○ 청소년의 시선으로 서로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양국 친목과 상호이해를 도모	5박6일	한국참가자10 일본참가자10
한일사회 문화포럼	한일미래포럼 (2015)	○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한일의 젊은 세대들의 상호이해 촉진 및 신뢰구축 ○ 2015년 주제: 국교정상화 50년 앞으로의 한일청년의 역할	1박2일	한국20 일본20
아시아 희망캠프 기구 (ACOPIA)	한일중고생 포럼 (2015)	○ 한일미래포럼의 자원봉사 서포터로 활동 ○ 지구환경, 자원봉사, 국제교류를 주제로 그룹별 워크숍 실시	4박5일	한국중고생20 일본인중고생150
	아시아 희망캠프 in JAPAN(2015)	○ 일본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에 자원봉사 자로 참가하여, 현지의 일본인들과 함께 전통축제를 기획 및 참가하며 관광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체험 할 수 있는 국제캠프	5박6일 (3회) 4박5일 (3회)	한국57 일본820 아시아260
	한중일 대학생 국제워크캠프 in china (2015)	○ 한중일 대학생들의 문화탐방 및 문화교류를 통한 역사 화해의 실현 ○ 한중일 대학생 공동 자원봉사, 삼국 청년 문화교류, 중국 현지 문화 체험	4박5일	한국대학생5 중국대학생5
(사)한일경 제협회	한일고교생 교류캠프 (2015)	○ 글로벌 리더 양성 및 미래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4박5일	한국고교생40 일본고교생40
NPO법인 후쿠칸 네트	한일청소년문화 교류단 (2015)	○ 한국의 언어, 문화, 경제, 역사 등에 대한 이해를 넓 히고, 한국시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통하여 일한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도모하고자 함	8박9일	한국청소년150
사단법인 한일협회	한일 청소년교류 (2015)	○ 한국과 일본은 이웃 나라로서 상호이해와 협력에 의해 상호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을 희망하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교류사업을 실시 ○ 2015년 주제 : 한 마음 한 목소리	1일간	일본청소년10 한국청소년20
	이수현기념사업 (2015)	○ 인명구조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를 발휘한 이수현씨를 기리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일본에 관심이 있는 한국 청소년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일본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제공	10박 11일	한국 고등학생 20
국제교류 문화 진흥원	문화유산 그림대회, 한·중청소년 그림교류전 (2015)	○ 한국의 문화유산을 국제무대에 소개함으로써 민간 외교관으로서 애국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 발현	1일간	초등학생 및 중학생

* 출처 : 국제학생교류기구, 일본JEARN <http://www.eil.or.kr/>, 한일사회문화포럼 <http://www.kjforum.org/>, 아시아희망캠프
기구<http://www.kjforum.org/>, 아시아희망캠프기구 <http://www.workcamp.asia/>, 한일경제협회 <https://www.jkcamp.org/>
2015년 9월 10일 인출, 후쿠칸네트<http://fukukan-nets.sakura.ne.jp/>, 사단법인한일협회 <http://www.koja.or.kr/>, 국제교류
문화진흥원 <http://www.icworld.or.kr/>, 2015년 9월 23일 인출.

4) 국제기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서는 국제협력을 주제로 다양한 청소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 위원회의 경우 오랫동안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해 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제워크캠프가 있으며, 국내 청년들을 유럽 및 아시아에 파견하는 해외워크캠프와 국내 청년과 외국 참가자들이 상호교류하는 국내워크캠프로 이루어져 있다.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동아시아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이 있다. 이 포럼은 2012년 동아시아 지역의 인접 국가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고 미래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추진되었으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청년의 역할과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²⁷⁾ 포럼 참가자들은 사전에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도모하고, 본 포럼에서는 전문가 강의 외에 청년들의 조별 발표 세션을 통해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및 청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것 외에도 전국적으로 408개의 유네스코학교에서도 외국 학교와의 교류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⁸⁾

유엔환경계획(UNEP)의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에 해당하는 활동으로는 2005~2013년에 운영된 툐자동북아청소년환경네트워크가 있다. 툐자는 스와힐리어로 ‘배려와 애정으로 대하기’라는 뜻으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청소년 단체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환경 정책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코디네이터 단체인 UNEP 한국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모임이나 단체를 발굴하고 이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강연회 또는 리더십 프로그램 시리즈를 통해 국제환경이슈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²⁹⁾ 각 국가별로 이러한 사전활동을 진행한 결과는 툐자청소년환경네트워크회의를 통해 공유된다. 2006년 제1회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시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청소년의 새천년 개발목표와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성명서인 ‘서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³⁰⁾ 2013년 제7회 회의는 몽골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리우+20 유엔 정상회의와 2015년 이후 개발의제 등 유엔의 개발 의제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³¹⁾

27)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http://www.unep.or.kr/> 2015년 9월 10일 인출.

28)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http://cafe.naver.com/> 2015년 9월 10일 인출.

29) 툐자동북아청소년환경네트워크 <http://www.unep.or.kr/> 2015년 9월 24일 인출.

30) 경향신문 (2005. 8. 12) 동북아 청소년환경회의의 대표자 선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8121806191&code=1001000에서 2015년 2월 27일 인출.

31) 툐자동북아청소년환경네트워크 <http://www.tunzaneayen.org/> 2015년 9월 24일 인출.

또한 동북아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 10~14세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톤자세계어린이환경 회의가 199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³²⁾

표 II-23 국제기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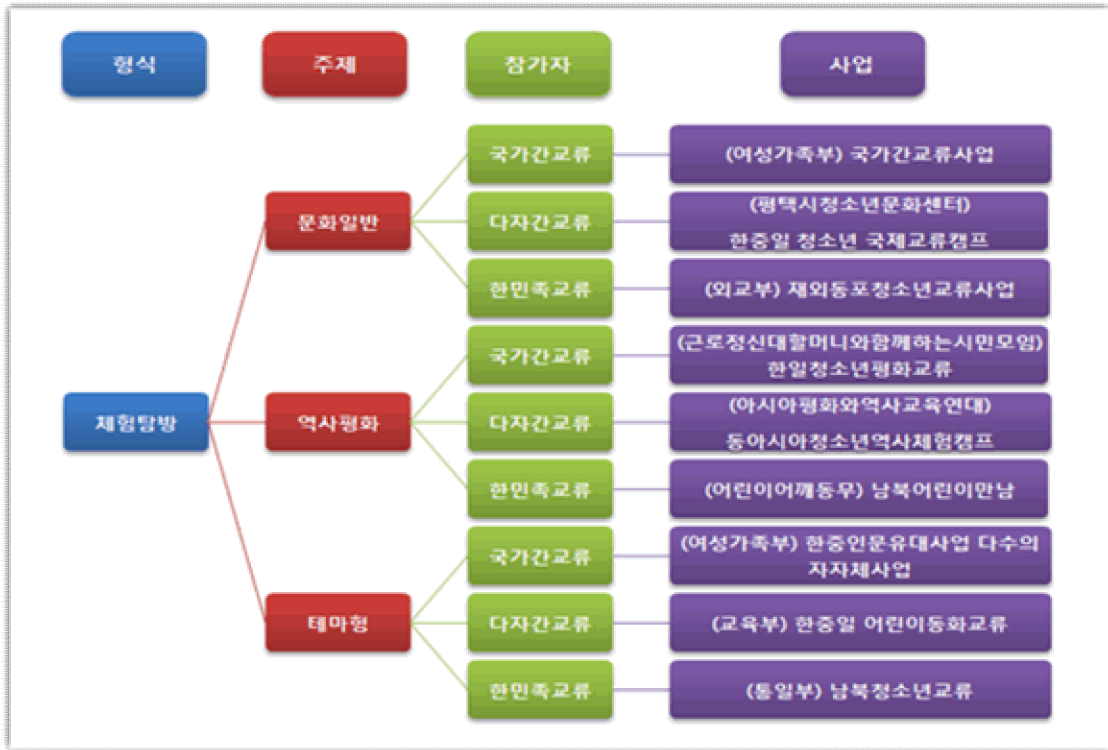
기관명	사업명	목적	기간	인원(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동아시아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2015)	○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교류 및 역사인식 극복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논의 ○ 2015년 주제: 역사교과서와 기억의 공유: 제2차 세계대전과 종전 70년	4박 5일	국내청년, 대학생 활동가20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톤자동북아 청소년환경 네트워크(2013)	○ 중국, 일본, 한국, 몽골의 청소년 단체들을 소지역 차원에서 활성화하여 국제사회의 환경 정책과 환경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태지역 내 타 소지 역의 다른 청소년들과의 협력을 도모 ○ 2013년 주제: 리우+20과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에서 청소년의 참여	1달간	만15세~24세 청소년30

*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 유엔환경계획한국위원회 <http://www.unep.or.kr/> 2015년 9월 24일 인출.

5)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별 특징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주제와 형식 그리고 참여 주체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그 특징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교류 참가자가 경험하게 되는 활동의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체험탐방, 토론, 자원봉사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다른 분류의 방식으로는 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제, 즉 국제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참가자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2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가 간 교류와 3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는 다자간 교류, 그리고 국내 청소년과 재외동포 또는 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인 한민족교류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분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을 (1) 체험탐방형, (2) 토론형, (3) 자원봉사형으로 분류하였다.

32) 톤자동북아청소년환경네트워크 <http://www.unep.or.kr/> 2015년 9월 24일 인출.



【그림 II-7】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 - 체험탐방형

우선 체험탐방형에 속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종류는 [그림 II-7]과 같다. 체험탐방 유형의 국제교류 사업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사업 다수가 문화일반에 속하며, 일부는 테마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역사평화 주제는 주로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가자 특성을 보면 국가 간 교류 및 다자간 교류에 비하여 한민족 교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표 II-24>는 문화일반에 속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국립국제교육원의 중고생 교류사업 사례에서는 학교수업 참관 등을 통한 교육교류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한중 특별교류 사례에서는 자연체험이 좀 더 두드러지는 가운데, 한국의 고유문화 탐방, 언어체험, 가정방문, 산업체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여러 장소를 일정에 따라 방문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므로써 수동적인 ‘관람’에 그칠 우려가 있다. 반면 홈스테이(가정방문), 학교 방문과 같은 청소년 직접 교류는 현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교류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II-24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 문화일반

◎역사 · 문화탐방 ♣자연 · 교육체험 ❖상호교류

일정	한일교육교류(국립국제교육원)	한중특별교류(한국스카우트연맹)
1일차	인천공항 도착 ◎ 서울타워 방문	김포공항 도착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2일차	◎ 환영식, 오리엔테이션 ◎ 생활용어 연수 ◎ 동원FB진천공장 방문 ♣ 고양중학교 방문	◎ 한국어학당 ◎ 중국대사관 방문 ◎ 서울역사문화 탐방 환영 만찬회
3일차	♣ 고양중학교 방문 및 교류 ◎ 서울역 롯데마트 견학	◎ 동아제약연구소 방문 ◎ 서울문화 오리엔티어링
4일차	◎ 한국민속촌 방문 ◎ 서울특별시청, 주한일본대사관, 인사동 및 명동거리 체험	♣ 경북대학교(민간외교포럼) ◎ 광복 70주년 대구 위안부센터 방문 대구시장 초청 만찬(엑스코 연회장)
5일차	◎ 경북공관람 ◎ 삼성 이노베이션뮤지엄 방문	◎ 신라문화권(불국사, 석굴암) 체험 ❖ 대구시민들과의 만남의 시간
6일차	◎ 여의도 KBS 견학 탐승수속 및 인천공항 출발	제주도 도착 ♣ 세계생태체험 올레길 체험
7일차		♣ 제주 세계자연유산 ♣ 세계7대 자연경관 제주문화 체험 환송 만찬
8일차		활동 평가 ◎ 바오젠 거리 자유체험

* 출처: 국립국제교육원(2015a). 한·일 중고생교류 초청 시행계획. 내부자료, 한국스카우트연맹(2015). 한·중 특별교류 전체일정표. 내부자료.

이와 달리 체험탐방형 사업에 속하면서도 청소년들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여 교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사례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가 간 교류사업 중 일본 방문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표 II-25>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체험, 교육체험, 산업체 방문, 역사 탐방 등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일 청소년 교류회,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보다 밀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한일 청소년 교류회의 경우 본 사업의 한국인 기참가자들이 2박 3일간의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하고 일정 내내 참여함으로써 몸과 마음으로 양국 청소년들이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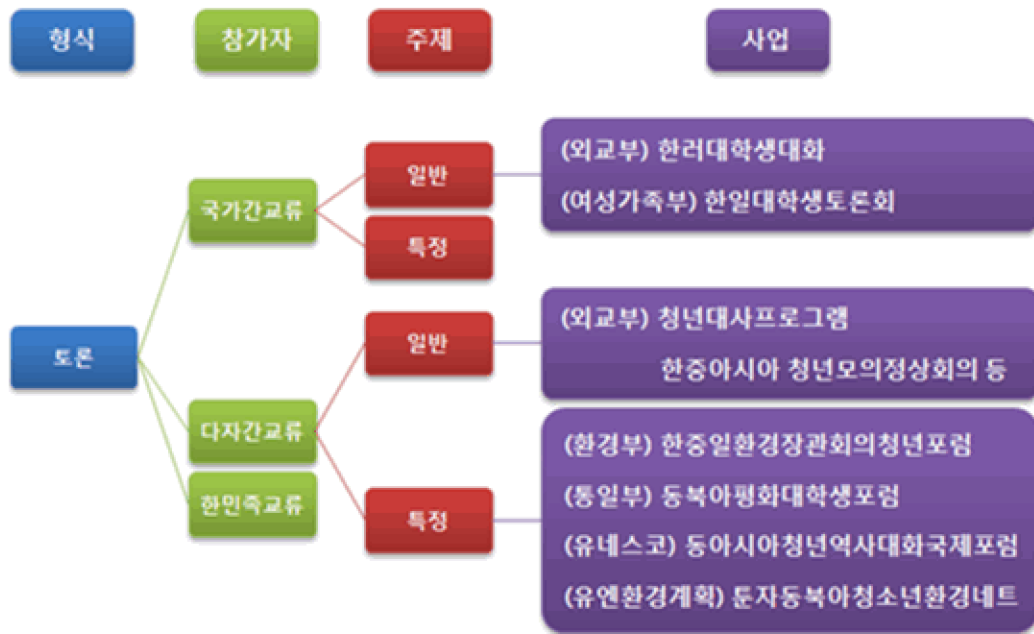
표 II-25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 문화일반 주제의 확장형

◎역사 · 문화탐방 ♣자연 · 교육체험 ❖상호교류 ◆홈스테이

일정	국가 간 교류 일본 초청단 프로그램(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일차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2일차	❖	한일 청소년 교류회(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 레크리에이션)
3일차	❖	한일 청소년 교류회(한일 청소년 토론회, 문화교류의 밤)
4일차	❖	한일 청소년 교류회(공동체 활동, 폐회식 및 선물교환)
5일차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체험활동
6일차	♣	강일여자고등학교 방문(교류회, 일본어 수업 참관, 일본문화교실)
	◎	강릉청소년수련관 방문(교류회 강릉지역 소개 및 탐방)
7일차	❖	경동대학교 방문교류회
	♣	경동대학교 국제교류처 방문, 공연교류회, 캠퍼스투어, 한일 청소년 간담회
8일차	◎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	서대문형무소 방문
9일차	◆	시흥시 홈스테이
10일차	◆	시흥시 홈스테이
11일차	◆	시흥시 홈스테이
	◎	남산골한옥마을 문화체험
12일차	◎	청소년교류활동(그룹별 서울 탐방)
	◎	환경프로그램, 디지털파빌리온, KBS 견학, 명동 탐방
13일차	◎	그룹별 서울투어 프로그램
	◎	조별 석식교류회
14일차		평가회, 환송만찬
15일차		출국 수속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5). 2015 한·일 국가 간 청소년교류 일정. 내부자료.

다음으로 국제교류활동의 주된 형식이 토론인 경우, 대부분은 포럼이나 국제회의 등의 행사 형식을 띠게 되며, 참가자에 따라 국가 간 교류와 다자간 교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제는 여러 주제에 대하여 해마다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와 특정 주제만을 다루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에 따라 본 장에서 언급한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유형화하면 [그림 II-8]과 같다.



【그림 II-8】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 - 토론형

토론형 국제교류 사업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다자간교류의 일반과 특정 주제로 볼 수 있다. 다자간 교류 중 일반주제를 다루는 사업은 대부분이 외교부 사업에 포함되며, 특정주제를 다루는 사업으로는 환경부와 통일부 그리고 국제기구의 사업들이 있다. 국가 간 교류 사업에는 러시아와 일본과의 교류 사업이 있다. 한민족교류 사업에는 토론형은 없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탐방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토론형 국제교류 사업은 대부분 단기간에 걸쳐 소규모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체험탐방형 사업에 비하여 청소년들 간 직접적인 상호교류의 기회가 많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국가 간 혹은 동북아시아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미래의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는데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포럼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 준비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참가자들의 낮은 이해도와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단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기간의 확보, 전문가 집단의 멘토링, 사후 지속적인 활동 참여 기회보장 등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포럼이 3-5일 이내의 행사성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비하여 외교부의 청년포럼은 12일간 3개국 대학생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사회문화,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 및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 일정 전반에 걸쳐 조별 토론 및 발표의 비중을 높여 직접적인 교류의 질을 높이고 있다(표 II-26참고).

표 II-26 토론형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방문◎	강의🖋	조별준비♻	발표★
일정	2015 청년대사 프로그램(한·중·일협력사무국)				
1일차		청년대사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DSCA 브리핑			
2일차	◎	일본대사관, 문화센터 방문			
	🖋	3국협력에 대한 강의			
		청년대사의 열린 대화			
		YAP 동문 세션			
	♻	3국협력 자유회담 준비			
3일차	🖋	경제, 정치에 대한 강의			
	◎	ASAN기구, 중국대사관 및 문화센터 방문			
		DEA 브리핑			
4일차	🖋	사회문화에 대한 강의			
		DPA 브리핑			
	♻	3국협력 자유회담 준비			
5일차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한옥마을 방문			
	♻	3국협력 자유회담 준비			
6일차	◎	한국민속촌 방문			
7일차	◎	Korea-ASEAN 센터 방문			
		EU 한국대표 방문			
	★	3국협력자유회담			
8일차	◎	JTBC, 서울특별시청,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방문			
9일차		3국관계에 대한 인터뷰			
	♻	프레젠테이션 준비			
10일차		프로그램 평가와 Wrap-up세션			
		청년대사 프로그램 폐회식			
11일차	★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행사			

* 출처: TCS(2015), Young Ambassador Program, 내부자료.

청소년들은 활발한 토론의 경험을 통해 다른 국가와 문화에 대해 포용하려는 태도와 자신이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태도를 배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이러한 포럼 형식의 프로그램은 외교부 등 중앙행정 기관에서는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몇몇 지자체 또는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지자체의 경우 주로 자매 도시나 우호 도시 등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 도시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나가게 되므로, 두 지역 간의 교류 의제 또는 지자체의 지역 현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형식이 자원봉사인 사업 유형은 [그림 II-9]와 같이 국가 간 교류와 다자 간 교류가 있었다. 봉사활동 지역은 동북아지역 내에서는 몽골과 중국이 있고, 한·중·일 봉사단을 라오스로 파견하는 방식도 있다. 최근 국가적으로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협력개발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직접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과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민족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 등지의 재외동포를 위한 개발사업도 고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교류하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9】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 - 자원봉사형

지금까지 체험탐방, 토론, 봉사활동이라는 국제교류 활동의 형식에 따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서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서 강조되는 활동의 내용과 방식을 분석해 보고, 사업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강조가 덜 되고 있는 활동 내용 및 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유형만으로는 앞선 절에서 소개했던 모든 국제교류 사업들을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업들이 하나의 형식과 주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 교류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시아희망캠프기구(ACOPIA)의 한일중고생 포럼의 경우 포럼이지만 자원봉사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토론과 자원봉사 유형의 특징이 섞여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단체의 아시아희망캠프 in Japan의 경우 참가자들이 일본 현지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행사의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체험탐방과 자원봉사 유형의 특징이 모두 담겨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유형의 특징이 적절히 혼재됨으로써 그 사업만의 고유한 특색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6)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특징 및 문제점

첫째, 동북아지역의 범위 차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지역적으로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및 중국과는 개별 국가 간 교류 또는 한·중·일 다자간 교류의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과는 문화 및 교육 교류뿐만 아니라, 축제 참가, 역사 문제 등 다양성 측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주제로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과의 교류는 다른 동북아지역 국가들에 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특정 주제 또는 목표에 부합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시도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중국과의 교류 사업도 최근 들어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나,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나 현지에서의 청소년 간 직접적인 교류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몽골 및 러시아와의 교류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교류의 주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러시아의 경우 외교부 산하 한러대화 사무국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가 추진됨으로써 청소년 교류 사업의 역량이 축적되고 있지만, 반면 몽골의 경우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고유한 사업의 특색을 가꾸어 갈 만한 추진 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도 러시아와의 교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몽골과의 교류는 해외봉사활동 또는 중앙아시아 관련 행사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청소년 간 교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및 국제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민간단체에서 교류사업을 주도해 왔지만, 최근에는 중단된 상태이다.

둘째,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업들이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주제도 문화, 역사, 평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자간 교류사업의 경우 대부분 한·중·일 3국간의 교류에 머무르고 있어서 지역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교류사업의 주제와 형식을 고려해야 하며, 북한 및 재외동포 등 한민족 교류사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 주체가 추구하는 방향 및 축적된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과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가장 많은 국가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의 경우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장기간 교육의 목적을 지닌 사업에 비해 청소년 교류 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 방문, 수업 체험 등 ‘교육교류’라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의 독자성을 추구하고 있다. 외교부의 경우 많은 사업들이 토론회 및 포럼의 형태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자국을 대표하는 민간외교사절로서 동북아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환경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등 기타 부처의 경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환경, 문화, 남북평화 등 기존과 차별화된 국제교류의 주제와 목표를 추구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글로벌화와 국제협력이 강조되면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교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천의 음악교류, 수원시의 성곽문화재연구교류, 부산의 한국-러시아 친선의 밤 등 특색사업도 점차적으로 나타나 앞으로 더욱 다양한 테마로 국제교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경우 시민단체 간 교류, 역사 및 평화 이슈 등 정부주도의 사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와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의제 설정 및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경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예산 및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국제기구의

경우 유네스코의 동아시아청년대화포럼을 제외하고는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지역 청소년 교류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민간 영역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참가 주체인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탈북 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배려하고 있으며, 이것 외에는 대부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부 민간단체 사업의 경우 재외동포, 새터민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관점이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에 제한되지 않고 국가 안에서 여러 다른 문화와 민족 간의 공존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소외계층, 재외동포 등에 대한 참가 지원 및 이들을 위한 사업 구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III 장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 조사 결과 및 효과

1.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 조사
및 효과 분석
2. 중국 및 일본 국제교류 참여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제 III 장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 조사 결과 및 효과

1.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 조사 및 효과 분석*

1)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제교류 활동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활동 경험,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의식, 다문화수용성, 동북아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자기기입식의 조사형태로 이루어지며, 2015년 5~8월 중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9,516명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 조사는 이보다 990명이 많은 10,5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표본설계**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실태조사는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통합조사는 개별 과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과제의 조사를 통합해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 절감과 더불어 대표성을 갖는 학교 대상의 대규모 표본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조사 부분)과 황세영 부연구위원(설문지 부분)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 여기에서 표본설계부분은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실태조사는 독립된 설문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청소년활동실태조사 설문 내용에 부가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9,000명 이상의 표본수를 확보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성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실태조사의 모집단은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조사 표집틀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구축한 교육통계DB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에 자료 제공 협조요청 공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역량연구실378)을 통해 표집 틀을 확보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교육통계DB를 통해 모집단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4백만여 명이며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28.1%, 중학생이 34.7%, 고등학생이 37.2%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유형별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26.4%, 자율고 학생이 2.9%, 특성화고 학생이 6.8%, 특수목적고 학생이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학교 급, 그리고 학년별로 학교 수와 학생 수의 분포는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역의 모집단 규모가 크지 않고 고교 유형별로 자율고나 특수목적고 학생 수의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순비례방식 대신 변형비례방식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조사비용과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9,500명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로 가정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1.0\%$ 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을 사용하였으며 층화 변수는 지역(세종시는 표본규모를 고려해 충청남도에도 포함),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그리고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등이다. 이 때 학교 중 고등학생 유형변수는 광역시도별로 층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고와 특성화하는 16개 시도를 5개 권역으로 묶어서, 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표 III-1>은 학교급 및 학년별로 모집단의 크기와 목표 표본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설문조사에 적용한 비례배분 방식은 변형비례배분 방식이었다.

변형비례배분을 통한 학교 수 및 표본 크기의 결정은 두 가지 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각 학년별로 지역과 학교 급이 총 43개의 층을 갖게 되는데 43개 층에 최소 한 곳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원칙은 층별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해 학교 수를 할당하더라도 전체 학교 수가 360개 정도는 되어야 하며 조사 목표 학생 수는 최소 9,5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성별 비율은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표 III-1 학교 급 및 학년별 모집단 크기와 목표표본 크기

학교급		학 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50,532	1,378,934 (28.1%)		2,667 (28.1%)		2,700 (28.4%)	
		5	468,240						
		6	460,162						
중학교	중학교	1	525,006	1,705,146 (34.7%)		3,298 (34.7%)		3,132 (32.9%)	
		2	593,902						
		3	586,238						
고등학교	일반고	1	423,344	1,295,108 (26.4%)	1,881,437 (37.2%)	2,505 (26.4%)	3,486 (37.2%)	2,400 (25.2%)	3,684 (38.7%)
		2	435,027						
		3	436,737						
	자율고	1	48,078	143,783 (2.9%)		278 (2.9%)		480 (5.0%)	
		2	48,049						
		3	47,656						
	특성화고	1	112,504	336,239 (6.8%)		650 (6.8%)		648 (6.8%)	
		2	112,854						
		3	110,881						
	특수 목적고	1	17,535	51,794 (1.1%)		100 (1.1%)		156 (1.6%)	
		2	17,752						
		3	16,507						
합계				4,911,004 (100.0%)		9,500 (100.0%)		9,516 (100.0%)	

* 출처 :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 강현철(2015), p. 7.

표 III-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1(7)	18(6)	12(4)	3(1)	6(2)	6(2)
경기	33(11)	27(9)	18(6)	3(1)	3(1)	
인천	9(3)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6(2)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9(3)	9(3)	6(2)			
부산	9(3)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3(1)	3(1)	
전북	6(2)	3(1)	3(1)			
전남	6(2)	3(1)	3(1)			
광주	6(2)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35(45)	108(36)	75(25)	15(5)	24(8)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총계: 363(121)개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 강현철(2015), p. 9.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전체 모집단 규모에 변형으로 비례해 2,700명이 목표 표본이며, 중학교는 3,132명이 목표 표본이 된다.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는 2,400명, 자율고는 480명, 특성화는 648명, 마지막으로 특수목적고는 156명이 된다. <표 III-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변형비례 배분에 따라서 자율고는 단순비례 배분보다 2.1%p에 해당하는 202명을 더 추출하고 특수목적고는 0.5%p에 해당하는 56명을 더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III-2>는 지역과 학교 급에 따른 표본크기 중에서 목표조사 대상 학교 수를 보여주고 있다. 최소 1개 학교의 1개 학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울산과 제주도는 학교 급별로 최소 1개 학교의 1개 학년이 포함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자율고와 특성화고는 5개 권역으로 묶어 배분하였는데 5개 권역에는 서울, 경기·인천, 충남·충북·강원, 경남·경북·울산·부산·대구, 전남·전북·광주·제주 등이다.

표 Ⅲ-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20	522	384	96	162	156
경기	660	783	576	96	81	
인천	180	174	96			
강원	60	87	96	96	81	
충북	60	87	96			
충남	120	174	96			
대전	120	87	96			
경북	120	174	96	96	243	
경남	180	261	192			
부산	180	174	96			
대구	120	174	96			
울산	60	87	96	96	81	
전북	120	87	96			
전남	120	87	96			
광주	120	87	96			
제주	60	87	96			
합계	2,700	3,132	2,400	480	648	156

* 총계: 9,516명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 강현철(2015), p. 7.

<표 Ⅲ-3>는 변형비례배분 방식으로 할당된 학교 수에 따른 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목표 표본 학생 수는 총 9,516명이며 초등학생 2,700명, 중학생 3,123명, 일반고 학생 2,400명, 자율고 학생 480명, 특성화고 학생 648명, 특수목적고 학생 156명이 된다.

3) 설문지 개발 및 조사내용

본 설문조사는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의 국제교류 참여 경험의 효과 및 동북아지역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설문지는 <부록 3> 참조).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의식,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문항은 선행연구인 윤철경, 박선영과 송민경(2010), 양계민(2013) 등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을 추가하였다. 동북아지역 관련 현안 및 기타 배경 변인에 대한 문항은 새롭게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설문지 초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 설문 조사 문항 가운데 기존 문항들은 주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초등학생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준에서 답할 수 있도록 표현이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추가된 동북아 현안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에도 초·중등 학생들 수준에서 답할 수 있도록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초·중등 교사 7인의 자문을 거쳤으며, 그 현황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설문지 조사문항 전문가 검토 현황

구분	소속	직위
초등학교	부산 00초등학교	교사
	김포 00초등학교	교사
	성남 00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성남 00중학교	교사
	용인 00고등학교	교사
	화성 00고등학교	교사
	성남 00고등학교	교사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수정된 설문 조사 항목은 <표 III-5>와 같다. 총 문항 수는 56개이며 내용별로는 국제교류 효과성과 관련하여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의식, 다문화수용성, 자아존중감 등의 영역에서 31개, 동북아 평화공동체와 관련하여 동북아 국가 호감도 및 현안 인식,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등의 영역에서 14개, 마지막으로 개인 배경과 관련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체류 경험, 그리고 가정 배경 등의 영역에서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5 청소년 국제교류 조사 항목

조 사 내 용		문 항	
		문항번호	문항 수
국제교류 효과성	글로벌 역량	문47(1~5)	5
	세계시민의식	문48(1~9), 문49(12, 14)	11
	다문화수용성	문49(1~11, 13, 15~17)	15
	자아존중감	문19(1~10)	10
동북아 평화공동체	동북아 국가 호감도 및 현안 인식	문50, 문51(1~2), 문52, 문53	4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문54(1~3), 문55	4
개인 배경	국제교류 경험	문46, 문46(1~2)	3
	해외체류 경험	문44, 문45	2
	가정 배경	문56, 문57	2
총 문항 수		56	

(1) 국제교류 효과성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효과성과 관련된 문항은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의식, 다문화수용성, 자아존중감 등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오해섭 외(2008)의 연구에서는 국제교류의 효과를 ‘글로벌 역량’의 차원에서 접근하며, 관련 설문 문항은 글로벌 가치관, 글로벌 마인드 형성, 개인 역량 강화 등의 하위영역에서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이 가운데 세계시민의식 및 다문화수용성과 유사한 문항을 제외하였다. 또한 오해섭 외(2008)의 연구에서는 국제교류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참가 경험이 없는 경우 응답할 수 없는 문항들 역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에서는 ‘글로벌 역량’ 과 관련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1번 문항의 경우 원 문항에서는 “앞으로 세계인으로서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로 질문하였으나 “세계인”이라는 표현이 막연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하였다.

표 III-6 글로벌 역량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앞으로 세계인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①	②	③	④	⑤
(2) 유학·어학연수·교환학생 등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에서 직업을 구해 일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이 세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세계시민의식’ 영역은 윤철경 외(2010)와 양계민(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 가운데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9번 문항의 경우 원 문항에서는 “나는 한 나라의 국민만으로 살기보다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였으나, 전문가 자문과정에서 한 나라의 국민만으로 사는 것보다 세계 속 시민이 되는 것이 더 훌륭하다는 뉘앙스로 읽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인 “나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로 수정하였다.

한편 선행 연구의 문항들은 주로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나라 혹은 지구촌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최근 해외의 질적 연구 사례에서는 국제교류 참여자들에게 있어 ‘타인을 통한 자기 이해’가 세계시민의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학습 경험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었다(Killick, 2012).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자아 및 자문화에 대한 성찰과 관련된 문항을 2개 추가하였는데, <표 III-7>의 10번과 11번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세계시민의식 영역의 전체 문항은 11개로 질문하였다.

표 III-7 세계시민의식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식량이 남아도는데도 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더 어려운 다른 나라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을 돕기 위한 모금에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나라에서 굶주리는 사람을 위한 모금에 참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국의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TV나 신문에서 국제관계를 다루는 기사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지내는 경험은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지내는 경험은 우리나라와 우리 문화를 다시 생각해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수용성’ 영역과 관련하여 윤철경 외(2010), 김위정 외(2014), 양계민(2013)의 연구에서 중복되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문화 개방성, 거부·회피 정서, 세계시민행동의지 등의 하위 영역으로 총 15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실제 설문 문항 구성방식은 다문화가정 혹은 타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묻는 문항들을 교차로 배치하여 한 쪽으로 치우치지도록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표 Ⅲ-8 다문화수용성

문 항		하위 척도
(1)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문화 개방성
(2)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국제결혼)이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코딩)	
(3)	나는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4)	나는 국내외 지역의 문화가 다양하고 다름을 알고 있다	
(5)	나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를 보면 왠지 거북한 느낌이 든다(역코딩)	거부·회피 정서
(6)	흑인이나 백인 등 인종에 따라서 성격이나 능력 등이 어떨 것 같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편이다(역코딩)	
(7)	나는 외국의 전통이나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다	
(8)	외국 사람들의 문화는 나와 너무 멀게 느껴진다(역코딩)	
(9)	나는 처음 보는 외국인과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이가 전학 왔을 때 적극 도와줄 것이다	
(12)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을 보면 적극 도와줄 것이다	
(13)	나는 국내외 지역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세계시민행동의지
(14)	나는 여러 문화에 익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자 한다	
(15)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싶다	

‘자아존중감’ 영역은 국제교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포함되어있지 않았지만, 본 조사에서는 국제교류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성과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통제변수로 판단되어 포함하였다. 이를 통제하고도 국제교류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국제교류 경험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 문항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여 <표 Ⅲ-9>와 같이 10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표 III-9 자아존중감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출처 : Rosenberg(1965), 임희진과 송병국(2014, p.6)에서 재인용.

(2) 동북아 평화공동체

본 조사에서는 향후 동북아지역의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영역은 우리나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 및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간 비교 분석하였다. 3개국 청소년들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 동북아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서 평화공동체 지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혹은 프로그램의 목적 및 테마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과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는 해당 국가 대신 한국에 대한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우선,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등에 대한 호감도를 5점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 외에 미국, 프랑스, 호주 등에 대한 호감도도 마찬가지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표 III-10 동북아 국가 호감도

문 항		매우 싫다	조금 싫다	보통 이다	조금 좋다	매우 좋다
(1)	일본	①	②	③	④	⑤
(2)	중국	①	②	③	④	⑤
(3)	러시아	①	②	③	④	⑤
(4)	북한	①	②	③	④	⑤
(5)	몽골	①	②	③	④	⑤
(6)	미국	①	②	③	④	⑤
(7)	프랑스	①	②	③	④	⑤
(8)	호주	①	②	③	④	⑤

동북아지역 현안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와 러시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이 동북아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는지 묻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자문 결과 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 자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문항 앞에 사업의 개요를 기술하는 문장을 포함시켰다. 이 사업은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 사업이기는 하지만 남한과 북한을 잇고,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의 미래와 평화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표 III-11 동북아 지역 현안 인식(1)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은 동북아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이것 외에도 동북아지역의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이슈들 가운데 청소년들은 어떤 사안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1번 문항에서는 한·중·일 3국에서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영토분쟁 및 일본 식민지배 역사와 더불어 최근에 보다

표 III-13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국제교류(1)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중국과 일본 친구들과의 국제교류 활동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중국과 일본 친구들과의 국제교류 활동은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중국과 일본 친구들과의 국제교류 활동은 동북아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경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 하는 태도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표 III-14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국제교류(2)

	문항
(1)	다음 중 중국과 일본 친구들과의 국제교류 활동 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아래 빈칸에 선택해 표시해 주십시오. (), (), () ① 원자력 안전 ② 황사 및 미세먼지 대처 ③ 생태계 보전 및 환경 문제 ④ 재해재난 예방과 해결 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와 보안 ⑥ 전통문화 ⑦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 ⑧ 인권 및 민주주의 ⑨ 대중문화 ⑩ 청소년문제 ⑪ 과학기술 ⑫ 언어/문학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서 다룰 만한 주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선택지로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역사, 안보, 정치, 환경, 문화 영역 외에도 청소년기의 관심사이거나 교류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중문화, 청소년 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공동의제로 제시된 11가지 주제 중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사이버 공간, 환경 보존 관련 주제는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평화협력 이니셔티브(외교부, 2015)에서 제시한 동북아 지역의 공통적인 연성 안보 의제 가운데 청소년에게 적합한 주제를 가져온 것이며, 나머지 전통문화, 역사문제, 인권, 대중문화, 청소년문제, 과학기술, 언어 등은 연구자가 기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한 주제이다.

본 설문 문항을 통해서는 청소년들이 교류의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선택한 주제들이 각 국가의 정책 또는 동북아 지역에서 우선시되는 이슈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적절해 보이는 국제교류 활동의 주제를 찾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중·일 청소년들 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국가 간 교류 사업의 주제 선정에 있어 고려할 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3) 개인 배경

본 조사에서는 국제교류 참여 경험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국제교류 참여 경험 유무, 참여 횟수, 방문 국가 등을 묻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 체류 경험과 다문화·탈북 가정 여부 등도 위의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의식, 다문화수용성, 동북아 현안 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상정하여 관련 문항을 제시하였다.

4)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이 절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조사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표본 대표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부록 2>에 가중치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였다. 이 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10,506명이며 성별로 남학생이 5,476명으로 52.1%였으며 여학생이 5,030명으로 47.9%이었다. 변형비례배분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목표 표본 수는 9,516명으로 이번 조사에서 990명이 목표 표본보다 조사가 더 이루어졌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2,950명으로 28.1%, 중학생이 3,648명으로 34.7%, 고등학생이 3,908명으로 37.2%로 나타났다. 모집단의 표집틀로 활용한 학생 표본과 비교해 볼 때 모집단의 학교 급별 비중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실제 응답비중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8.9%였으며 중학생은 32.7%, 고등학생은 38.4%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화 가중치를 통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중은 다소 낮아지고 중학생의 비중은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변형비례배분 방식은 지역별로, 고등학생의 경우 계열별로 모집단 규모에 따른

표본 추출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열의 비율을 높여 조사를 진행하되 표준화 가중치를 통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의 실제 모집단 비율은 1.1%로 100명만을 조사해야 되나 변형비례배분을 통해 156명을 조사해 1.6% 정도로 변형비례에 의해 조정함으로써 표본수를 조정하였다.

표 III-15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 조사 결과 및 효과

구분		사례수(%)
성별	여학생	5,030(47.9)
	남학생	5,476(52.1)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2,950(28.1)
	중학생	3,648(34.7)
	고등학생	3,908(37.2)
지역	대규모	4,597(43.8)
	중소도시	4,321(41.1)
	읍면지역	1,588(15.1)
학교 성적	상	3,365(32.0)
	중	4,424(42.1)
	하	2,654(25.3)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4,546(43.3)
	중위	4,495(42.8)
	하위	1,451(13.8)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9,811(93.4)
	한부모 가정	555(5.3)
	조손 가정	57(0.5)
	기타	84(0.8)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10,368(98.7)
	다문화 가정	108(1.0)
	북한이탈 가정	30(0.3)
전체		10,506(100)

이어서 지역을 살펴보면, 대규모 도시 지역은 4,597명으로 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지역은 4,321명(41.1%), 읍면지역은 1,588명(15.1%)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구분은 교육통계의 학교 지역 구분을 따른 것으로 읍면동 중에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고 동지역에서 특별시나 광역시인 경우와 도 지역으로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도시를 대규모 도시로, 인구 5만 이상인 경우에 중소도시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성적을 살펴보면, 상위권 학생이 32.2%, 중위권 학생이 43.4%, 하위권 학생이 25.4%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무응답이 14명(0.1%)나왔으며 무응답을 제외하고 응답비중을 살펴보면, 상층이라는 응답이 43.3%, 중간층이

라는 응답이 42.8%였고 하층이라는 응답은 13.8%로 나타났다. 이어서 가족 구성을 보면, 양부모가 다 계신 경우가 93.4%였고 한부모 가정이 5.3%, 조손가정이 0.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의 비중은 1.0%로 108명이었으며 북한이탈가정의 비중은 0.3%(30명)으로 나타났다.

(2) 성과 측정 변수 구성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참여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 국제교류 참여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측정도구들이 이번 조사에 포함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은 문항간의 신뢰도(Cronbach's alpha)와 양방성 상관관계수(Pearson's r) 값을 활용하였다.

먼저 글로벌 역량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역량 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값은 0.853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값을 보면 1개 문항을 제외하고 해당 문항을 제외했을 때 신뢰도 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항 5인 “한국이 세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값을 높이기 때문에 국제교류 참여 여부에 따른 효과성 검증 시에 문항 5를 제외하고 변수(4개 문항의 합을 4로 나눈 값)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II-16 글로벌 역량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간 상관관계수					문항제거 시 신뢰도 값	전체 신뢰도 값
	문1	문2	문3	문4	문5		
문1) 앞으로 세계인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1.000					0.817	0.853
문2) 유학·어학연수·교환학생 등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0.606	1.000				0.809	
문3) 외국에서 직업을 구해 일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	0.593	0.720	1.000			0.801	
문4)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0.556	0.545	0.603	1.000		0.822	
문5) 한국이 세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0.451	0.399	0.423	0.453	1.000	0.859	

표 III-17 세계시민의식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간 상관계수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값	전체 신뢰도 값
	문1	문2	문3	문4	문5	문6	문7	문8	문9	문10	문11		
문1) 나는 식량이 남아도는데도 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1.000											0.838	0.851
문2)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더 어려운 다른 나라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0.425	1.000										0.836	
문3)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굶주려 죽어 가는 사람을 돕기 위한 모금에 참여할 것이다	0.435	0.608	1.000									0.828	
문4) 다른 나라에서 굶주리는 사람을 위한 모금에 참가한 적이 있다	0.344	0.384	0.528	1.000								0.839	
문5)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0.471	0.410	0.501	0.447	1.000							0.834	
문6) 외국의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	0.406	0.379	0.428	0.355	0.448	1.000						0.830	
문7) TV나 신문에서 국제관계를 다루는 기사에 관심이 많다	0.346	0.295	0.336	0.316	0.309	0.637	1.000					0.837	
문8)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0.027	0.083	0.112	0.032	0.033	0.044	0.015	1.000				0.873	
문9) 나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	0.353	0.401	0.436	0.333	0.372	0.521	0.527	0.033	1.000			0.833	
문10)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지내는 경험은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0.351	0.313	0.430	0.351	0.420	0.413	0.360	0.093	0.430	1.000		0.834	
문11)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지내는 경험은 우리나라와 우리 문화를 다시 생각해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0.337	0.330	0.414	0.326	0.392	0.420	0.379	0.072	0.438	0.662	1.000	0.835	

이어서 효과성 검증을 위해 설문지에 포함된 두 번째 측정도구는 세계시민의식이다. 세계시민의식은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0.851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8번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값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번 문항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를 묻고 있는데 변수 값이 반대로 되어 있는 문항(reverse item)이어서 응답 시 문항 값 순서를 다소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8번 문항을 제외하고 10개 문항을 활용해 측정변수(10개 문항을 합산한 후 10으로 나눈 값)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II-18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간 상관계수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값	전체 신뢰도 값
	문1	문2	문3	문4	문5	문6	문7	문8	문9	문10	문11	문12	문13	문14	문15		
문1)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1.000															0.815	0.831
문2) 나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를 보면 왠지 거북한 느낌이 든다	0.344	1.000														0.826	
문3)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국제결혼)이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0.330	0.542	1.000													0.825	
문4) 흑인이나 백인 등 인종에 따라서 성격이나 능력 등이 어떨 것 같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편이다	0.240	0.498	0.473	1.000												0.830	
문5) 나는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0.074	0.121	0.187	0.142	1.000											0.864	
문6) 나는 외국의 전통이나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다	0.235	0.003	0.036	-0.011	-0.362	1.000										0.820	
문7) 나는 국내외 지역의 문화가 다양하고 다름을 알고 있다	0.294	0.070	0.061	0.069	-0.373	0.544	1.000									0.819	
문8) 외국 사람들의 문화는 나와 너무 멀게 느껴진다	0.160	0.374	0.341	0.373	0.070	0.057	0.020	1.000								0.832	
문9) 나는 여러 문화에 익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자 한다	0.276	0.019	0.038	-0.010	-0.302	0.538	0.454	0.029	1.000							0.817	
문10) 나는 처음 보는 외국인과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406	0.154	0.132	0.099	-0.217	0.405	0.400	0.139	0.536	1.000						0.809	
문11)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싶다	0.347	0.087	0.121	0.066	-0.295	0.598	0.490	0.095	0.611	0.587	1.000					0.809	
문12) 나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358	0.110	0.108	0.061	-0.251	0.454	0.417	0.135	0.527	0.612	0.596	1.000				0.811	
문13)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이가 전학 왔을 때 적극 도와줄 것이다	0.440	0.204	0.208	0.160	-0.211	0.391	0.417	0.108	0.459	0.535	0.533	0.524	1.000			0.808	
문14)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을 보면 적극 도와줄 것이다	0.419	0.184	0.205	0.150	-0.199	0.350	0.368	0.099	0.413	0.492	0.482	0.474	0.762	1.000		0.811	
문15) 나는 국내외 지역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0.457	0.213	0.209	0.173	-0.249	0.390	0.514	0.132	0.438	0.499	0.529	0.498	0.641	0.622	1.000	0.809	

마지막으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로 사용한 것은 다문화 수용성 척도이다. 다문화 수용성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3가지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요인분석 결과, 3 가지 요인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이 경우에도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신뢰도 값은 0.831로 매우 양호하게 나왔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값을 높이는 문항은 5 번째 문항이었다. 5 번째 문항은 “나는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로 이 문항을 제거했을 때 신뢰도 값은 0.864로 높아지게 된다.

자아존중감 문항은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성과 측정 변수가 아니라 성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교류 참여 효과에 대한 통제 변수로 사용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글로벌 역량이나 세계시민의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통제 변수 중에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활용하였다. 이 경우에도 8 번째 문항을 제거했을 때 신뢰도 값이 높아져 이 문항을 제외하고 측정 변수를 생성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II-19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간 상관계수										문항제거 시 신뢰도 값	전체 신뢰도 값
	문1	문2	문3	문4	문5	문6	문7	문8	문9	문10		
문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00										0.824	0.846
문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0.702	1.000									0.830	
문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0.388	0.301	1.000								0.824	
문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0.553	0.512	0.312	1.000							0.834	
문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0.421	0.336	0.577	0.377	1.000						0.824	
문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0.605	0.563	0.425	0.501	0.421	1.000					0.822	
문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0.585	0.519	0.464	0.489	0.466	0.697	1.000				0.820	
문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0.162	-0.152	0.057	-0.153	0.030	-0.126	-0.140	1.000			0.882	
문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0.372	0.310	0.611	0.294	0.533	0.414	0.464	0.096	1.000		0.821	
문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298	0.312	0.515	0.237	0.460	0.347	0.398	0.113	0.666	1.000	0.829	

(3) 해외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

이 절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과 최근 1년 간 해외로 여행을 간 경험이 있는지 물어 봤으며 핵심 문항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III-20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

구분		해외 경험 (%)		카이검정(χ^2)
		예	아니오	
성별	여학생	404(8.0)	4,624(92.0)	12.434***
	남학생	548(10.0)	4,925(90.0)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295(10.0)	2,652(90.0)	7.202*
	중학생	337(9.2)	3,308(90.8)	
	고등학생	319(8.2)	3,589(91.8)	
지역	대규모	463(10.1)	4,132(89.9)	10.240**
	중소도시	354(8.2)	3,963(91.8)	
	읍면지역	135(8.5)	1,454(91.5)	
학교 성적	상	339(10.1)	3,022(89.9)	12.261**
	중	408(9.2)	4,016(90.8)	
	하	199(7.5)	2,454(92.5)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560(12.3)	3,983(87.7)	104.642***
	중위	307(6.8)	4,186(93.2)	
	하위	84(5.8)	1,367(94.2)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895(9.1)	8,910(90.9)	2.865
	한부모 가정	46(8.3)	509(91.7)	
	조손 가정	2(3.5)	55(96.5)	
	기타	9(10.7)	75(89.3)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892(8.6)	9,472(91.4)	213.664***
	다문화 가정	52(48.6)	55(51.4)	
	북한이탈 가정	7(9.1)	22(90.9)	
전체		951(9.1)	9,549(90.9)	—

* p<.05 ** p<.01 *** p<.001

표 III-21 최근 1년 간 해외로 여행을 가 본 경험

구분		해외 경험 (%)		카이검정(χ^2)
		예	아니오	
성별	여학생	852(16.9)	4,176(83.1)	0.958
	남학생	967(17.7)	4,506(82.3)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599(20.3)	2,347(79.7)	46.221***
	중학생	663(18.2)	2,984(81.8)	
	고등학생	557(14.3)	3,351(85.7)	
지역	대규모	800(17.4)	3,795(82.6)	4.114
	중소도시	719(16.7)	3,599(83.3)	
	읍면지역	300(18.9)	1,288(81.1)	
학교 성적	상	768(22.8)	2,594(77.2)	137.270***
	중	738(16.7)	3,685(83.3)	
	하	303(11.4)	2,350(88.6)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1,113(24.5)	3,431(75.5)	304.911***
	중위	580(12.9)	3,912(87.1)	
	하위	122(8.4)	1,329(91.6)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1,722(17.6)	8,083(82.4)	14.313**
	한부모 가정	67(12.1)	488(87.9)	
	조손 가정	15(26.3)	42(73.7)	
	기타	15(17.9)	69(82.1)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1,785(17.2)	8,580(82.8)	7.783*
	다문화 가정	29(27.4)	77(72.6)	
	북한이탈 가정	4(13.8)	25(86.2)	
전체		1,818(17.3)	8,682(82.7)	-

* $p<.05$ ** $p<.01$ *** $p<.001$

먼저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해외 거주 경험이 2%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은 10.0%인데 반해 여학생은 8.0%였으며 교차표 분석을 통해 카이검정을 시도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해외 거주 경험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해외 거주 경험 비율은 10.0%인데 반해 중학생은 9.2%, 고등학생은 8.2%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대규모 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10.1%가 해외 거주 경험이 있었으나 중소도시는 8.2%, 읍면지역은 8.5%로 대규모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해외 거주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의 해외 거주 경험 비율은 10.1%인데 반해서 중위권 학생들은 9.2%였고 하위권 학생들은 7.5%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층의 비율은 12.3%인데 반해서 하층의 비율은 5.8%로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족 구성에서도 양부모가 다 계신 청소년의 해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해당 청소년들의 특성상 해외 거주 경험이 일반가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근 1년 간 해외로 여행을 가 본 경험을 살펴보면, 성별과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중에서 최근 1년 간 해외여행 경험을 한 비율이 20.3%로 가장 높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업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업성적이나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해외 거주 경험과 유사하게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상층일수록 지난 1년 간 해외여행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조손가정의 지난 1년 간 해외여행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결과로 보기 어렵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의 특성 상 해외여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서,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외국 자매도시 등과의 국제교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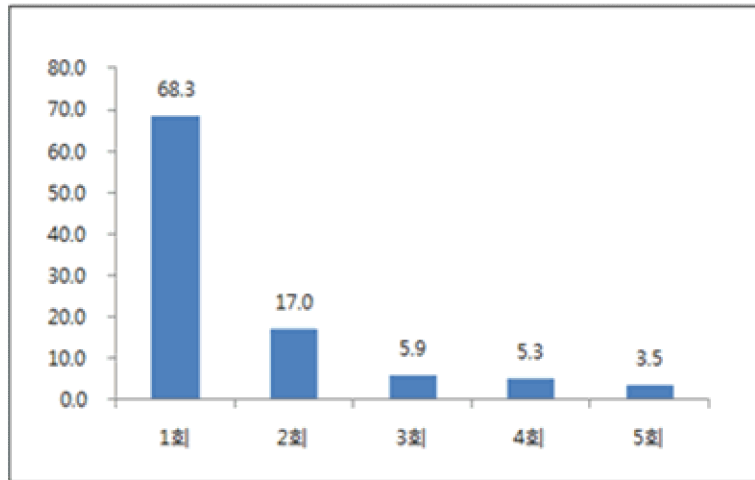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421명(4.0%)이었으며 성별로 보면 해외거주나 해외여행 경험과는 달리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4.5%로 남학생(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의 국제교류 참여 비율은 2.8%인데 반해 고등학생의 참여 비율은 5.0%로 대략 2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참여율이 5.7%로 가장 높았고 대규모 도시지역의 참여율이 4.1%, 중소도시 지역의 참여율은 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나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상위권이나 상층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나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가정 등의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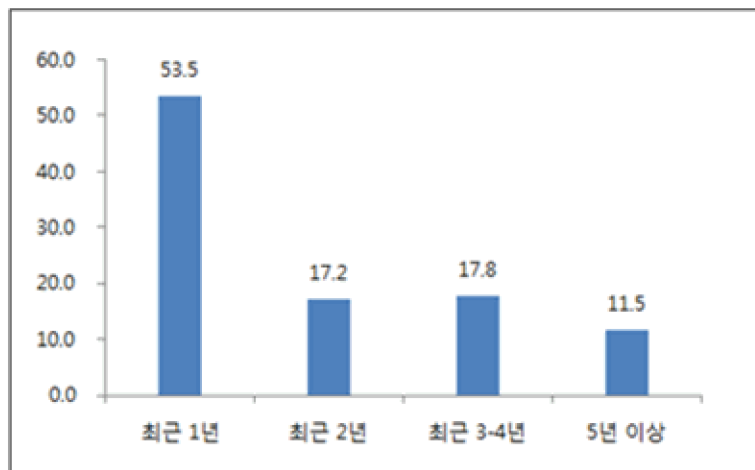
구분		해외 경험 (%)		카이검정(χ^2)
		예	아니오	
성별	여학생	226(4.5)	4,804(95.5)	5.874*
	남학생	195(3.6)	5,276(96.4)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83(2.8)	2,865(97.2)	21.452***
	중학생	141(3.9)	3,504(96.1)	
	고등학생	196(5.0)	3,711(95.0)	
지역	대규모	188(4.1)	4,406(95.9)	16.847***
	중소도시	143(3.3)	4,175(96.7)	
	읍면지역	90(5.7)	1,499(94.3)	
학교 성적	상	165(4.9)	3,199(95.1)	10.346**
	중	168(3.8)	4,254(96.2)	
	하	89(3.4)	2,563(96.6)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220(4.8)	4,325(95.2)	14.209**
	중위	151(3.4)	4,339(96.6)	
	하위	50(3.4)	1,401(96.6)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388(4.0)	9,417(96.0)	4.330
	한부모 가정	23(4.1)	532(95.9)	
	조손 가정	5(8.8)	52(91.2)	
	기타	5(6.0)	78(94.0)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412(4.0)	9,952(96.0)	5.300
	다문화 가정	9(8.3)	99(91.7)	
	북한이탈 가정	1(3.3)	29(96.7)	
전체		422(4.0)	10,080(96.0)	—

* p<.05 ** p<.01 *** p<.001

이어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한 차례만 경험했다는 응답이 68.3%로 절반이 넘었고 2회 참여했다는 응답이 17.0%, 5회 이상 참여했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대체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참여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수혜대상이 적다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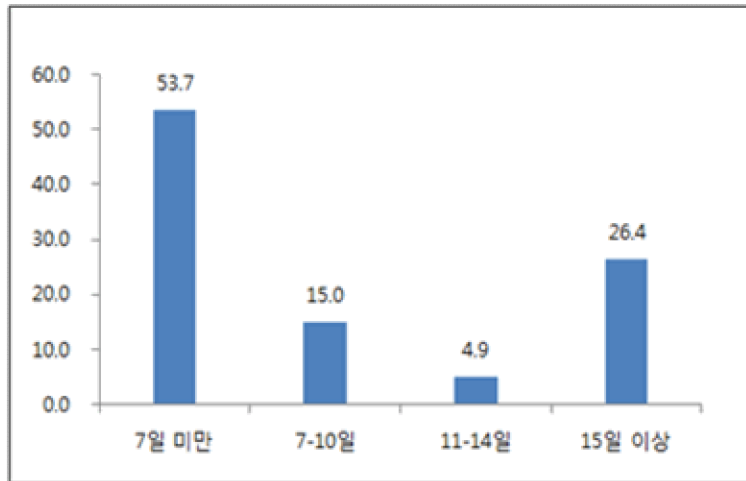


【그림 III -1】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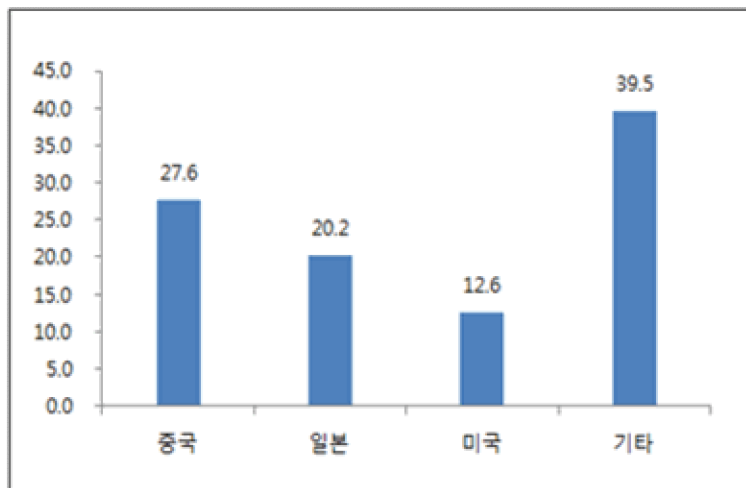


【그림 III -2】 참여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시기(%)

1회 참여를 기준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참여 시기와 기간, 방문 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가 시기를 살펴보면, 최근 1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53.5%로 가장 높았고, 최근 2년이라는 응답과 최근 3~4년간이라는 응답이 17%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되었다는 응답은 11.5%였다. 1년 이내에 프로그램을 경험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4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9할 가량 된다는 점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3】 참여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기간(%)



【그림 III-4】 참여 국제교류 프로그램 방문 국가(%)

1회 참여를 기준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참여 시기와 기간, 방문 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가 기간을 살펴보면, 참가 기간이 7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53.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26.4%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짧거나 2주 이상으로 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8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방문 국가를 살펴보면, 동북아 지역인 중국과 일본의 비중이 전체 중 4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

이 절에서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각 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 전제로 상대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표 III-23 일본에 대한 호감도

구분		호감도 (%)		카이검정(χ^2)
		부정적 (매우+조금 싫다)	긍정적 (조금+매우 좋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205(48.8)	115(27.4)	17.989 **
	미참여	5,371(53.3)	1,956(19.4)	
성별	여학생	2,703(53.7)	907(18.0)	111.171***
	남학생	2,876(52.5)	1,165(21.3)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1,728(58.6)	509(17.3)	107.875***
	중학생	1,971(54.0)	710(19.5)	
	고등학생	1,881(48.1)	853(21.8)	
지역	대규모	2,382(51.9)	929(20.2)	9.303
	중소도시	2,368(54.8)	822(19.0)	
	읍면지역	830(52.3)	321(20.2)	
학교 성적	상	1,855(55.2)	709(21.1)	43.434***
	중	2,340(52.9)	821(18.6)	
	하	1,342(50.6)	531(20.0)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2,487(54.8)	918(20.2)	54.016***
	중위	2,354(52.4)	813(18.1)	
	하위	729(50.3)	338(23.3)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5,243(53.5)	1,907(19.4)	30.763**
	한부모 가정	261(47.0)	134(24.1)	
	조손 가정	30(52.6)	14(24.6)	
	기타	44(53.7)	17(20.7)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5,519(53.3)	2,037(19.7)	25.693**
	다문화 가정	46(42.6)	32(29.6)	
	북한이탈 가정	15(48.4)	4(12.9)	
전체		5,580(53.1)	2,073(19.7)	—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23>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부정적인 응답(매우 싫다+싫다)이 53.1%로 긍정적인 응답(조금 좋다+매우 좋다, 19.7%)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로 한일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부정적인 응답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 면에서는 부모가 다 계신 가정의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 가정보다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로 살펴볼 때 참여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들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27.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19.4%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주변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국에 대해 긍정적(16.5%)이기 보다는 부정적(39.6%)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53.1%)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호감도가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보면 일본과는 달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견해가 커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선 일본의 결과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 성적이나 가족의 경제적 수준 역시 일본과 정반대로 하위권이거나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구성이나 다문화 및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견해도 일본과는 다른데 양부모나 일반가정보다 높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주변국인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결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견해가 미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4 중국에 대한 호감도

구분		호감도 (%)		카이검정(χ^2)
		부정적 (매우+조금 싫다)	긍정적 (조금+매우 좋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135(32.2)	105(25.1)	33.402***
	미참여	4,023(39.9)	1,624(16.1)	
성별	여학생	1,873(37.3)	793(15.8)	101.465 ***
	남학생	2,289(41.8)	936(17.1)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1,091(37.0)	648(22.0)	139.282***
	중학생	1,468(40.3)	549(15.1)	
	고등학생	1,604(41.1)	532(13.6)	
지역	대규모	1,784(38.8)	785(17.1)	20.850**
	중소도시	1,771(41.0)	677(15.7)	
	읍면지역	607(38.2)	267(16.8)	
학교 성적	상	1,265(37.6)	690(20.5)	97.754***
	중	1,714(38.8)	662(15.0)	
	하	1,144(43.1)	364(13.7)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1,746(38.4)	889(19.6)	61.058***
	중위	1,797(40.0)	631(14.0)	
	하위	613(42.3)	207(14.3)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3,868(39.5)	1,623(16.6)	13.640
	한부모 가정	236(42.5)	82(14.8)	
	조손 가정	23(40.4)	9(15.8)	
	기타	35(41.7)	16(19.0)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4,124(39.8)	1,677(16.2)	64.335***
	다문화 가정	27(25.2)	43(40.2)	
	북한이탈 가정	11(37.9)	9(31.0)	
전체		4,162(39.6)	1,792(16.5)	-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면, 앞선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25.2%)가 부정적인 견해(18.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러시아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고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III-25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구분		호감도 (%)		카이검정(χ^2)
		부정적 (매우+조금 싫다)	긍정적 (조금+매우 좋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62(14.8)	135(32.2)	15.335**
	미참여	1,862(18.5)	2,508(24.9)	
성별	여학생	868(17.3)	1,203(23.9)	60.593***
	남학생	1,058(19.4)	1,439(26.3)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582(19.7)	880(29.9)	100.375***
	중학생	675(18.5)	872(24.0)	
	고등학생	669(17.1)	889(22.8)	
지역	대규모	788(17.2)	1,181(25.7)	25.926**
	중소도시	851(19.7)	1,058(24.5)	
	읍면지역	288(18.1)	404(25.4)	
학교 성적	상	643(19.1)	947(28.2)	44.858***
	중	778(17.6)	1,057(23.9)	
	하	486(18.3)	627(23.6)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840(18.5)	1,307(28.8)	75.680***
	중위	839(18.7)	999(22.2)	
	하위	241(16.6)	332(22.9)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1,800(18.4)	2,461(25.1)	25.463*
	한부모 가정	101(18.3)	146(26.4)	
	조손 가정	10(17.5)	14(24.6)	
	기타	13(15.5)	22(26.2)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1,896(18.3)	2,600(25.1)	15.722*
	다문화 가정	20(18.5)	34(31.5)	
	북한이탈 가정	10(33.3)	7(23.3)	
전체		1,926(18.4)	2,641(25.2)	-

* p<.05 ** p<.01 *** p<.001

성별로 볼 때 남학생이 부정적인 응답과 긍정적인 응답 모두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은 보통이다라는 응답 비중(58.8%)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부정적인 응답이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가장 높았고 학교 성적이나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구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데 특별히 북한 이탈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서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견해가 32.2%인데 반해서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24.9%로 낮은 응답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응답이 59.3%로 긍정적인 응답(9.1%)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53.1%)보다도 6.2%p 높은 수치이다. 이는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성적별로 보면, 하위권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가족 구성에서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부정적인 응답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이탈 가정의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 청소년의 긍정적인 응답이 10.2%, 미참여 학생의 응답은 9.9%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북아시아의 주변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남북한 간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몽골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응답(19.7%)과 긍정적인 응답(16.2%)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64.0%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몽골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고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교류 규모 자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몽골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청소년들이 갖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표 III-26 북한에 대한 호감도

구분		호감도 (%)		카이검정(χ^2)
		부정적 (매우+조금 싫다)	긍정적 (조금+매우 좋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226(53.8)	43(10.2)	17.993**
	미참여	6,002(59.6)	996(9.9)	
성별	여학생	2,792(55.5)	499(9.9)	183.219***
	남학생	3,441(62.9)	540(9.9)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1,828(62.0)	409(13.9)	213.331***
	중학생	2,216(60.8)	318(8.7)	
	고등학생	2,190(56.1)	311(8.0)	
지역	대규모	2,705(58.9)	460(10.0)	11.589
	중소도시	2,575(59.6)	401(9.3)	
	읍면지역	953(60.1)	177(11.2)	
학교 성적	상	1,874(55.7)	460(13.7)	102.185***
	중	2,673(60.4)	366(8.3)	
	하	1,651(62.3)	208(7.8)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2,739(60.3)	521(11.5)	49.519***
	중위	2,634(58.6)	373(8.3)	
	하위	850(58.5)	146(10.1)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5,786(59.0)	972(9.9)	22.092*
	한부모 가정	367(66.1)	49(8.8)	
	조손 가정	34(61.8)	5(9.1)	
	기타	46(55.4)	12(14.5)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6,147(59.3)	1,026(9.9)	2.618
	다문화 가정	68(62.4)	10(9.2)	
	북한이탈 가정	19(63.3)	3(10.0)	
전체		6,234(59.4)	1,039(9.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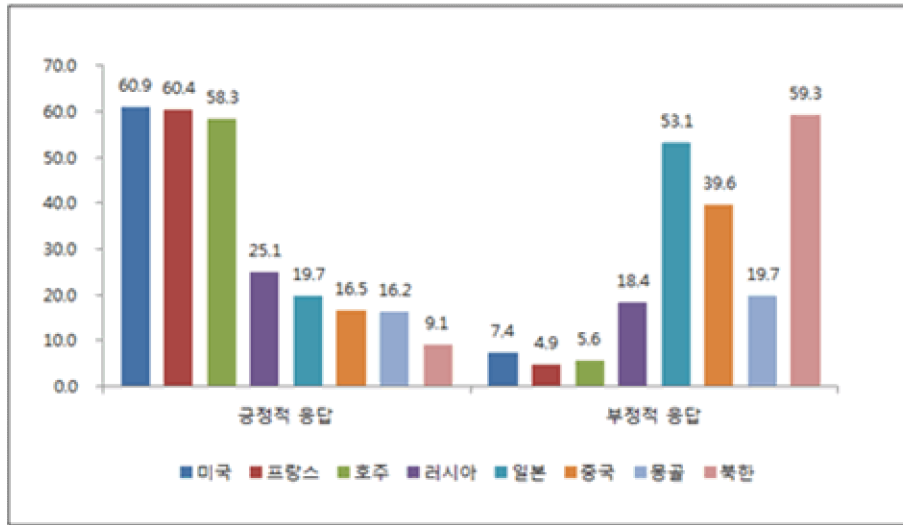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모두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높은데 긍정적인 견해도 높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규모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 성적이 낮을수록,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면에서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 가정의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7 몽골에 대한 호감도

구분		호감도 (%)		카이검정(χ^2)
		부정적 (매우+조금 싫다)	긍정적 (조금+매우 좋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70(16.7)	88(21.1)	19.592**
	미참여	2,001(19.9)	1,611(16.0)	
성별	여학생	880(17.5)	764(15.2)	88.357***
	남학생	1,192(21.8)	934(17.1)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769(26.1)	601(20.4)	227.075***
	중학생	671(18.4)	554(15.2)	
	고등학생	633(16.2)	544(13.9)	
지역	대규모	823(17.9)	782(17.0)	28.354***
	중소도시	915(21.2)	642(14.9)	
	읍면지역	335(21.2)	275(17.4)	
학교 성적	상	609(18.1)	668(19.9)	59.608***
	중	878(19.9)	632(14.3)	
	하	568(21.5)	386(14.6)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953(21.0)	847(18.7)	59.232***
	중위	858(19.1)	621(13.8)	
	하위	256(17.7)	230(15.9)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1,912(19.5)	1,582(16.2)	18.576
	한부모 가정	128(23.1)	92(16.6)	
	조손 가정	15(26.8)	8(14.3)	
	기타	17(20.5)	15(18.1)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2,042(19.7)	1,666(16.1)	7.559
	다문화 가정	24(22.2)	24(22.2)	
	북한이탈 가정	7(24.1)	7(24.1)	
전체		2,073(19.8)	1,697(16.2)	—

* $p<.05$ ** $p<.01$ *** $p<.001$



【그림 Ⅲ-5】 국가별 호감도 긍정(조금+매우 좋다)과 부정(조금+매우 싫다) 응답 비중(%)

[그림 Ⅲ-5]는 지금까지 살펴본 동북아지역 국가별 호감도에 준거집단으로 추가한 미국, 프랑스, 호주의 응답 결과를 포함해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주변에 위치한 국가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감도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긍정적인 응답비중은 러시아 다음으로 높지만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북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을 대하는 태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통이라는 중립적인 의견이 매우 적은 대신 청소년들의 일본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동북아 현안에 대한 견해

이 절에서는 동북아지역과의 국제교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동북아 현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견해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한 철도를 잇는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III-28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구분		동의 정도 (%)		카이검정(χ^2)
		부정적 (전혀+그렇지 않다)	긍정적 (그렇다+매우)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29(6.9)	296(70.5)	38.617***
	미참여	843(8.4)	5,831(58.0)	
성별	여학생	359(7.1)	2,789(55.5)	178.140***
	남학생	514(9.4)	3,340(61.2)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439(14.9)	1,165(39.7)	713.246***
	중학생	210(5.8)	2,340(64.3)	
	고등학생	225(5.8)	2,622(67.1)	
지역	대규모	347(7.6)	2,773(60.5)	29.538***
	중소도시	393(9.1)	2,454(56.9)	
	읍면지역	134(8.5)	900(56.8)	
학교 성적	상	205(6.1)	2,331(69.4)	345.525***
	중	417(9.4)	2,377(53.9)	
	하	238(9.0)	1,389(52.4)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389(8.6)	2,763(61.0)	119.701***
	중위	365(8.1)	2,437(54.3)	
	하위	112(7.7)	922(63.6)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779(8.0)	5,799(59.2)	85.437***
	한부모 가정	62(11.2)	282(50.8)	
	조손 가정	12(20.7)	20(34.5)	
	기타	20(23.8)	28(33.3)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854(8.3)	6,069(58.6)	19.415*
	다문화 가정	14(13.0)	48(44.4)	
	북한이탈 가정	6(21.4)	11(39.3)	
전체		874(8.3)	6,128(58.4)	-

* p<.05 ** p<.01 *** p<.001

이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질문이다.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 연결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그렇다+매우 그렇다)은 58.4%로 부정적인 답변(8.3%)보다 7 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9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은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분		동의 정도 (%)		카이검정(χ^2)
		부정적 (전혀+그렇지 않다)	긍정적 (그렇다+매우)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40(9.5)	247(58.9)	23.127***
	미참여	1,184(11.8)	4,938(49.1)	
성별	여학생	501(10.0)	2,350(46.8)	158.389***
	남학생	725(13.3)	2,836(52.0)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439(15.0)	1,124(38.3)	350.980***
	중학생	306(8.4)	2,040(56.1)	
	고등학생	482(12.3)	2,024(51.8)	
지역	대규모	507(11.1)	2,311(50.5)	20.018*
	중소도시	543(12.6)	2,081(48.2)	
	읍면지역	177(11.2)	795(50.2)	
학교 성적	상	326(9.7)	1,991(59.3)	286.818***
	중	541(12.3)	2,026(46.0)	
	하	342(12.9)	1,144(43.2)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510(11.3)	2,408(53.2)	137.404***
	중위	501(11.2)	2,031(45.3)	
	하위	207(14.3)	744(51.3)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1,114(11.4)	4,900(50.1)	53.916***
	한부모 가정	79(14.3)	246(44.5)	
	조손 가정	12(21.1)	15(26.3)	
	기타	22(26.2)	26(31.0)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1,204(11.6)	5,129(49.6)	7.969
	다문화 가정	17(15.7)	48(44.4)	
	북한이탈 가정	5(17.2)	10(34.5)	
전체		1,226(11.7)	5,187(49.5)	-

* p<.05 ** p<.01 *** p<.001

두 번째 질문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본 결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응답이 49.5%로 부정적인 응답(11.7%)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질문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응답이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중응답 분석(multi-response analysis)을 실시해본 결과, 남북한 화해 및 평화통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한국, 중국, 일본 간 영토분쟁 해결과 일본의 식민지배 반성 등 역사문제 해결을 꼽았다.

표 III-30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다중응답분석)

구분		한중일 영토분쟁	원자력 안전	남북 화해	북한 지원	환경 문제	일본 역사 문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74.8	23.7	74.9	18.2	38.7	65.5
	미참여	71.3	28.1	76.6	21.9	43.8	56.0
성별	여학생	66.7	28.5	74.6	22.4	46.0	60.1
	남학생	75.9	27.3	78.3	21.2	41.5	53.0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68.9	27.0	83.3	30.9	47.9	39.3
	중학생	72.2	25.9	79.0	20.2	42.9	57.9
	고등학생	72.7	30.4	69.1	16.4	41.2	67.8
지역	대규모	71.5	28.2	75.6	21.3	43.1	58.2
	중소도시	72.3	27.2	76.2	21.5	43.8	56.3
	읍면지역	69.2	28.7	79.9	23.7	44.9	51.4
학교 성적	상	71.0	26.0	78.7	19.8	41.7	60.7
	중	71.2	27.7	76.8	22.8	44.2	55.4
	하	72.4	30.7	73.5	22.6	44.8	52.9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70.8	27.8	78.3	22.8	43.2	54.7
	중위	72.2	28.5	75.8	21.3	43.9	56.1
	하위	71.6	26.1	73.0	19.9	44.0	62.9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71.4	27.9	76.6	21.7	43.5	56.6
	한부모 가정	73.2	25.7	76.6	20.3	46.3	56.4
	조손 가정	67.3	35.4	74.0	18.4	50.9	48.0
	기타	72.5	38.4	71.3	36.9	38.8	38.8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71.5	27.8	76.5	21.7	43.6	56.5
	다문화 가정	72.2	30.6	73.8	28.7	43.5	45.1
	북한이탈 가정	63.7	27.5	88.6	26.6	41.3	52.3

표 III-31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다중응답분석)

구분		소속감/공 동체의식	안보문제 해결	경제적 교류확대	민주주의 /인권	문화 교류	이해와 존중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28.4	74.8	41.3	38.3	50.5	64.8
	미참여	28.0	79.1	44.8	36.3	48.3	62.6
성별	여학생	23.0	80.0	39.8	36.3	52.0	68.1
	남학생	32.6	77.9	49.2	36.5	45.2	57.7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27.1	81.6	42.4	34.9	50.9	61.6
	중학생	28.6	79.9	46.1	36.0	48.1	60.9
	고등학생	28.1	75.9	45.2	37.8	46.9	65.3

구분		소속감/공동체의식	안보문제 해결	경제적 교류확대	민주주의/인권	문화 교류	이해와 존중
지역	대규모	27.3	78.8	45.2	35.9	48.4	63.7
	중소도시	27.9	78.8	44.5	36.5	48.9	62.1
	읍면지역	30.1	79.5	43.9	37.3	47.0	61.5
학교 성적	상	26.3	80.6	43.3	38.8	45.0	65.3
	중	29.1	78.3	44.9	35.1	49.1	62.6
	하	28.3	77.8	46.0	35.8	51.2	59.9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27.2	79.4	44.6	37.1	48.5	62.3
	중위	28.7	78.8	45.5	35.3	48.5	62.4
	하위	28.5	77.3	43.0	37.4	47.7	65.0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27.7	79.0	44.7	36.4	48.4	63.0
	한부모 가정	31.8	78.4	43.5	34.8	49.2	60.9
	조손 가정	32.3	73.4	41.4	46.0	40.2	62.7
	기타	40.4	73.3	54.9	34.6	52.5	44.3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28.0	78.9	44.8	36.4	48.4	62.7
	다문화 가정	28.3	81.3	39.2	32.9	48.8	65.8
	북한이탈 가정	34.7	78.0	31.6	38.0	66.3	51.4

이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본 결과, 전쟁방지 및 남북평화 등 안보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았고 이어서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3순위로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경제나 정치보다 안보 문제 해결과 상호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견해

이 절에서는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청소년들이 제시한 의견을 결과로 나타내고자 한다.

표 III-32 중국과 일본 국제교류의 효과에 대한 견해 1

구분		평화와 공존 도움에 대한 동의(%)		카이검정(χ^2)
		부정적 (전혀+그렇지 않다)	긍정적 (그렇다+매우)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32(7.6)	261(62.1)	62.938***
	미참여	853(8.5)	4,350(43.3)	
성별	여학생	332(6.6)	2,203(43.9)	88.771***
	남학생	553(10.1)	2,409(44.2)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286(9.8)	1,178(40.2)	219.774***
	중학생	274(7.5)	1,570(43.1)	
	고등학생	325(8.3)	1,865(47.8)	
지역	대규모	375(8.2)	2,140(46.7)	37.381***
	중소도시	389(9.0)	1,798(41.7)	
	읍면지역	121(7.6)	675(42.6)	
학교 성적	상	231(6.9)	1,878(55.9)	353.073***
	중	361(8.2)	1,765(40.1)	
	하	282(10.6)	942(35.6)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392(8.6)	2,237(49.3)	162.639***
	중위	350(7.8)	1,733(38.7)	
	하위	141(9.7)	634(43.8)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794(8.1)	4,354(44.5)	51.907***
	한부모 가정	65(11.8)	216(39.1)	
	조손 가정	13(22.8)	17(29.8)	
	기타	13(16.0)	25(30.9)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861(8.3)	4,557(44.1)	20.678**
	다문화 가정	17(15.7)	50(46.3)	
	북한이탈 가정	6(20.0)	6(20.0)	
전체		884(8.4)	4,613(44.0)	—

* $p<.05$ ** $p<.01$ *** $p<.001$

표 III-33 중국과 일본 국제교류의 효과에 대한 견해 2

구분		문화와 역사 이해 도움에 대한 동의(%)		카이검정(χ^2)
		부정적 (전혀+그렇지 않다)	긍정적 (그렇다+매우)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18(4.3)	288(68.9)	67.820***
	미참여	736(7.3)	4,867(48.4)	
성별	여학생	283(5.6)	2,530(50.4)	69.209***
	남학생	472(8.7)	2,626(48.2)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281(9.6)	1,266(43.3)	227.035***
	중학생	249(6.8)	1,729(47.5)	
	고등학생	224(5.7)	2,162(55.4)	
지역	대규모	300(6.5)	2,428(53.0)	54.616***
	중소도시	329(7.6)	1,974(45.8)	
	읍면지역	126(8.0)	754(47.7)	
학교 성적	상	180(5.4)	2,083(62.0)	387.197***
	중	316(7.2)	1,985(45.1)	
	하	250(9.4)	1,085(40.0)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328(7.2)	2,486(54.8)	170.729***
	중위	306(6.8)	1,931(43.2)	
	하위	118(8.2)	730(50.5)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672(6.9)	4,854(49.6)	61.107***
	한부모 가정	56(10.1)	259(46.8)	
	조손 가정	14(24.1)	18(31.0)	
	기타	13(15.9)	27(32.9)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737(7.1)	5,091(49.3)	17.905*
	다문화 가정	9(8.3)	58(53.7)	
	북한이탈 가정	7(23.3)	8(26.7)	
전체		753(7.2)	5,157(49.3)	-

* p<.05 ** p<.01 *** p<.001

먼저 중국, 일본과의 청소년 국제교류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들은 도움이 된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44.0%로 부정적인 의견(8.5%)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보통이다”라는 의견도 47.5%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의 응답은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62.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43.3%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해 그 집단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이다 .

성별로 볼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았고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 가정일수록, 다문화 가정일수록 높은 응답 비중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중국, 일본과의 국제교류활동이 주변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9.3%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7.2%로 머물렀다. 이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42.5%로 나타나 유보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국제교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68.9%가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반면,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48.4%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 수준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보다 높은 응답 비중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았고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중국, 일본과의 국제교류활동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면에서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함께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쟁과 갈등 극복에 대한 중국, 일본과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질문해 본 결과, 앞서 두 질문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46.5%로 부정적인 응답(7.2%)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제교류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응답 비중 역시 앞서 결과와 마찬가지로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긍정적인 응답 비중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다수 청소년들이 국제교류활동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4 중국과 일본 국제교류의 효과에 대한 견해 3

구분		경쟁과 갈등 극복에 대한 동의(%)		카이검정(χ^2)
		부정적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적 (그렇다+매우)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25(6.0)	267(63.9)	57.313***
	미참여	729(7.3)	4,601(45.8)	
성별	여학생	282(5.6)	2,355(46.9)	77.461***
	남학생	472(8.7)	2,514(46.1)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257(8.8)	1,239(42.3)	182.271***
	중학생	251(6.9)	1,658(45.6)	
	고등학생	246(6.3)	1,974(50.6)	
지역	대규모	311(6.8)	2,276(49.7)	41.000***
	중소도시	336(7.8)	1,875(43.6)	
	읍면지역	108(6.8)	720(45.5)	
학교 성적	상	209(6.2)	1,979(59.0)	376.195***
	중	300(6.8)	1,857(42.2)	
	하	238(9.0)	1,004(38.0)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324(7.1)	2,373(52.3)	173.463***
	중위	315(7.0)	1,821(40.7)	
	하위	114(7.9)	669(46.3)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679(6.9)	4,592(47.0)	50.946***
	한부모 가정	53(9.6)	238(43.1)	
	조손 가정	10(17.9)	14(25.0)	
	기타	11(13.6)	27(33.3)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736(7.1)	4,804(46.5)	37.373***
	다문화 가정	11(10.2)	60(55.6)	
	북한이탈 가정	8(25.8)	7(22.6)	
전체		755(7.2)	4,871(46.5)	—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 청소년들과 함께 국제교류활동을 할 때 공동의제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영토 분쟁 및 역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35 중국과 일본 국제교류 시 공동의제 견해(다중응답분석)

구분		원자력 안전	황사 및 미세먼지	생태계 보존	재해재난 예방	사이버 자유/ 보안	전통문화	영토 분쟁/ 역사 문제	인권/ 민주주의	대중문화	청소년 문제	과학기술	언어/ 문학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26.2	30.1	21.0	17.4	11.8	33.7	51.9	26.2	27.2	14.9	16.8	22.8
	미참여	34.6	39.6	24.1	21.7	9.1	26.6	46.0	24.7	16.7	13.3	20.9	22.1
성별	여학생	29.1	37.4	23.3	21.5	7.5	30.4	48.3	26.6	18.9	15.2	14.6	26.9
	남학생	39.1	40.8	24.6	21.6	10.9	23.7	44.4	23.0	15.5	11.8	26.4	17.7
학교급	초등학생(4~6학년)	37.3	47.4	29.3	24.2	11.3	29.5	28.4	18.3	7.3	10.6	30.9	24.9
	중학생	34.9	38.3	23.7	21.9	8.7	24.4	49.2	27.4	16.4	13.7	19.0	21.9
	고등학생	31.5	33.8	20.2	19.3	8.2	27.2	56.9	27.1	25.2	15.3	14.7	20.1
지역	대규모	34.6	37.9	22.6	21.0	9.2	28.2	47.5	24.4	17.7	13.7	21.4	21.5
	중소도시	33.2	40.0	25.0	21.9	9.2	25.9	46.4	24.9	16.4	13.7	20.2	22.2
	읍면지역	36.2	40.6	25.1	22.3	9.5	25.6	42.3	25.3	17.3	11.7	20.2	23.5
학교 성적	상	34.0	39.0	23.7	19.2	8.1	26.7	51.9	25.5	16.0	11.2	23.5	20.9
	중	34.7	40.6	25.0	22.9	9.6	26.0	44.0	22.9	16.8	13.4	21.4	22.3
	하	34.1	36.7	22.6	22.1	10.3	28.7	43.0	27.0	19.3	16.2	16.2	23.2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34.4	40.1	23.7	21.8	9.5	26.6	44.9	24.2	16.3	12.7	23.6	21.6
	중위	34.8	39.5	25.0	21.4	9.6	27.2	45.9	24.4	16.6	13.6	18.9	22.4
	하위	32.4	35.5	21.5	21.1	7.3	26.3	51.6	27.1	21.3	14.9	17.6	22.6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34.3	39.1	23.7	21.3	9.1	27.0	46.8	24.9	17.2	13.4	20.7	22.2
	한부모 가정	34.7	40.2	25.5	24.6	10.6	25.7	40.7	24.7	16.4	13.5	20.5	21.2
	조손 가정	30.7	47.1	27.9	29.9	16.7	20.7	36.1	13.1	14.2	15.0	25.9	18.8
	기타	36.1	38.0	38.9	23.7	12.6	26.8	29.9	13.5	15.2	13.2	31.0	20.1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34.3	39.2	23.9	21.5	9.2	26.8	46.3	24.8	17.2	13.5	20.7	22.0
	다문화 가정	31.1	35.0	26.2	22.9	11.4	33.5	44.4	22.2	14.4	7.5	21.4	28.0
	북한이탈 가정	28.2	35.1	25.2	29.4	14.3	28.1	35.6	16.1	14.6	12.4	32.1	28.8

두 번째로 청소년들이 많이 선택한 공동의제는 황사 및 미세먼지 대처와 같은 환경 문제로 13.1%였으며 마지막으로 원자력 안전 문제가 11.5%로 나타났다. 국제교류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영토 분쟁 및 역사 문제를 1순위로 꼽았고 이어서 미참여 학생들과는 달리 2순위로 전통문화를 꼽았으며 상대적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 청소년 국제교류 효과성 검증

(1) 글로벌 역량

이 절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 검증을 위해 매칭분석(CEM)방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칭 방법은 참여집단(실험집단)과 미참여 집단(통제집단)을 유사한 조건으로 매칭한 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실험방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 분석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표 III-36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청소년 국제교류 효과 매칭분석 결과(CEM 모형)

독립변수	매칭(matching) 전 결과	매칭(matching) 후 결과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참여=1)	.518(.048)***	.511(.049)***
성별(여성=1)	.235(.019)***	.253(.019)***
지역(대도시=1)	.034(.019)*	.026(.019)
학교교급(고등학교=1)		
초등학교	-.454(.024)***	-.459(.026)***
중학교	-.273(.023)***	-.288(.022)***
학업성적	.198(.014)***	.188(.014)***
자아존중감	.251(.014)***	.254(.014)***
가족의 경제적 수준	.085(.015)***	.082(.014)***
한부모 및 조손가정	-.020(.041)	-.016(.040)
다문화 및 북한이탈가정	-.087(.083)	-.088(.085)
잔여항	1.447(.054)***	1.470(.055)***
R-squared	0.1210	0.1221
Adj R-squared	0.1201	0.1212
표본수(N)	10,135	10,135

* p<.05 ** p<.01 *** p<.001

여기에서는 사전통제 변수로 성별과 지역, 학교급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표 III-36>은 매칭 전후로 독립변수인 국제교류 참여가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매칭 후에도 국제교류 참여 변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글로벌 역량 수준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다른 통제 변수들의 결과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글로벌 역량 수준이 높게 추정되고 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글로벌 역량 수준이 높게 추정되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한부모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 가정의 청소년들의 글로벌역량 수준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2) 세계시민의식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결과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앞서 제시한 글로벌 역량 분석과 마찬가지로이며 사전통제 변수로 활용한 것은 성별, 지역, 그리고 학교급이었다.

표 III-37 세계 시민의식에 미치는 청소년 국제교류 효과 매칭분석 결과(CEM 모형)

독립변수	매칭(matching) 전 결과	매칭(matching) 후 결과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참여=1)	.261(.033)***	.259(.032)***
성별(여성=1)	.132(.013)***	.132(.012)***
지역(대도시=1)	.046(.013)***	.040(.013)**
학교급(고등학교=1)		
초등학교	-.133(.016)***	-.120(.017)***
중학교	-.051(.015)**	-.056(.014)**
학업성적	.125(.009)***	.114(.009)***
자아존중감	.252(.009)***	.247(.009)***
가족의 경제적 수준	.040(.009)***	.036(.009)***
한부모 및 조손가정	-.006(.027)	-.001(.026)
다문화 및 북한이탈가정	-.085(.056)	-.100(.056)
잔여항	2.123(.037)***	2.179(.036)***
R-squared	0.1407	0.1360
Adj R-squared	0.1398	0.1352
표본수(N)	10,135	10,135

* p<.05 ** p<.01 *** p<.001

글로벌역량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다른 변수들을 모두 투입해 통제하고 참여와 미참여 집단을 유사한 집단으로 매칭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3) 다문화수용성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역시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의식과 더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국제교류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에게 발달지표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8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청소년 국제교류 효과 매칭분석 결과(CEM 모형)

독립변수	매칭(matching) 전 결과	매칭(matching) 후 결과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참여=1)	.264(.028)***	.267(.028)***
성별(여성=1)	.152(.011)***	.148(.011)***
지역(대도시=1)	.037(.011)**	.037(.011)**
학교교급(고등학교=1)		
초등학교	-.115(.014)***	-.103(.015)***
중학교	-.070(.013)***	-.069(.012)***
학업성적	.082(.008)***	.072(.008)***
자아존중감	.230(.008)***	.226(.008)***
가족의 경제적 수준	.011(.008)	.009(.008)
한부모 및 조손가정	.027(.024)	.035(.023)
다문화 및 북한이탈가정	.060(.048)	.036(.049)
잔여항	2.40(.032)***	2.44(.031)***
R-squared	0.1396	0.1323
Adj R-squared	0.1387	0.1315
표본수(N)	10,135	10,135

* p<.05 ** p<.01 *** p<.001

2. 중국 및 일본 국제교류 참여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와 더불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참가한 일본과 중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올해 국제교류 사업 참가자이며 사업 일정 및 참여인원은 <표 III-39>와 같다.

표 III-39 중국 및 일본 청소년 현황

국가	사업명	주관기관	일정	인원(명)	합계
중국	여성가족부 한·중 특별교류사업	한국스카우트연맹	2015년 9월, 7박 8일	96	264
		한국청소년연맹	2015년 10월, 7박 8일	168	
일본	여성가족부 국가 간 교류사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년 9월, 14박 15일	25	159
	교육부 한·일 중고생 교육교류	국립국제교육원	2015년 9월, 6박 7일	45	
			2015년 10월, 6박 7일	44	
			2015년 10월, 6박 7일	45	

본 조사의 목적은 한·중·일 청소년들의 동북아 평화공동체 관련 현안 및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다. 해당 문항은 한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문항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다. 또한 중일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 방문 일정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해당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총 16개이며, 중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번역하여 배포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국 및 일본 국제교류 참가자들의 기본 정보는 <표 III-40>과 같다. 성별로는 일본의 경우 여자가 71.1%로 많은 반면 중국은 남자가 53.5%로 더 많았다. 연령대로 보면 일본의 경우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국제교류 사업 참가자였기 때문에 10대가 86.7%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중국의 경우 30대가 58.2%, 20대가 25.5%, 40대가 15.1%로 대다수가 20대 이상의 성인이었다. 따라서 두 국가 간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 대상자 특성은 청소년 연령대보다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참가자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 이 절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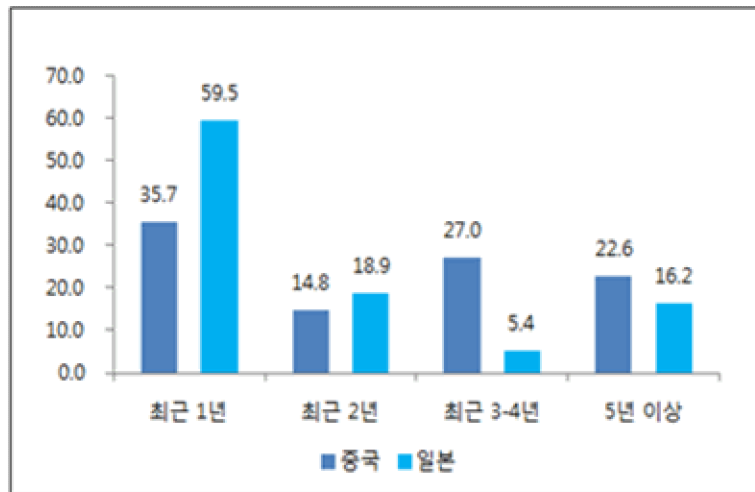
표 III-40 중국 및 일본 국제교류 참가자 대상 조사 항목

조 사 내 용		문항 수
개인 배경	성별, 나이, 국제교류 경험 등	7
국제교류활동 효과	한국 이미지 변화, 프로그램, 재방문 의사	3
동북아 평화공동체	동북아 국가 호감도 및 현안 인식	4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2
총 문항 수		16

표 III-41 중국 및 일본 참가자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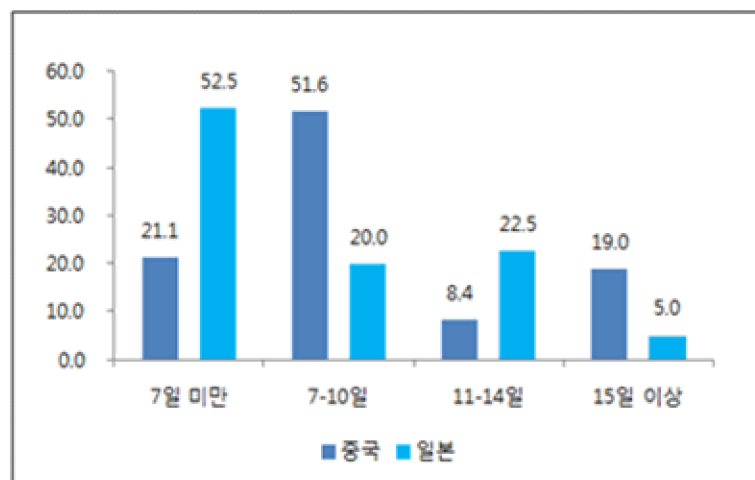
구분		중국		일본	
		빈도	%	빈도	%
전체		264	100.0	160	100.0
성별	남자	139	53.5	46	28.9
	여자	121	46.5	113	71.1
합계		260	100.0	159	100.0
연령대	10대	3	1.2	137	86.7
	20대	64	25.5	19	12.0
	30대	146	58.2	2	1.3
	40대	38	15.1	—	—
합계		251	100.0	158	100.0
상태	중학생	2	0.8	88	55.7
	고등학생	2	0.8	45	28.5
	대학생	32	12.3	20	12.7
	직장인	207	79.3	4	2.5
	기타	18	6.9	1	0.6
합계		261	100.0	158	100.0
해외체류경험	예	65	24.9	38	24.1
	아니오	196	75.1	120	75.9
합계		261	100.0	158	100.0
최근해외경험	예	99	38.1	46	29.1
	아니오	161	61.9	112	70.9
합계		260	100.0	158	100.0
참여경험	1회	175	68.9	139	89.1
	2회	50	19.7	13	8.3
	3회	23	9.1	1	0.6
	4회	1	0.4	1	0.6
	5회 이상	5	2.0	2	1.3
합계		254	100.0	156	100.0

다음으로 이번 일정을 제외한 과거 국제교류활동 시기를 보면 일본 참가자들의 경우 최근 1-2년의 비율이 높았고 중국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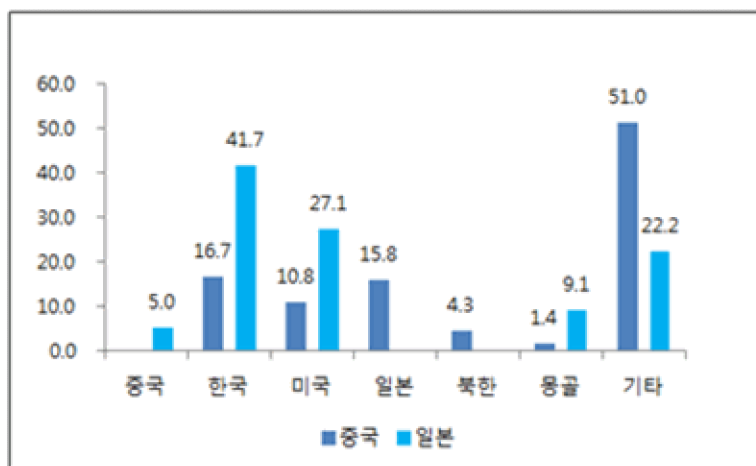
【그림 III-6】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국제교류 참여 시기(%)

국제교류 기간의 경우 중국 참가자들은 7-10일이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은 반면, 일본 참가자들은 7일 미만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중국 참가자들의 국제교류 참여 기간이 길었다.



【그림 III-7】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국제교류 참여 기간(%)

다음으로 이전에 참가한 국제교류활동의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 국가로는 양국 모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상대방 국가의 비율이 높았다. 기타 국가로는 중국 참가자의 경우 제시된 국가 이외에 29개 국가에 걸쳐 있었으며, 일본 참가자의 경우 8 개국으로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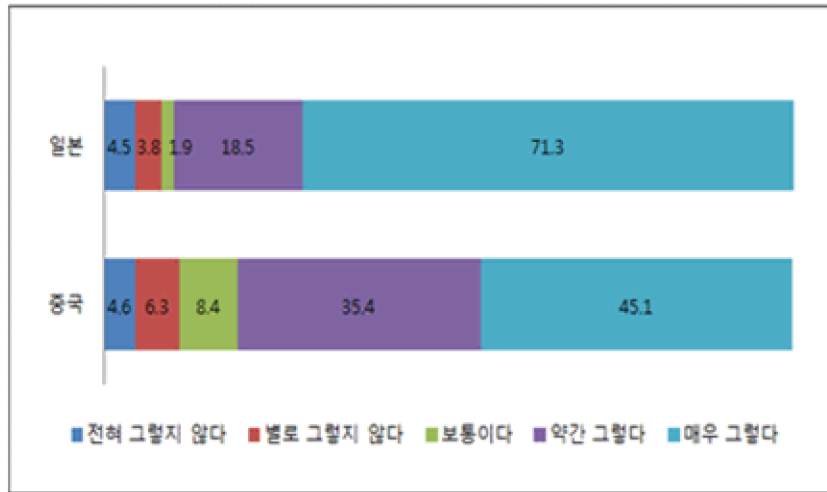


【그림 Ⅲ-8】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기존 국제교류 참여 국가(%)

또한 몽골을 방문한 중국 및 일본 참가자는 각각 1명씩 있었으며,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 참가자도 1명 있었다. 이러한 국제교류 활동 경험의 차이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국가 간의 차이이라기보다는 연령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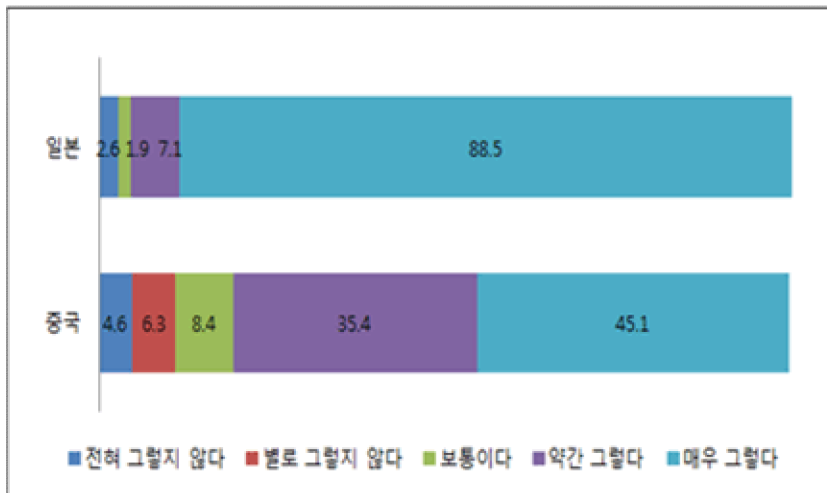
2)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국제교류활동 효과 비교

국제교류활동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뀌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양국 참가자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다. 일본 참가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71.3%로 매우 높은 반면 중국 참가자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45.1%), ‘약간 그렇다’(35.4%)로, 일본 참가자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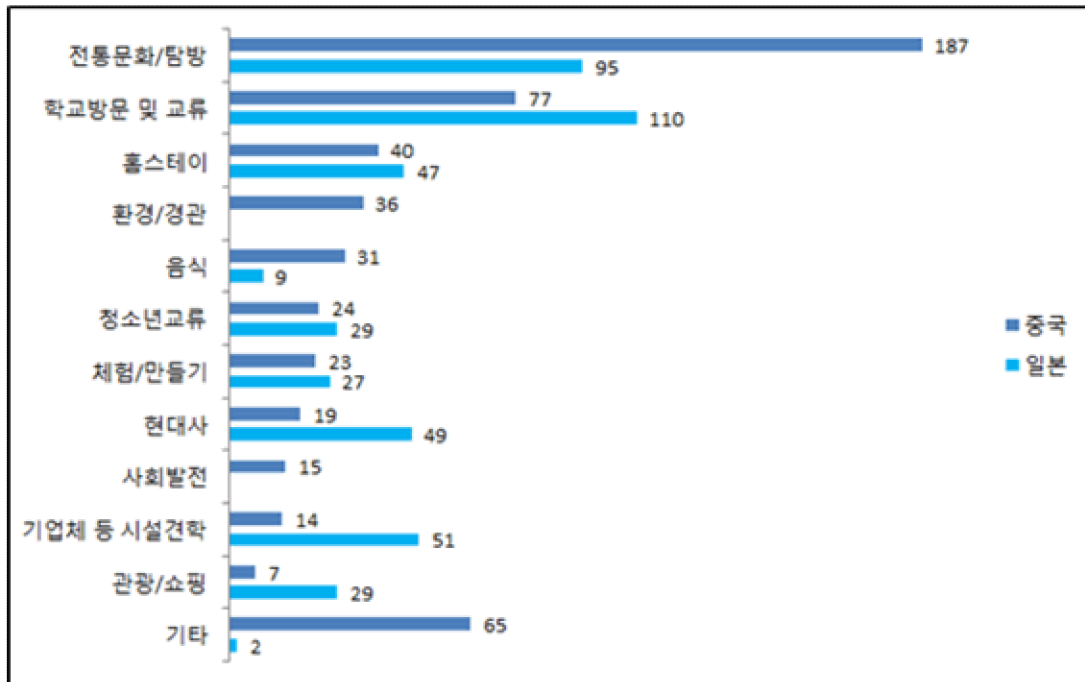
【그림 III-9】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한국에 대한 편견 변화(%)

한국 재방문 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도 유사하게 양국 참가자 모두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일본 참가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88.5%로 매우 높은 반면 중국 참가자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45.1%), ‘약간 그렇다’(35.4%)로, 일본 참가자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0】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한국 재방문 의사(%)

다음으로 이번 한국 방문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거나 친숙하게 느끼게 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중국과 일본 참가자 모두 전통문화 및 탐방과 관련된 경험, 그리고 학교 방문 및 교류 일정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일본 참가자들의 경우 학교방문 일정에 대한 언급 비중이 조금 더 높았는데, 응답자 다수가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 참가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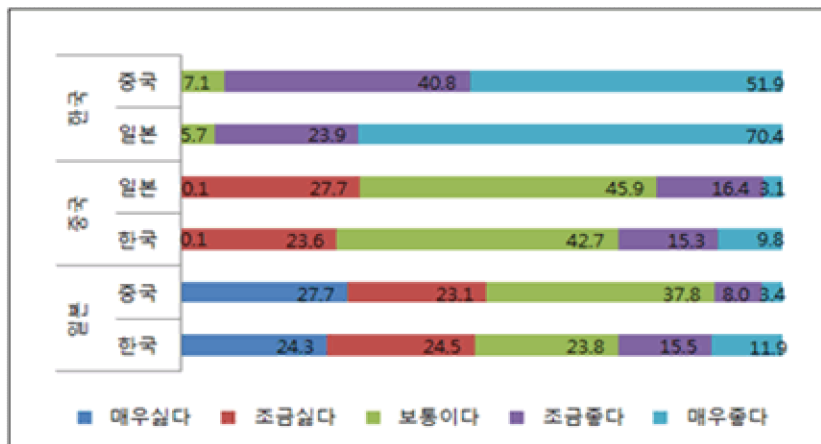


【그림 Ⅲ-Ⅱ】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이번 일정 중 도움이 되었던 경험

그 밖에도 홈스테이, 기업체 등 시설 견학, 청소년교류, 체험 및 만들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국 참가자들의 경우 이러한 일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깨끗한 환경 및 도시 경관과 사회 발전이 인상적이었다는 응답도 많았다. 그리고 DMZ 또는 서대문형무소 방문 등 동북아시아역 현대사와 관련된 일정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도 많았다. 중국 참가자들이 제시한 기타 의견으로는 양국 간의 우정, 한국인의 환대, 서비스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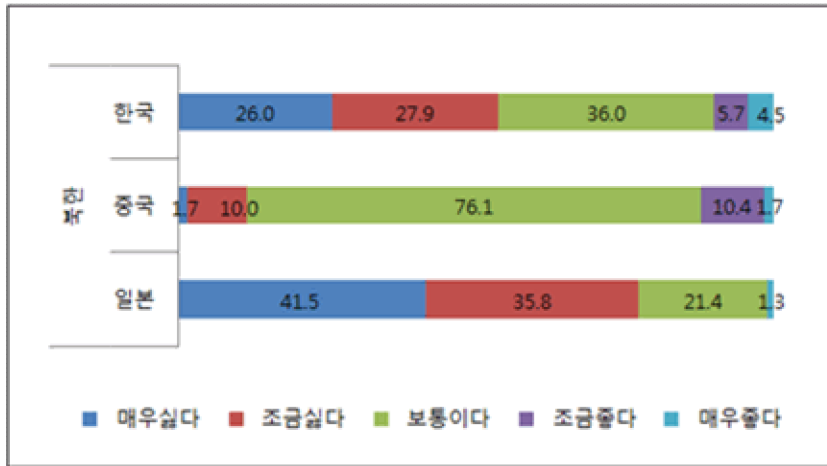
3) 한·중·일 국제교류참가자의 인식 비교

이번에는 앞선 절에서 제시하였던 한국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에서 국제교류 참가 경험자의 자료만을 추출하여 중국, 일본 국제교류 참가자와의 동북아 지역 및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세 나라 간 상대방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중국과 일본 참가자의 호감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국 참가자들의 경우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면서 호감도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일본과 한국 청소년의 호감도를 보면 ‘보통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조금 더 높았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보다 일본 청소년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호감도를 살펴보면, ‘조금 싫다’와 ‘매우 싫다’에 해당하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 호감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조금 좋다’와 ‘매우 좋다’의 비율이 중국의 경우보다는 약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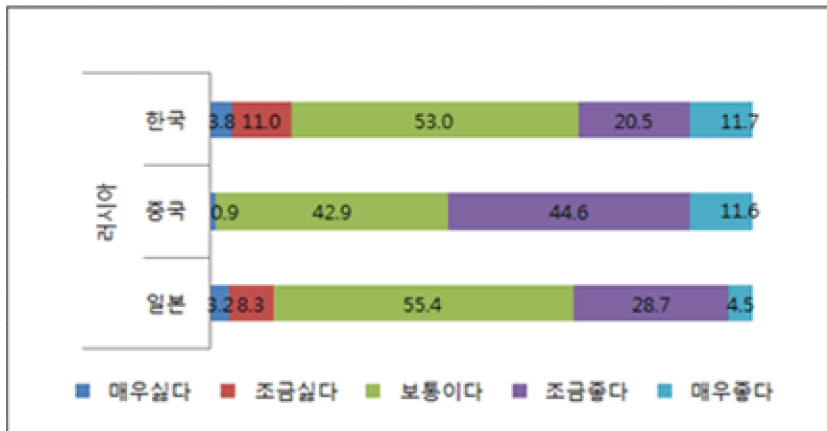
【그림 III-12】 한·중·일 국제교류 참가자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호감도(%)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중국 참가자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6.1%로 매우 높아 세 나라 가운데서는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매우 싫다’와 ‘조금 싫다’를 합한 비율이 절반 정도였고, 일본의 경우 80%에 이르러 가장 낮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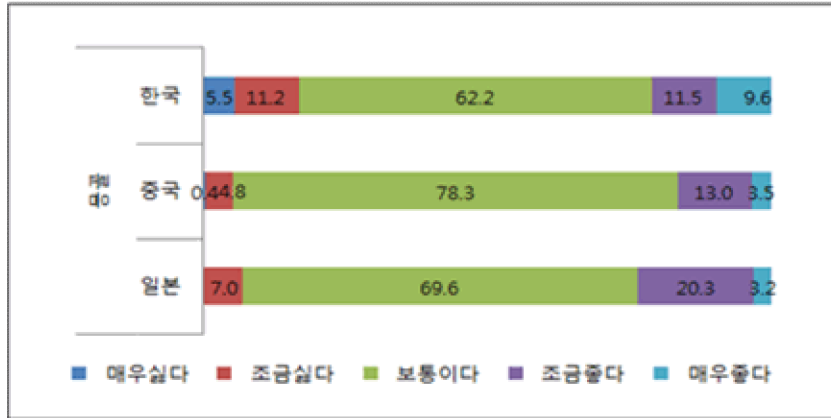
【그림 III-13】 한·중·일 국제교류 참가자의 북한에 대한 호감도(%)

러시아에 대한 3국 참가자들의 호감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통이다’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중국은 ‘조금 좋다’와 ‘매우 좋다’를 합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일본과 한국 청소년의 경우 3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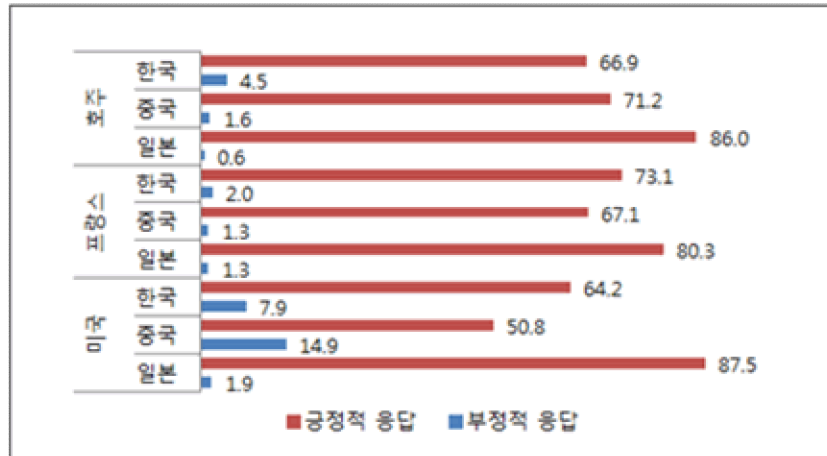


【그림 III-14】 한·중·일 국제교류 참가자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몽골에 대한 호감도 역시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다수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가운데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약 30%를 차지하였다. ‘조금 싫다’와 ‘매우 싫다’를 합한 비율은 3국 가운데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III-15】 한·중·일 국제교류 참가자의 몽골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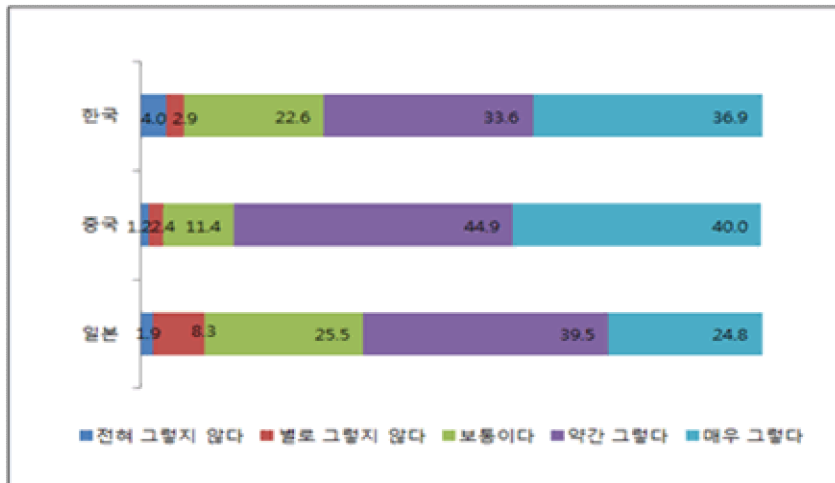


【그림 III-16】 한·중·일 국제교류 참가자의 동북아 지역 외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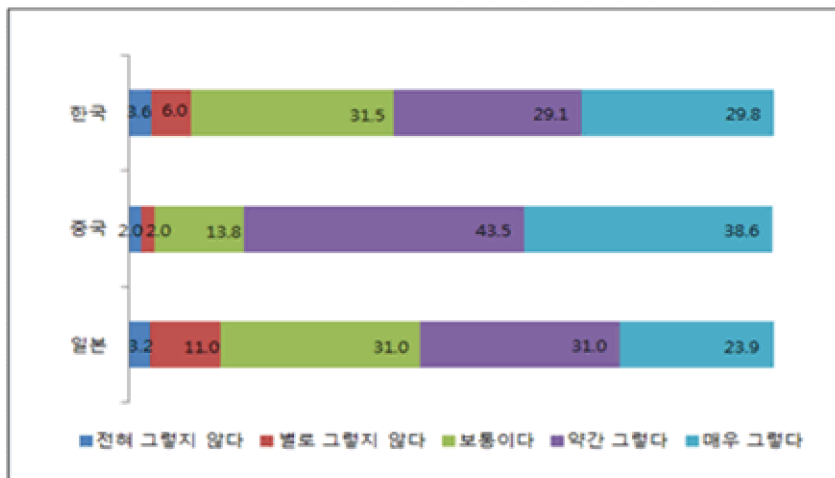
반면, 동북아지역 외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인식의 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 연결이 동북아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물었다.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3국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특히 한국은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70.5%인데 비하여, 중국은 84.9%를 나타내어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보통이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보적인 입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이 동북아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서 약간 낮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절반 정도를, ‘보통이다’의 비율은 31%대를 차지하여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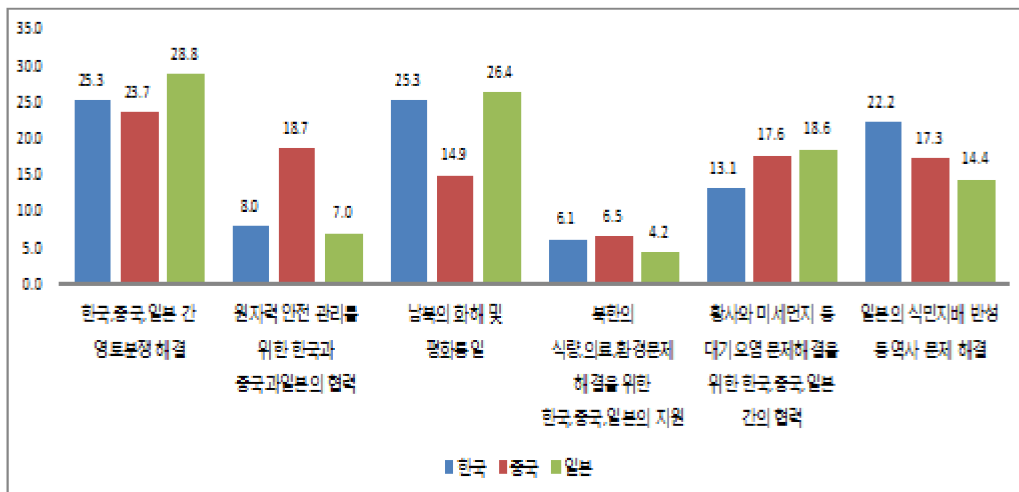
【그림 III-17】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의 효과: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이익(%)



【그림 III-18】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의 효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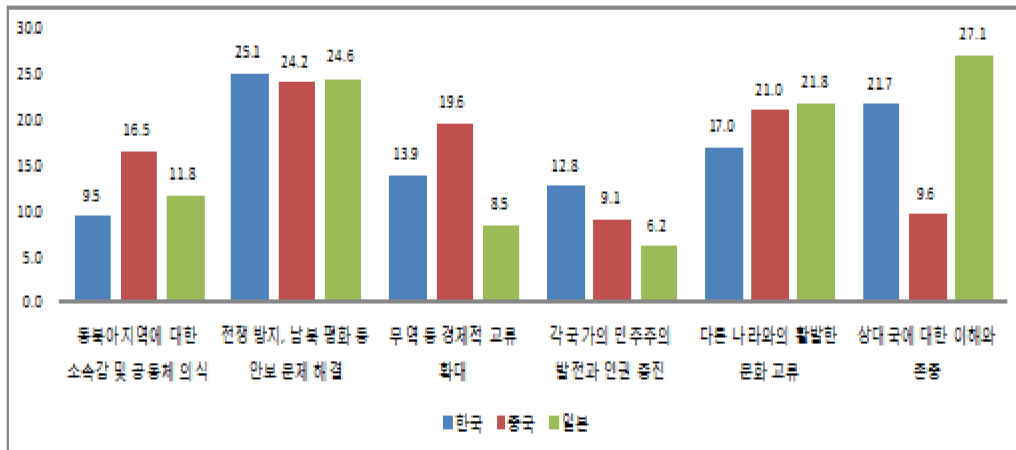
다음으로 동북아지역의 현안들을 제시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3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3국에서 공통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제시된 현안은 한국, 중국,

일본 간 영토분쟁 해결로 나타났으며 3국간의 응답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남북의 화해 및 평화통일이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응답 비율이 25%를 넘는데 비해 중국은 1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 현안으로 제시된 일본의 식민지배 반성 등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응답 비율이 조금씩 낮아졌다. 황사와 미세먼지 관련 문제는 반대로 한국의 관심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자력 안전 관리 문제는 일본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북한 지원 문제는 세 나라 모두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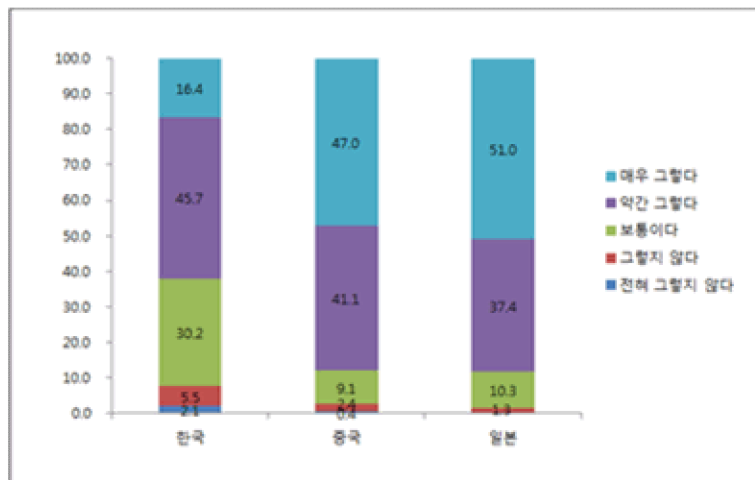
【그림 III-19】 동북아 지역의 시급한 현안(%)

이번에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전쟁 방지, 남북 평화 등 안보 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3국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언급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는데 특히 일본 참가자들의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무역 등 경제적 교류 확대, 그리고 동북아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은 중국 참가자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은 한국, 중국, 일본 순서로 의견 수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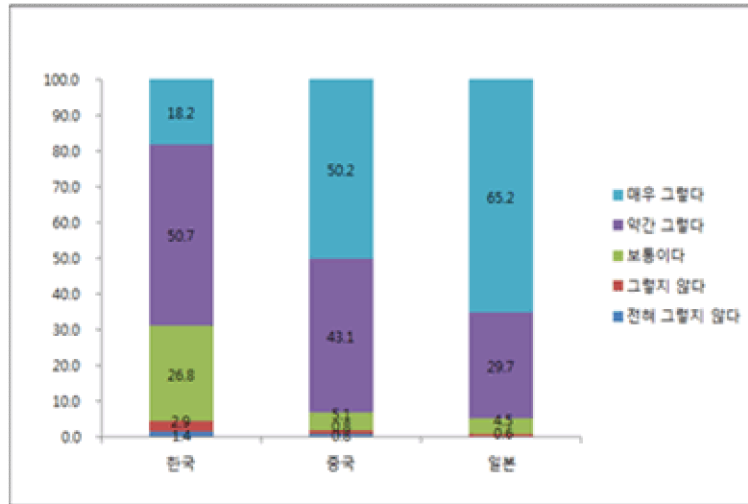
【그림 III-20】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다음으로 한·중·일 간의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국제교류 활동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문항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의 비율이 8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 62.1%로 상대적으로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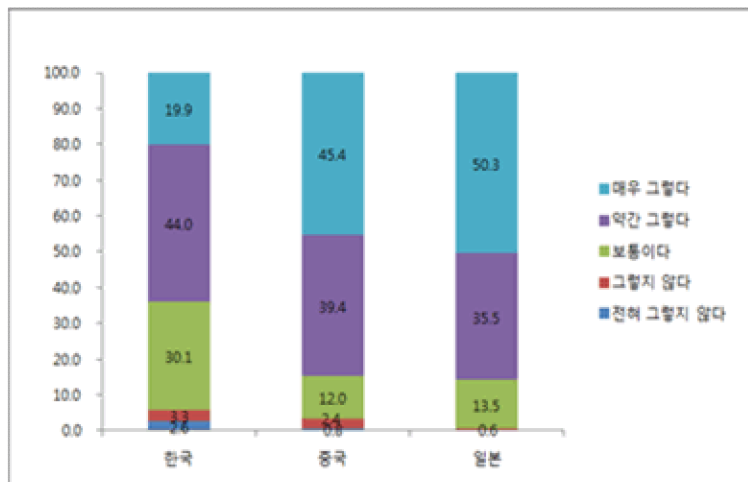


【그림 III-21】 한 · 중 · 일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 동북아지역 평화와 공존에 기여(%)

이번에는 국제교류활동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물었는데,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비율이 높았지만 3국 가운데 한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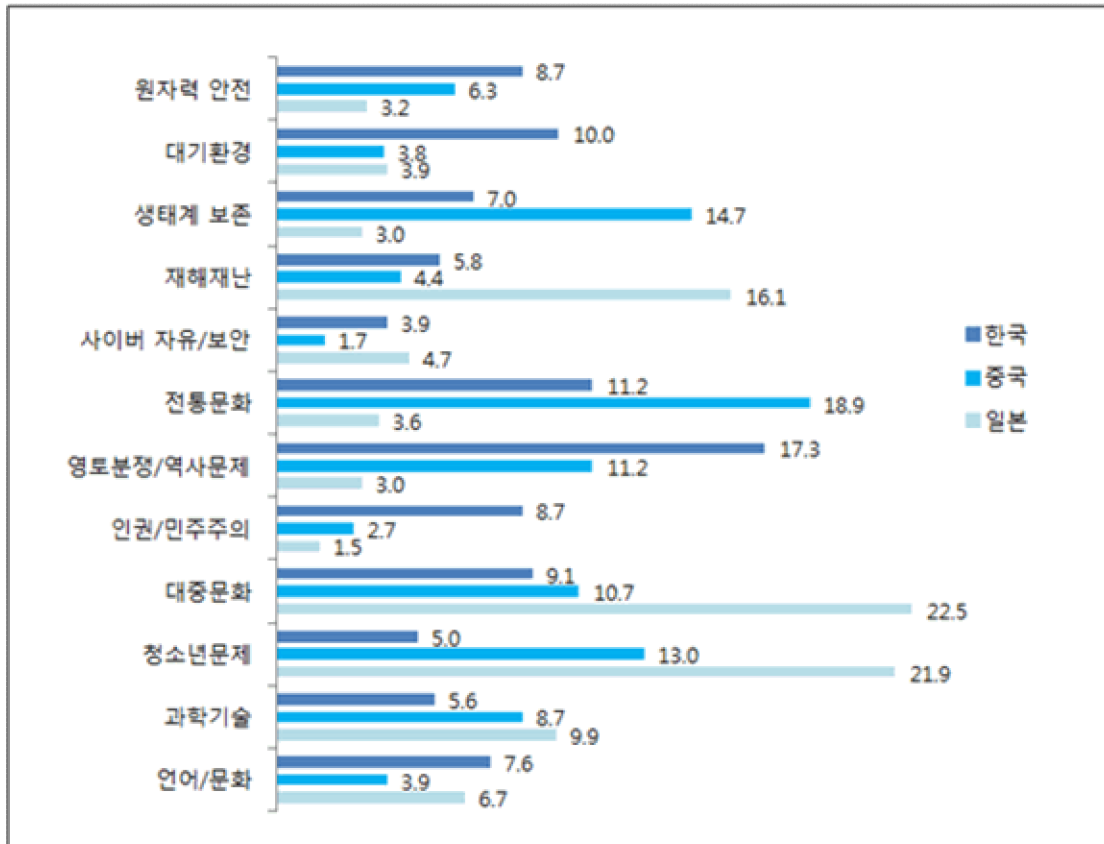


【그림 III-22】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 상대국의 문화와 역사 이해 증진에 기여(%)



【그림 III-23】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 경쟁과 갈등 극복 및 협력에 도움(%)

국제교류활동이 동북아지역의 경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 참가자의 인식이 한국에 비하여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두 나라 참가자의 경우 국제교류 참가 일정 중에 설문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가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I-24】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공통의제

마지막으로 동북아 청소년 교류활동에서 교류 의제로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우선 대중문화와 청소년 문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선택 비중이 높았고, 3국 가운데서도 일본 참가자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선호하는 주제로 나타났다.

반면 3국간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주제들도 있었다. 전통문화와 영토 분쟁 및 역사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높은 선호도에 비해 일본 참가자의 선호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앞서 동북아지역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3국 모두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를 꼽은 것을 볼 때, 일본 참가자들은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청소년 국제교류의 의제로는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계 보존 및 환경 문제는 중국 참가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재해·재난 예방과 해결은 일본 참가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 참가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원자력 안전, 황사 및 미세먼지 대처, 그리고 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 주제로 나타났다. 그 밖에 과학기술, 언어 및 문학 관련 주제도 상당 수

있었다. 과학기술의 경우 일본과 한국 참가자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언어 및 문학 관련 주제의 경우 일본과 중국 참가자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와 보안 문제는 제시된 의제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한·중·일 3국 간에는 국제교류 참가 경험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나라에 대한 호감도와 동북아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러한 결과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한·중·일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IV 장

해외 사례 분석

1.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시사점
2.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시사점

제 IV 장 해외 사례 분석

1.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시사점*

1) 청소년 국제교류의 역사

다나카(田中)(1998)는 1945년 이후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가 민간 차원의 청소년단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YWCA, 보이스카우트, 적십자 등과 같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청소년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재정 여건상 일본 정부보다는 미국의 자금 또는 민간의 지원에 의해 청소년 국제교류가 이루어졌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인 195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내각부(内閣府)의 자료³³⁾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1959년(昭和34年) 당시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하여 「청년해외파견(青年海外派遣)」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미국 일변도였으나, 이 사업을 계기로 교류국가 및 지역이 남아메리카, 유럽, 미국, 아시아, 호주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67년에는 메이지(明治)백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의 배(青年の船)」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 청소년들이 해외를 경험하기 힘든 시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로 청소년 해외파견사업과 청소년의 배 사업과 같은 국제교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후 일본과 아세안 5개국(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1974년에는 「동남아시아청소년의 배」 사업을 발족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 이 절은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학교)가 집필하였음.

33) 内閣府 <http://www8.cao.go.jp/> 2015년 8월 12일 인출.

경과함에 따라 참여국가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는데, 1985년부터는 브루나이, 1996년에는 베트남이, 1998년에는 라오스, 미얀마가 그리고 2000년에는 캄보디아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1979년에는 일중(日中)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기념하여 일본·중국청년친선교류(日本中國青年親善交流) 사업이 그리고 8년 후인 1987년부터는 일한국교정상화 2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한국청년친선교류(日本韓國親善交流) 사업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상 제고와 역할 증대를 목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기존의 「청년의 배(青年の船)」 사업을 확장한 「세계청년의 배(世界青年の船)」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들이 청소년들을 단순히 해외에 파견하여 견문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세계청소년의 배 사업은 참여 국가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해외 청소년들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4년에는 황태자의 결혼(ご成婚)을 기념하여 「국제청년육성교류(國際青年育成交流)」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종전의 「청년해외파견」 사업, 「외국청년초빙」 사업을 발전시킨 것으로, 청소년들이 참여국가에 체류하면서 현지 청소년들과의 교류 및 공동체험을 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제1회 파견국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이다. 2002년부터는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청년리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사회활동 코어 리더 육성 프로그램(青年社會活動コアリーダー育成プログラム)」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국제청년육성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청소년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외국의 청소년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토론하는 사업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2009년에 제정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에서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2조(기본이념)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적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4장(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서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의 설치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 본부는 2010년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을 응원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아동청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이하, 비전)을 책정하였다. 이 비전의 제2장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을 크게 아동 및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 아동, 청소년은 성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파트너, 자아를 확립하여 사회의 능동적 형성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 및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종합적 지원, 성인사회의 환경 개선 등과 같은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3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사회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이다.³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정책과제 영역 가운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또는 국제적 차원의 시야(視野)의 배양 그리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청소년을 초빙, 파견하는 국제교류, 다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시스템

기본적으로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내각부 공생사회(共生社會)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통괄관(政策統括官)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공생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정책통괄관 내 청소년관련업무로는 청소년 기획, 청소년 지원, 청소년 환경 정비, 청소년 국제교류 등이 있다. 내각부에서는 국가 간 청소년교류사업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 또는 선발된 청소년에 대하여 사전연수, 파견, 사후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사전연수 및 파견 시 일정 조정 등과 같은 업무는 청소년 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하며, 사후관리는 일본청소년 국제교류 기구(IYEO)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34) 内閣府(2015). 『平成27年版子ども・若者白書』(全体版) <http://www8.cao.go.jp/2015년> 11월 5일 인출.



*출처 : 一般財団法人 青少年国際交流推進センター (2014). 『事業報告書(付属明細書)』

【그림 IV-1】 일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추진체계도

문부과학성은 유학생 유치 및 파견사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외무성은 일본의 국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양한 국가에 청소년을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21세기 동남아시아청소년 교류계획(JENESIS Programme, 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를 들 수 있다.

(1) 일본청년 국제교류기구(日本青年國際交流機構, IYEO)

일본청년 국제교류기구는 1959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일본 정부(내각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참여 청소년들이 국제교류를 통해 얻은 국제적인 안목과 경험을 국제사회의 친선과 사회 공헌에 기여토록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기구는 청년해외파견사업의 참가자들이 1961년에 결성한 모임인 「일본청우회(日本靑友會)」와 청년의 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1968년에 결성한 모임인 「청년의 배 모임(靑年の船の會)」(1974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사업 참가자 포함)가 1985년에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2015년 현재 회원은 총 1만 5천명에 달하며, 전국에 47 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내각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일본청년 국제교류기구 가입(가입비 3만엔)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참여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 출처 : 日本青年国際交流機構 <http://www.iyeo.or.jp/> 2015년 8월 2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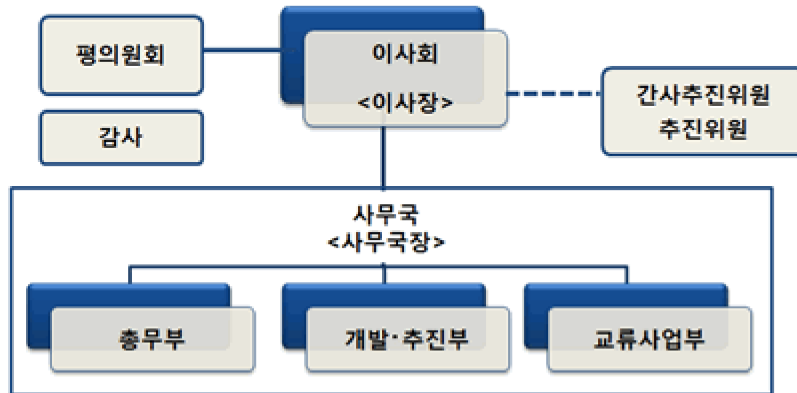
【그림 IV-2】 일본 청년 국제교류기구 조직도

(2) 청소년 국제교류지원센터(青少年国際交流支援センター)

청소년 국제교류지원센터는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 지원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의 육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기획, 실시 및 협력,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개발 및 연수,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출판물의 발간,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지원, 컨설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소개하면, 먼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지원프로그램」은 외국인 강사를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외국인 강사의 모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스터디 투어」는 각 지역의 청소년들 가운데 국제교류활동에 관심과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태국에 파견하여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함께 태국 지역의 장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아동양호시설 방문, 홈스테이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 (2014)³⁵⁾에 의하면,

35) 一般財団法人 青少年国際交流推進センター(2014). 『事業報告書(付属明細書)』 <http://www.cenierye.org/> 2015년 8월 21일 인출.

2014년에 청소년 2명을 포함한 9명이 8박9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에 파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리더양성세미나(國際交流リーダー養成セミナー) 사업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제화에 대한 대응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토록 구성되어 있다.



*출처 : 一般財団法人 青少年国際交流推進センター(2014). 『事業報告書(付明細書)』 <http://www.cenrye.org/> 2015년 8월 21일 인출.

【그림 IV-3】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센터 조직도

(3)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獨立行政法人國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는 2006년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자립을 목표로 「독립행정법인 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獨立行政法人オリンピック青少年総合センター)」, 「독립행정법인국립청년의 집(獨立行政法人國立青年の家)」, 「독립행정법인국립소년자연의 집(獨立行政法人國立少年自然の家)」이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교육사업, 연수지원사업, 조사연구사업, 조성사업, 체험의 바람을 일으키자(体験の風をおこそう)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주로 교육사업 영역과 조성사업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육사업 영역에서 청소년 또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크게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³⁶⁾ 세부적으로는 일본과 독일 청소년지도자 세미나, 일본과 한국 대학생 토론회, 일본과 독일 근로청소년 교류사업, 일본과

36)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http://www.niye.go.jp/> 2015년 8월 20일 인출.

독일 청소년리더교류사업, 일본과 한국 고등학생 교류사업, 재일본 유학생 교류사업, 미크로네시아 제도 자연체험교류사업, 아세안가맹국 중학생초빙사업 등이 있다. 각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IV-1>과 같다.

한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가운데 위의 사업들과는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일중한 아동동화교류사업(日中韓子ども童話交流事業)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일중한국민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일본의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 연맹(子どもの未來を考える委員連盟)’이 제창하여 2002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아동의 독서활동 또는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아동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동꿈기금(子どもゆめ基金)」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 연맹과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적인 역할은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사업 실행위원회(日中韓子ども童話交流実行委員会)가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중국관심 하일대공작위원회(中國關心下一代工作委員會)³⁷⁾가 참여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일본에서만 개최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중국과 한국을 순회하며 사업이 실시되었다.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사업 실행위원회의 자료³⁸⁾에 따르면, 2012년 현재 983 명의 아동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0년도부터는 사후관리적 차원에서 아동기 시절에 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OB교류회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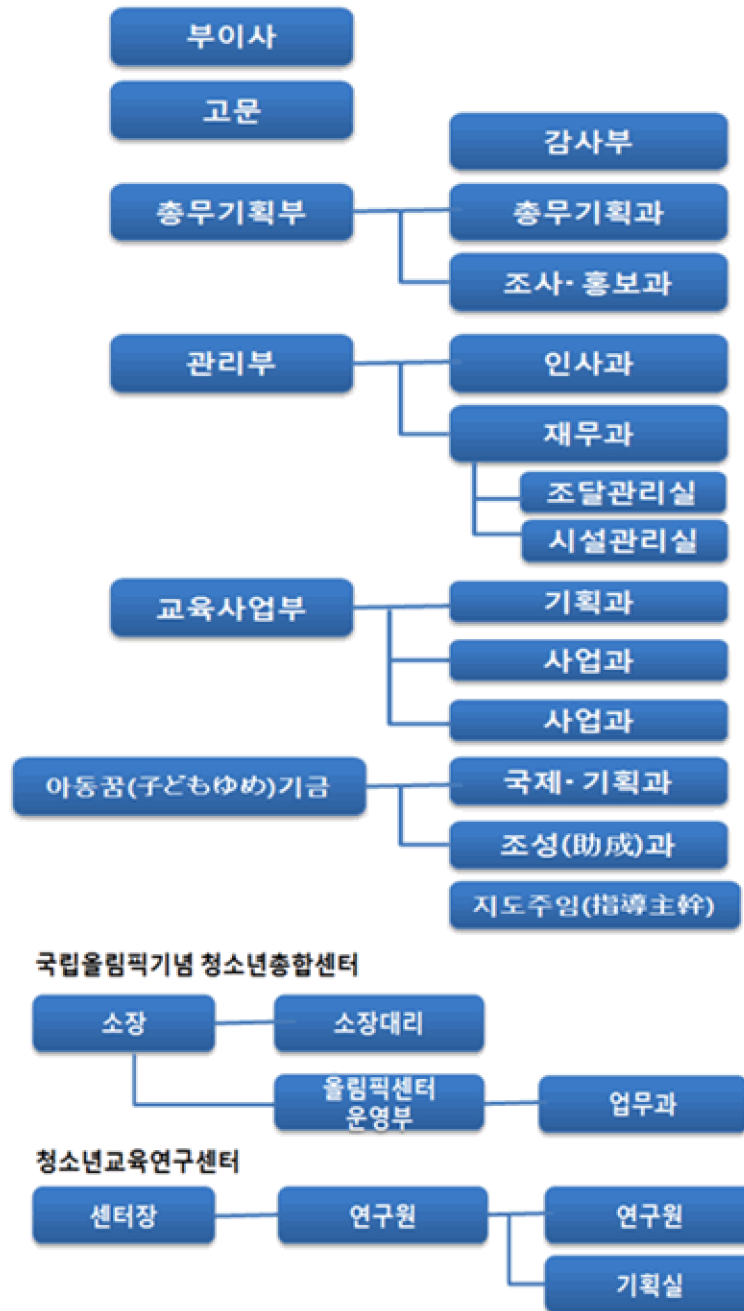
37)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차원의 위원회.

38)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사업 실행위원회 <http://www.douwa-kids.com/> 2015년 8월 20일 인출.

표 IV-1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2014년)

사업명	사업개요	비고
일본, 독일 청소년지도자 세미나	공통의 주제인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사회로의 이행', '사회차원에서 청소년을 육성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별로 그룹을 나눈 다음, 일본과 독일의 행정기관, 관계단체 및 시설 등의 체험과 청소년교육지도자와의 연구협의 등을 실시하며, 청소년교육지도자의 자질, 능력의 향상과 동시에 양국의 이해와 친선을 도모함	초청, 파견
일한대학생토론회	일본과 한국의 대학생이 청소년교육시설 등에서 교류, 활동을 통하여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파트너십의 구축'에 대해 협의하고 그 실현을 위한 '일한미래프로젝트'를 발표함으로써 국제적인 시야와 자질을 가진 청소년을 육성함	초청
일독근로청소년 교류사업	일본과 독일의 근로청소년이 '일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의 현장에서 기업연수, 의견교환, 홈스테이 등과 같은 체험을 통하여 양국 근로청소년의 상호이해와 교류발전을 도모함	초청, 파견
일독학생 청년리더교류사업	일본과 독일의 청소년단체 등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학생, 청소년 등이 '청소년의 사회참여'라는 주제하에 문화체험, 의견교환,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해 생각함과 동시에 청소년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일본과 독일의 상호이해와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함	초청, 파견
일한 고등학생교류사업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일한공동미래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과 한국 양국 청소년을 통하여 우호친선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적인 시야와 자질을 갖춘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교류를 추진함.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간의 상호교류 추진이 본 사업의 목적임.	초청, 파견
재일본 유학생교류사업	해외 청소년과 일본 청소년들이 함께 설 체험을 함. 유학생과 일본학생 모두가 일본에서 연말연시 행사, 문화를 접해 봄으로써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초청
미크로네시아제도 자연체험교류사업	미크로네시아제도에 일본 청소년을 파견하고, 현지 청소년을 일본에 초청하여 자연, 이문화(異文化) 및 동세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필요성 등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	초청, 파견
아세안가맹국 중학생초빙사업	아세안 국가에서 일본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 중학생을 초청하여, 국립 청소년교육시설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연체험, 문화체험,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며, 일본의 청소년들에게는 국제적인 안목의 배양, 차세대 리더의 양성에 사업의 목적이 있음.	초청

* 출처 :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http://www.niye.go.jp/> 2015년 8월 20일 인출.



*출처 :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http://www.niye.go.jp/> 2015년 8월 20일 인출.

【그림 IV-4】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조직도

4) 내각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내각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의 개요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1994년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일본의 청소년을 캄보디아, 도미니카공화국, 리투아니아 등의 국가에 파견하며, 현지 청소년들과 상호교류, 일본문화 소개와 상호 문화 이해, 국제협력 활동체험, 그리고 홈스테이 등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일본·한국청년친선교류 사업은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984년 일본·한국공동성명 및 1985년 일한국교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하여 198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표 IV-2 연도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예산

(단위: 천엔)

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사업	638,542	638,844	628,798	632,146	629,125
세계 청년의 배 사업	596,167	592,370	519,495	391,903	-
일본·중국 청년 친선교류사업	29,395	29,395	29,395	27,687	27,466
일본·한국 청년 친선교류사업	29,480	29,480	27,063	25,293	26,611
국제 청년 육성교류 사업	141,418	141,418	135,371	114,358	141,184
청년사회활동 코어 리더 육성 프로그램	92,096	92,096	87,542	86,926	
글로벌 리더 인재육성 사업	-	-	-	-	201,489
활동충실강화경비	52,529	41,282	35,916	34,122	25,635
합 계	1,579,627	1,564,885	1,463,580	1,312,435	1,051,510

* 출처 : 内閣府 共生社会政策統括官(2012). 「青年国際交流事業の効果測定・評価に関する検討会」の開催について(資料1).

표 IV-3 내각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개요(2013년도 파견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국제청년육성교류	○ 1994년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2013년 현재 20회째를 맞이함 ○ 캄보디아, 도미니카공화국, 리투아니아에 16명의 청소년을 18일 간 파견 ○ 방문국에서는 현지 청소년들과의 교류 및 상호 국가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일본문화 소개, 국제협력활동, 홈스테이를 체험함. 또한 귀국 후 국제 청소년교류회에서는 일본으로 초청한 외국 청소년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전 지구적 차원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토론 실시

사업명	사업내용
일본-한국청년친선교류	○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984년 일본-한국공동 성명 및 1985년 일한국교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하여 198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3년 현재 27회를 맞이함 ○ 한국에 25명의 일본 청소년을 15일간 파견. 현지에서는 현지 청소년과 상호 국가의 사회사정에 관한 토론, 문화스포츠 교류, 교육문화복지산업 등 각종 시설을 방문, 홈스테이를 실시
일본-중국청년친선교류	○ 일본과 중국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979년 일중평화우호 조약 체결을 계기로 실시한 사업으로, 2013년 현재 35회째를 맞이함 ○ 중국에 20명의 청소년을 10일간 파견함. 현지에서는 현지 청소년들과 양국의 경제와 사회에 관한 의견 교류, 문화스포츠 교류, 교육문화복지산업 등 각종 시설 방문, 홈스테이를 실시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 일본과 아세안 국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본과 아세안 국가 간의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197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현재 40회째를 맞이함 ○ 일본 청소년 약 40명과 아세안 10개국 청소년 약 280명이 약 50일 간의 국내활동, 배를 이용한 아세안 각국 방문, 각 기항(寄港)지에서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실시. 선내에서는 다문화이해, 환경, 교육 등을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는 한편, 각 국가의 사회사정의 소개, 문화 및 스포츠 교류 실시. 방문국에서는 정부관계기관 등을 방문(表敬), 현지 청소년들과의 교류, 홈스테이, 각종시설을 방문
글로벌리더육성사업	○ 「청년의 배」 사업 및 「세계 청년의 배」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여 재구성. 2013년도에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 ○ 급속하게 발전하는 글로벌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일본 청소년 약 90명과 세계 8개국 청소년 약 70명이 일본 국내에서 8일간 육상연수 및 9일간의 선상(船上)연수를 실시. 또한 일본 참가 청소년은 선상연수 종료 후 토론한 주제에 따라 4개국(바레인, 피지, 멕시코, 터키) 가운데 1개국을 방문함
청년사회활동 코어 리더 육성 프로그램	○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문제 등 사회활동에 종사하게 될 일본 청소년 (각 8개 분야)을 덴마크(노인문제), 뉴질랜드(장애인), 영국(청소년)에 10일 간 파견하며, 각 분야의 사회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육성 ○ 방문국에서는 정부 관계기관 또는 시설 등을 방문, 파견 분야의 배경 사정 또는 사회활동에 관한 선진적 정책 및 사례 등에 대해 학습

* 출처 :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http://www8.cao.go.jp/> 2015년 8월 20일 인출

표 IV-4 2015년 내각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세부내용

사업명	일본-중국 청년친선 교류사업	일본-한국 청년친선 교류사업	차세대 글로벌리더 사업	청년사회봉사활동 코어 리더 육성 프로그램
방문국	중국	한국	인도, 스리랑카 (세계 10개국의 외국 청소년 120명과 함께 배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각 국을 방문)	독일 (고령자관련활동) 영국 (장애인관련활동) 오스트리아 (청소년관련활동)
실시시기	8월24일~9월4일	9월10일~24일	2016년 1월20일~2월29일	10월11일~10월20일

사업명	일본중국 청년친선 교류사업	일본한국 청년친선 교류사업	차세대 글로벌리더 사업	청년사회봉사활동 코어 리더 육성 프로그램
실시기간	12일	15일	육상연수 7일 선상연수 34일	10일
모집인원	25명	25명	120명	각국 8명
자격 요건 등	국적	일본 국적 소지자		
	연령	18세~30세		
	사후 활동	프로그램 참가 후 국제교류활동, 청소년활동 등 사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		
	어학 능력 등	방문국의 공용어로 간단한 일상회화가 가능한 자	교류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가진 자	원칙적으로 노인, 장애인, 청소년관련의 사회활동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영어로 간단한 일상회화가 가능한 자)
	기타	이전에 내각부에서 실시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참가비	9만 엔 정도	8만 엔 정도	28만 엔 정도	10만 엔 정도
사후활동	각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내각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참가한 청소년 등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사후활동조직)에 입회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입회비 3만엔)			
응모창구	내각부 청소년 국제교류담당실			

* 출처 :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http://www.niye.go.jp/> (2015년 8월 20일 인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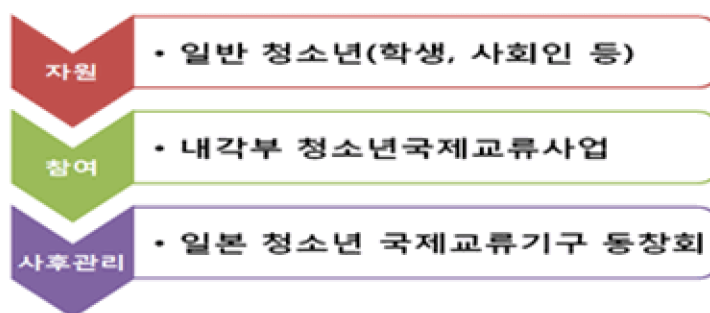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사업은 일본과 아세안 국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본과 아세안 국가 간의 공동 성명에 기초하여 197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일본 청소년 약 40명과 아세안 10개국 청소년 약 280명이 약 50일 간의 국내활동, 배를 이용한 아세안 각국 방문, 각 기항(寄港)지에서 다양한 교류활동을 실시한다. 「글로벌리더육성사업」은 「청년의 배」 사업 및 「세계 청년의 배」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글로벌한 시야와 안목을 가진 청소년리더의 육성을 목적으로 2013년도에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사회활동 코어 리더 육성 프로그램」은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문제 등 사회활동에 종사하게 될 일본 청소년(각 8개 분야)을 덴마크(노인문제), 뉴질랜드(장애인), 영국(청소년)에 10일간 파견하며, 각 분야의 사회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각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예산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13억 엔 수준이다. 이는 2001년의 19억 엔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해가 거듭함에 따라 그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사업 규모면에서는 동남아시아청년의 배 사업이

약 6억2천만엔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2013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글로벌 리더 인재육성 사업이 2억엔, 국제 청년 육성 교류사업과 청년 사회활동 코어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 약 1억 4천만엔 규모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2-3천만엔 수준에 머물고 있다.

5)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³⁹⁾

내각부의 국제교류 사업에 참가한 청소년 및 성인들을 사후관리하는 조직으로는 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가 있다. 이 기구가 추구하는 사후활동의 방향은 크게 청년층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 활동이다.



【그림 IV-5】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체계도

표 IV-5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자 사후관리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전국적인 활동	
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 전국대회	○ 내각부,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각 지역별 사후활동 추진상황을 보고 ○ 전국적인 사후활동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 국제교류활동 및 지역사회의 제반 활동의 추진에 대한 기여 방안 및 일반인에 대한 국제교류 사업 안내 방안 검토
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 전국추진회의	○ 본부 임원 및 각 지역 대표자가 연 2회 모여 조직 및 사업 운영 등에 대해 토의
권역별 청소년 국제교류를 생각하는 모임	○ 8개 권역에서 회원들 모두 모여 재일외국인 또는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보 전반에 관한 정보 교류 ○ 각 지역별 자체 프로그램 운영

39)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http://www.niye.go.jp/> 2015년 8월 20일 인출.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별 임원 연수	○ 본부 임원 및 지역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 ○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단위에서 IYEO 활동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적 차원의 조직으로서의 기반 확립 지향
내각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보고회	○ 내각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참여를 통해 얻은 경험 및 성과를 보고 ○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기획, 운영 담당
지역적인 활동	
권역별 자체사업	○ 총 8개의 권역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 인근 권역의 조직과 교류활동
지역별 국제교류프로그램	○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실행위원회를 구성 ○ 내각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초청사업) 참여 청소년이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토론, 전통문화체험 스포츠 교류, 각종 시설 견학, 홈스테이 등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관련단체와의 교류	○ 글로벌 페스타 재팬 등과 같은 단체 사업에 참여
국제적인 활동	
SWYAA	○ 세계청년의 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만든 사후활동조직 ○ 세계 45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중국파견단동창회	○ 일본과 중국의 청년친선교류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일중 우호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
일한청소년친선교류 사업 참여청소년 활동	○ 일본한국청소년친선교류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일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한 교류연락회의 등을 실시
국제청소년육성교류사업 참여청소년 활동	○ 국제청소년육성교류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
청소년사회활동 코어 리더 육성 프로그램 참여청소년 활동	○ 청소년 사회봉사활동 코어 리더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

*출처: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http://www.niye.go.jp/> (2015년 8월 20일 인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은 크게 전국적인 활동, 지역적인 활동, 국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전국적인 활동으로는 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 전국대회, 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 전국추진회의, 권역별 청소년 국제교류를 생각하는 모임(青少年の国際交流を考える集い), 지역별 임원 연수, 내각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보고회 등이 있다.

6) 소결 및 시사점

이상과 같이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오랜 역사를 통해 그 사업 내용과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왔다. 이에 검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관(官)(내각부, 외무성, 문부과학성,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民)(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사업의 목적도 매우 명확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추진 시스템에 있어서는 참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선발은 지방자치단체와 내각부가, 사전교육은 청소년 국제교류센터가 담당하고 사후관리는 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IYEO)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은 각 사업별로 친선,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의 양성,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 제고 등과 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내용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무성은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양한 국가에 청소년을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21세기 동남아시아청소년 교류계획(JENESIS Programme, 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를 들 수 있다.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참가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체계적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계속적 추진 및 확산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국제교류진흥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사업은 크게 전국적인 활동, 지역적인 활동, 국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전국적 차원의 활동으로는 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 전국대회, 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 전국추진회의, 권역별 청소년 국제교류를 생각하는 모임(青少年の國際交流を考える集い), 지역별 임원 연수, 내각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보고회 등이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활동으로는 권역별 자체사업, 국내에서 추진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자원봉사 활동, 지역 내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등이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활동으로는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사업 기참여자 모임인 SSEAYP, 세계청년의 배 사후활동조직인 SWYAA, 중국파견단동창회, 일한청년친선교류사업 기참여 청소년 사후활동 조직인 일한교류연락회의, 국제청년육성교류사업 기참여 청소년 사후 관리, 청년사회활동 코어 리더 육성 프로그램 기참여 청소년 사후관리 등이 있다. 이처럼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참여자들의 회비 납부를 통한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단순한 참여자간 친목도모의 수준을 넘어서 민간 차원의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매개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청소년교육(수련)시설과 지역사회의 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문부과학성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때 프로그램의 기획은 청소년교육 관계자, 대학, 시민단체, 학생 또는 유학생, 지역사회 기업, 교육위원회, 지역주민, 박물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담당한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교류활동 공간 및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일본에는 동경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 종합센터를 비롯하여 14곳의 국립청소년교류의 집, 13곳의 국립청소년자연의 집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교육시설과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시설 등이 연계하여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의 촉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과 같은 교육적 효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관광산업, 문화관련산업의 진흥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지역의 사회적 활동을 젊어질 인재의 양성 등과 같은 사회적 효과, 일본에 대한 이해의 증진, 일본 팬의 증가 등과 같은 국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시사점*

1)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중국은 주로 중앙의 각 정부 및 그에 속한 각급기관을 통해 청소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 '청소년 정책'은 독립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문건에 산발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법(義務教育法)」, 「미성년보호법(未成年人保護法)」 등에서도 청소년의 권익 보장 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각 정부 문건에 산재해 있다. 먼저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 제6조에 “국가는 청년, 소년, 아동을 품성, 지성, 체력 등 방면에서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를 필두로 하여, 이와 관련하여 전국인민대회 및 중앙 정부에서 제정한 기타 법률에서 일부 찾을 수 있다.

* 이 절은 이경자 교수(경상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 제8장 교육의 대외교류 및 협력에서 제67조 “국가는 교육의 대외교류 및 협력을 장려한다. 교육의 대외교류 및 협력은 독립, 자주, 평등, 호혜, 상호존중의 원칙을 견지하며 중국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68조에서는 “중국내 공민이 출국하여 유학, 연구, 학술교류를 진행하거나 교편을 잡을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69조에서는 “중국내 개인은 국가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면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중국내의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연구, 학술교류 또는 교편을 잡을 수 있으며 그 합법적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제70조에서는 “중국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학위증서, 학력증서 및 기타 학업증서에 대한 승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은 이러한 청소년 정책 및 외교부, 교육부의 문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청소년 국제 교류는 대체로 청소년 단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청소년 단체는 상대적으로 조직이 체계적이고 규모가 크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중화전국청년연합회(中華全國青年聯合會), 중국공청단(中國共青團) 등이 있다.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전국 각 지역에 산하 청년단체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청년 단체들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공청단도 중화전국청년연합회처럼 각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화전국학생연합회(中華全國學生聯合會), 중학공청단(中學共青團), 중직학교공청단(中職學校共青團)과 1998년 8월에 세워진 중국청소년발전복무중심(中國青少年發展服務中心)과 같은 다양한 관련 기관이 존재하며,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2) 청소년 국제교류 기관 및 프로그램

(1) 청소년 국제교류 기관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중국공청단과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외에도 다양한 기관이 국제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일반 단체와 기관에서도 청소년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몇몇 대표적인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中國教育國際交流協會)는 UN의 유네스코 등과도 교류를 하는 기관으로서 1981년 7월에 설립되어, 중국 교육의 대외교육 협조와 교류를 주요 업무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단체이다. 협회 설립 목적은 중국 교육이 세계 각국과 교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 과학기술, 문화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각국 각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우의를 다지는 것을 돕는 데 있다. 1991년에 중국 민정부(民政府)로부터 전국 규모의 단체임을 인정받았다. 최고 기구는 회원대회(會員大會)로서 각 단체 회원으로부터 추천받은 27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31개성, 자치구, 직할시 및 16개시에 지방 협회가 있다. 현재 단체 회원 기관은 517기관으로 각종 교육 관련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내 협력 기관은 1000여 개이다. 사무국과 50여개 국가와 지역의 170여개의 교육 조직과 단체가 교류와 협력을 돕고 있다. 2006년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 자문 지위, 2008년에 유엔신문부 비정부조직협력단체, 2009년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자문 지위, 2011년 유엔 학술영향력항목 회원의 자격을 얻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The 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Friendship with Foreign Countries)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중국의 민간 외교를 총괄하는 단체로서 1993년에 설립된 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이다. 중국우호화평발전기금회(中國友好和平發展基金會, China Friendship Foundation for Peace & Development)를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전 세계 157개국에 500여 민간단체, 기관과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양국 간의 교류를 수행하는 역할로 중국한국우호협회(中國-韓國友好協會, China-Korea Friendship Association)가 있다. 중국인민 대외우호협회에는 아시아 아프리카부, 일본부, 유럽부, 미주부, 문화교류부, 중국국제우호성시 연합회(中國國際友好城市聯合會), 경제협력위원회, 중국우호화평발전기금회, 중국대회우호 협력복무중심(中國對外友好合作服務中心), 국제우호성시교류중심(國際友好城市交流中心), 중국우호예술교류원 등이 있다. 그리고 157개국과 우호관계를 맺은 협회가 산하에 존재한다. 또한 중국 국내 각 지방에 대외우협(對外友協)이 300개 정도에 이른다.

그 밖에 민간조직국제교류촉진회(民間組織國際交流促進會)가 있다. 이는 2005년 10월에 성립된 것으로 평화로운 사회 건설, 사회발전, 과학교육, 문화예술, 의료사업, 생태환경, 민주인권, 민족종교, 정치사법, 공상기업, 빈곤한 사람과 장애인 돕기, 부녀청소년 등에서의 사업과 사회단체, 개인 간 연구조직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국제교류와 협력을 하는 민간조직 연합체로 국제 및 국내 민간조직과 관련되어 중국의 민간조직과 국제 비정부조직 간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다.

이상의 단체와 기관이 각각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정책과 국제 정치의 의도에 따라 정부 부처인 교육부, 외교부 등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기타 부처가 협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가 간 포럼(FORUM)의 경우 중국 교육부, 상무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기도 한다.

둘째, 국가 정부 부처와 별도로 청소년 전문 단체에서 국제교류를 주관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관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中國國際青年交流中心)이다. 이 기관은 중화 전국청년연합회(中華全國青年聯合會)와 공청단중앙직속(共青團中央直屬) 기구이다. 이 기구는 중일청년교류중심(中日青年交流中心)과 중국청년국제인재교류중심(中國青年國際人材交流中心)을 토대로 세워졌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구가 있지만 그 대상과 범주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 범주를 제한하였다.

(2)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① 정부 부처 주관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⁴⁰⁾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 교류와 협조를 중시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육 교류와 협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정책 관련 프로그램으로 고위 관계자의 상호 방문, 인재 배양, 학생 교환, 청소년 교류, 언어 교육, 공동 연구, 학교 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고, 말레이시아, 이집트, 알제리, 모리셔스, 카메룬 등 11개 국가와 학력과 학위 상호 인정에 합의했고, 2014년 12월 기준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34개 국가와 교육 협력과 교류를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의는 가시적인 학생 교류의 발전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3년 말, 중국에서

40)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http://www.moe.gov.cn> 2015년 9월 20일 인출.

아시아 국가로 유학한 학생이 약 28.23만명이고, 아프리카로 유학한 학생은 약 3,210명에 이르렀다. 반면, 2013년을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으로 유학 온 학생은 약 22만 명,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에 유학 온 학생은 33,300명을 넘었다. 또한 2014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 33개 국가(지역)에 103개소의 공자학원(孔子學院)과 49개소의 공자과당(孔子課堂)을 세웠고, 아프리카 33개 국가에는 42개소의 공자학원과 11개소의 공자과당을 세웠다.

②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은 공청단 중앙과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국제 청년교류에 종사하는 기구이다.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은 중일청년교류중심과 중국청년국제인재교류중심에서 만들어졌다. 여기서 중일청년교류중심은 중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양국과 세계 각국의 청년간의 우의를 다지고, 세계 평화 건설을 위한 청년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의 주요 목적은 중국 청년과 세계 각국 청년간의 상호 이해, 교류, 협력을 지원하고, 국가간의 교육, 문화, 우의를 다지는 교류를 추진하면서, 국가의 조화로운 발전과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 목표는 과학적 발전관을 수립하고, 국가 청년 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정보 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인적 자원 발굴을 지지하며,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청년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 청년교류와 교육 협력, 인재배양, 정보 자문, 경제무역 협력 등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조화롭게 하여 국제 선진 수준의 국제청년교류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에서 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6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의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국제교육협력	국제화교육, 정보화교육, 최고급교육, 개성화교육
국제 청년인재 양성	우수한 청년 인재 배출
국제 청년문화 교류	각국의 청년 문화교류
국제 청년 교류 활동 계획	국제 청년 교류활동과 관련된 제반 계획을 기획

* 출처: 中國國際青年交流中心 <http://www.21youth.cn/> (2015년 8월 15일 인출)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재정리함.

이 가운데 국제교류부는 중국 국제 청년교류중심의 청년 활동, 청년 기업가와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사업, 청소년의 국제문화, 체육, 예술, 인문, 교육, 과학기술, 경제무역 등의 국제 협조를 지원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청년기업가 구락부 중국 사무국(中俄青年企業家俱樂部中方秘書處), 중국과 영국의 청년지도자 우호협회 중국 사무국(中英青年領導者友好之會中方秘書處), 중국과 독일의 교량역할-청년지도자 연수 교류캠프(中德未來之橋-青年領導者研修交流營), 중국과 독일의 청소년 체육교류(中德青少年體育交流互訪項目), 중국과 미국의 청소년 문화교류(中美青少年文化交流互訪項目),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 문화교류(中韓青年文化交流互訪項目),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맹 청년단(中國東盟青年營), 중국과 폴란드 청년기업가 교류협력(中國波蘭青年企業家交流合作項目),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청년기업가 교류협력(中國拉美青年企業家交流合作項目)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 국제 사회적 이슈나 다국적 기업의 지원을 받아 행하는 교류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협조하여 황사 예방을 위한 내몽고 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녹지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한국의 현대 자동차와 같은 기업의 지원을 받아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것 등이다.

3)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중국 청소년 국제교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진행을 비롯하여 다국적 기업의 협조에 의한 교류, 국가와 기관이 주도하는 교류 등이 있다. 여기에는 유학이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 외에도, 상호 문화 이해와 공동 사업 구상 등을 위한 교류가 포함된다. 또한 학교 간, 단체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교류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먼저 국가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중국 청소년의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교류

한중 청소년 교류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중화전국청년연합회(中華全國青年聯合會, 1949년 5월에 설립한 중국공산당 산하기관으로 전국의

청년단체를 통합한 기관)와 한국의 청소년 기관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회의소, 문화체육부와 우호 교류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 교류는 청소년 기관 및 각 학교, 민간기관 및 국립국제교육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 기관 및 단체는 다양한데 그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국내외 청소년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청소년관련 국제 교류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한중간 교육교류 증진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매년 일정 학생을 선발하여 문화체험, 언어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에서는 세계 각국 청년 간의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지향적인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초청된 청년들은 방한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소개, 전문가 강의, 한국 청년과의 토론, 주요 문화 유적지 및 산업시찰 등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경험한다. 상대국으로 파견하는 한국 청소년 역시 강의, 문화유적지 방문, 현지 청년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방문국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⁴¹⁾

한·중 양국은 2008년 한중 정상외 양국 공동성명서를 통해 청소년 상호 초청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부터 한중 양국 청소년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매년 400명 규모의 중국 청소년 대표단이 연 2회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매년 100명의 한국 청소년 대표단도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각국의 문화체험 등을 통해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는 양국 교육부 주관으로 한중 중학생 교류를 시행하였고, 이에 매년 100명의 중학생이 상대방 국가를 일주일 동안 방문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8월에 중화전국청년연합회와 한중청년지도자 포럼을 개최하였고, 2015년부터 5년간은 매년 100명의 청년지도자를 상호 초청하기로 하였다.

(2)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 교류

중·일 양국 청소년의 우호적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56년 일본의 가장 큰 청년단체인 '일본청년단협의회(日本青年團協議會)'가 중국을 방문하여 '중화전국청년연합회(中華全國青年聯合會)'와 정식으로 교류를 시작하였다. 1984년에 3,000명의 일본 청소년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 해에 500여 명이 방문함으로써 국가 간의

41)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 2015년 9월 5일 인출.

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여 청소년 교류의 발전에 대한 협조 계획(關於進一步發展青少年交流的框架合作計劃)에 서명함으로써 상호 교류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계획에서 외교부와 교육부가 집행기관이 되어 고등학생 교류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 교육부는 1999년에서 2005년까지 매년 100명의 고등학생이 일본을 9일간 우호 방문하도록 하였다.

2006년 일본 정부는 '일중21세기기금(日中21世紀基金)'을 마련하여 매년 1,100명의 중국고등학생의 방일을 주도하였다. 중국도 '중일우호교류기금(中日友好交流基金)'을 마련하여 매년 천명의 일본고등학생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였다. 2007년 4월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였다. 그 방문 기간 중 일본 수상 아베신조(安倍晉三)와 청소년 교류의 성공을 위한 공동된 인식을 상호 확인하였다. 일본은 5년간의 기간을 두고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JENESYS)'을 계획하였다. 매년 2,000명의 중국고등학생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추진하고, 중국의 교육부가 이를 담당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2008년을 '중일청소년 우호교류의 해'로 정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개막식에 참석하여 "청년의 힘으로, 세대를 넘어선 우정을 만들자(舉青春之力, 謀世代友好)"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양국 청소년의 교류 강화와 양국 인민간의 우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중국 정부의 관련 부서와 교육행정 부분의 협력에 힘입어, 중국 교육부는 만 명의 중국고등학생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것은 양국 정부 사이에서 기간이 가장 길고, 규모도 가장 크며, 효과도 가장 좋은 청소년 우호 교류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수상의 중국 방문 기간 중, 양국 지도자는 중일 교류 정상화 40주년인 2012년을 '중일국민교류 우호의 해'로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새로운 만남, 심리적 유대(新的相遇, 心的紐帶)'라는 주제로 양국 국민의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행사 가운데 하나로 2012년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정의 공감대를 강화하는 계획(強化情誼紐帶計劃)'을 실행하였다.

2013년 1월에는 일본 수상 아베신조(安倍晉三)가 'JENESYS20'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가 아시아와 대양주의 청소년 3만 명 정도가 일본을 방문하고, 그 가운데 2년 내 8,600명의 중국고등학생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중국 교육부에서 주관한다. 2013년에는 중국 고등학생의 일본 방문이 이루어졌고, 2014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고등학생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3) 중국과 싱가포르 청소년 교류

2002년부터 교육부와 싱가포르 교육부는 매년 50명의 대학생은 서로 교류하기로 하였다. 50명의 중고등학생이 상대방의 국가에서 15일 정도의 교류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한국과 일본 외에도 다양한 국가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포럼(FORUM)이나 학술토론회 같은 방식을 통해서도 양국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

(4) 중국과 아프리카 포럼

중국과 아프리카 포럼은 2005년 11월 27일 시작되었다. 이 포럼은 중국 교육부, 상무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중국 아프리카 교육부장 포럼'에는 17개의 아프리카 국가 교육 부장이 참석하였다. 여기서 베이징선언(北京宣言)을 선포하였고, 이후 3년 동안 아프리카 교육생 1000명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교육 행정관원, 학생, 직업 교육학교 교장과 주요 간부 등이 포함된다. 2009년 11월에는 중국과 아프리카 제4회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이 때 '중국과 아프리카 대학(高校) 20+20 협력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제4회 부장급 회의 성과와 관련된 문건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샤름 엘셰이크 행동계획(2010년~2012년)(中非合作論壇-沙姆沙伊赫行動計劃(2010至2012年)에서 교육과 관련된 항목을 대외적으로 정식 선포하였다.

2010년 6월에 교육부는 '중국과 아프리카 20+20협력 계획'을 정식으로 시행하였다. 20+20이란 중국의 20개 대학과 아프리카 20개 대학이 교류를 하는 것이다. 중국과 아프리카 대학 간의 협력, 우수 학과 간의 교류, 특색 있는 전공학과 간의 교류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 연구, 교사 교육, 학술 방문, 공동 연구 개발 및 발굴, 대학원생 공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중국 교육부와 유네스코가 2011년 11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유네스코 조직, 중국, 아프리카 대학 총장 간담회(教科文組織-中國-非洲大學校長研討會)'를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포럼 형식의 교류는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 대학 총장 간의 포럼, 중국과 한국 대학 총장 간의 포럼, 중국과 한국의 직업 교육 포럼, 중국과 아세안(ASEAN)국가와의 교육 교류, 중국과 아랍(10+1) 국가와의 교육협력

토론회, 중국과 아랍 국가 대학 총장간의 포럼 등이 진행되었다. 포럼의 주목적은 해당국 청소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포럼은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과 환경을 준비함으로써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양국의 우호증진 및 교류를 촉진한다.

(5) 학술토론회를 통한 청소년 교류

중국은 다양한 국가와 국제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청소년 교류를 한다. 예를 들어, 2012년 11월 22일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가 주최가 되어 ‘중미공공외교: 실천과 경험(中美公共外交: 实践与经验)’을 개최하였다. 2015년 9월 17일 런던에서 실시된 중영 고급 인문 교류 시스템(中英高級別人文交流机制) 관련 제3차 회의도 중국과 영국의 인문 교류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국의 정치, 경제, 무역 등의 다양한 교류와 친선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2014년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청년교류를 강화하여, 중국과 영국이 서로 협조하고 모범이 되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자는 구호 아래 중국과 영국의 유학교류 40년을 기념하였다.

중국은 유럽을 포함하여 미국과도 다양한 인문학 교류, 대학 교류, 학술 교류를 통하여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5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거행한 제6차 중미인문교류협의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기존의 대학생 교류와 장학금 지원 사업 외에도, 중국과 미국의 청년 정치가 교류, 중국과 미국의 학생 대표 교류, 중국과 미국의 청년연수, 중미 청년 창업 신교류 개척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4)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시사점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중국의 경제력 강화와 국제 정치에서의 영향력 향상 등에 미루어 그 위상에 맞는 국제 교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 중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힘입어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제 지위 향상과 더불어 중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주변국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와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국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내적으로 중국 역시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에게 부족한 연성권력(Soft Power)을 보강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문화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에 발맞춰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정부 초기에 주목받았던 연성권력의 강화와

이에 발맞춘 중국 문화 외교는 중국 청소년의 국제교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면서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⁴²⁾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기존의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타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보완,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특히, 중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에 비해, 중국은 절대적으로 동맹국의 수가 부족하다. 세계사적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할 국가가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제교류를 통해 발전시킬 것이고, 특히, 양국의 주역인 청소년과의 교류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예로 1990년대 중반 4,000여명의 외국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이, 2009년에는 150개국 18,000여명, 2014년에는 36,943명에게 중국정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의 9.80%에 해당한다. 중국의 미래 발전을 고려해 중국을 찾아 공부하는 유학생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자는 교류 주체인 유학생이 중국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교류에 능동적이라는 점과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청소년 교류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국이나 약소국에 치중되어 있다. 기존의 강대국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아프리카 지역에 국제교류의 역점을 두었다. 주변국은 한자문화, 유교문화 등의 공동의 가치관이나 역사속에 정치 경제적으로 협업할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주변국을 공고히 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 정치적 안정 및 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아프리카 외교는 기존 선진국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지역으로 아프리카에 외교적으로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 세력의 확장 및 아프리카 자원의 선점 등의 이점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G2로서 중국의 국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일정 정도 수준에 이르면, 과거처럼 원교근공(遠交近攻)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의 부흥은 다른 국가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기에도 충분한 매력에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국제 교류가 진행될 수 있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다른 청소년

42)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S. Nye)에 의해 1990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한 국가가 보유한 국력을 하드파워(Hard Power)와 소프트파워로 구분한다면, 하드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 등 전통적인 의미의 국력을 뜻하고, 소프트파워는 이와 반대되는 타국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국가의 문화, 사상, 예술 등과 같은 종합적 매력을 지칭한다.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에 준하게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중국은 생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지수도 1990년 11위에서 2009년 7위로 상승했다.

교류에서의 특징은 사적 혹은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교류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가간의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 문화적 공통성 등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유학생 교류는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셋째, 중국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우호적인 인식을 얻고 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정부, 기관, 단체주도의 교류는 제한적이다. 이는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광범위한 개인 교류를 기초로 하여 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유학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그만큼 인력풀이 넓고 많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청년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중국은 다양한 국가와 폭넓게 그러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결국, 대내외적 요인 속에 중국의 국제 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고, 이는 청소년 교류에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국가 간의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교류는 더 넓고 깊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 국제교류의 특징이 한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상호 신뢰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를 이용하여 양국 청소년 교류를 확장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미·중·일 4개국 국민에게 글로벌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중국의 신뢰도를 물었을 때, 미국은 33%, 일본은 15%인 반면 한국은 71%란 높은 신뢰도가 나왔다. 반대로 한국의 신뢰도를 각 국에 물었을 때, 미국은 36%, 일본은 25%, 중국은 47%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글로벌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각종 응답에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묶음으로 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⁴³⁾ 이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는 것을 드러낸다.

둘째, 양국의 교류에서 한국의 장점을 활용한 방안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유학과 같은 개인적 영역의 교류를 발전시키고, 개인적 차원의 교류를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해 준다면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교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175개국에서 2010년 194개국, 2014년 203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2014년 기준으로 377,054명이 중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는 775곳의

43) CCGA는 2015년 4~9월 동안 한국인 1010명, 미국인 2034명, 중국인 3142명,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중앙일보 (2015. 10. 20) [단독] “중국 신뢰한다” 한 71%, 미 33%, 일 15% <http://news.joins.com/article/18892044> 2015년 10월 20일 인출.

대학교, 연구원과 기타 교학기관에서 유학하고 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20,555명이 증가한 것으로 5.77%의 성장률을 나타낸다.(홍콩, 마카오, 대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59.8%가 아시아권 학생이다.

2014년도의 국가별 유학생 수 가운데 한국이 62,923명으로 가장 많고, 이는 2010년의 62,424명보다 500명 정도 증가한 수치다. 2014년 기준으로 2위는 미국으로 24,203명(2010년 23,292명)이고, 3위는 태국으로 21,296명(2010년 14,145명)이다. 2010년에 비해 태국이 일본을 앞섰다. 유학생 수의 43.60%에 해당하는 164,394명이 학위를 받기 위해 중국에 유학하고 있다. 유학생 가운데 90.20%에 해당하는 340,111명이 자비 유학을 하고 있다.

표 IV-7 2010년 국가별 유학생 수

(단위: 명)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기타	합계
학생수	62,442	23,292	17,961	14,145	13,549	13,340	10,957	136,925	292,611

* 홍콩, 마카오, 대만은 포함하지 않음.

* 출처: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http://www.moe.gov.cn/> 에서 2015년 9월 20일 인출.

표 IV-8 2014년 국가별 유학생 수

구 분	한국	미국	태국	러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학생수(명)	62,923	24,203	21,296	17,202	15,057	13,689	13,578	13,360	
구 분	카자흐스탄	프랑스	베트남	독일	몽고	말레이시아	영국	기타	합계
학생수(명)	11,764	10,729	10,658	8,193	7,920	6,645	5, 920	133,917	377,054

* 홍콩, 마카오, 대만은 포함하지 않음.

* 출처: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http://www.moe.gov.cn> 2015년 9월 20일 인출.

2000년대 이전까지 중국 내에서 한국의 유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 유학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4년 현재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교류에서는 이러한 유학생의 교류를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지속적’이고 ‘확장된’ 형태의 교류로 확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할 때, 개인과 민간차원에서 이룬 교류의 성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커다란 국가적 공동 자산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을 찾는 중국 유학생의 수도 적지 않다. 이들도 모두 청년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활용한 교류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표 IV-9 국가별 유학생 수(2014)

국가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베트남	대만	기타	계
학생수(명)	50,336	3,958	3,126	3,104	3,181	1,873	19,313	84,891
비율 (%)	59.3	4.7	3.7	3.7	3.7	2.2	22.8	10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4).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http://kess.kedi.re.kr/> 2015년 9월 20일 인출.

2014년 국가별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중국 유학생이 50,336(59.3%), 일본 유학생은 3,958명(4.7%)으로 중국 유학생이 외국 유학생의 약 60%를 차지한다. 해마다 각 국의 유학생 수가 조금씩 감소하기는 하지만 국내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 국제교류의 문제에서 한국을 찾는 중국 유학생을 활용한 교류를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의 공자학원과 세종학당을 활용한 교류의 확장이다. 중국의 공자학당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고 또한 가장 많이 세워진 국가이다. 이를 활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세종학당을 이용하여 한국의 문화와 청소년의 교류를 유도하면 좋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문화와 중국의 전통문화를 서로 연계하여 교류하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교류는 교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통해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일 것이다. 지금 한국을 찾는 중국 유학생이나 중국을 찾는 한국 유학생은 대부분 자비로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한중 양국의 교육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교류는 외국 다른 나라와 달리 민간 차원의 유학생 교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다른 국가와의 청소년 교류 경험을 한국과 중국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중국과 한국의 상황에 걸맞은 양국에 밀착된 형태로 실시되어야만 양국의 청소년 교류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V 장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1.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제 V 장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1.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1) 전문가 델파이조사 방법

(1) 델파이조사 목적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지역의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합의를 도출하여 정책 방향을 마련하거나 미래 전망을 하는데 있어서 델파이조사는 매우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문가 패널 구성

본 연구에서 전문가 패널은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패널을 선정하였고, 1, 2차 조사에 모두 참여 가능한 경우에만 전문가 패널로 위촉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에는 현장 전문가 9명, 학계 6명, 연구기관 관계자 3명이 참여하였다. 본 조사는 9~10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V-1 델파이 전문가 패널 현황

구분	소속	직위	구분	소속	직위
현장 (9)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교육보건팀 과장	학계 (6)	고려대	교수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연구원		공주교대	교수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지원부 국제교류팀		명지대	교수
	(사)동북아평화연대	동북아평화연대 이사		명지전문대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 팀장		경상대	교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교육 팀장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제교류센터 과장	연구 기관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제교류센터 부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회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2) 전문가 델파이조사 문항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지역 청소년 교류와 관련하여 <표 V-2>와 같이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우선 동북아지역 청소년 교류의 목적과 정의를 논의하기 위하여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적절한가, 그리고 각 주체별 역할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세 번째로는 동북아지역에 한정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조사하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을 포함하였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과 관련된 의견은 별도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서 의제로 삼을만한 주제들을 제시하고 동북아지역 전체와 각 국가별로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공통의제 주제들은 한·중·일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사이버 공간, 환경 보존 관련 주제는 박근혜정부가 동북아평화협력 이니셔티브(외교부, 2014)에서 제시한 동북아 지역의 공통적인 연성 안보 의제 가운데 청소년에게 적합한 주제를 가져온 것이며, 나머지 전통문화, 역사문제, 인권, 대중문화, 청소년문제, 과학기술, 언어 등은 연구자가 기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한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 사업별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표 V-2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법적 정의와 목적	1-1. 법적 정의의 적절성 1-2. 청소년교류활동의 목적	
2.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지원과 역할	2-1. 국제청소년교류활동 및 남북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의 적절성 2-2.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2-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4. 민간단체의 역할 2-5. 국제기구의 역할	
3. 동북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의견	3-1.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3-1-1.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와의 청소년 교류 의견 3-1-2. 북한과의 청소년 교류 의견
	3-2.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3-2-1.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와의 청소년 교류 의견 3-2-2. 북한과의 청소년 교류 의견
	3-3. 동북아지역전체 공통의제	3-3-1. 1순위 3-3-2. 2순위 3-3-3. 3순위
	3-4. 각 나라의 공통의제	3-4-1. 중국 공통의제 1순위 2순위 3순위
		3-4-2. 일본 공통의제 1순위 2순위 3순위
		3-4-3. 러시아 공통의제 1순위 2순위 3순위
		3-4-4. 몽골 공통의제 1순위 2순위 3순위
		3-4-5. 북한 공통의제 1순위 2순위 3순위
4.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4-1. 정책적 지원 4-2.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 4-3. 개별 사업 단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1차 조사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수합된 2차 조사에서는 1차에서 수합된 결과를 토대로 추가 및 수정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문항 3에 대해서는

1-3순위 결과를 제시하고 타당성 여부를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내용 타당도 비율(CVR)과 합의도, 수렴도를 활용하였다 (이윤조·이용환, 2009). CVR이 0보다 큰 값을 갖고 합의도가 0.75, 수렴도가 0.50 미만일 때 조사 결과의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반복 조사를 중단하였다.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1)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청소년 교류 활동의 법적 정의와 목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 교류 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응답자의 83.3%(15명)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6.7%(3명)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델파이조사에서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는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 이는 법적 정의에 대한 교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청소년 교류 활동의 주체, 활동 내용, 목적과 관련하여 <표 V-3>과 같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활동 주체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청소년단체나 시설을 비롯해 청소년지도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지역, 남북, 국가 간의 교류만을 담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앞서 대상 문제와 관련하여 단체, 시설, 지도사 간의 교류를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활동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기계발이나 문화활동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활동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아래의 목적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 이 절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V-3

청소년교류활동의 법적 정의 관련 의견

구분	의견
다양한 활동 주체의 단위에 대한 언급	○ 현재 정의는 지역, 남북, 국가라는 지리적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어 청소년 계층별 교류, 시설 및 단체간 교류, 청소년지도사간 교류 등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교류활동의 정의에 개인간, 집단간, 학급 또는 학교간 등의 개인 및 소규모 집단 간 교류로 확대 필요 ○ 단체간, 지역 내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지므로 보완 필요
활동 내용의 구체화	○ 자기계발을 위한 교류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교류활동에 문화 활동 포함 및 지역 내 교류활동도 포함
활동 목적의 구체화	○ 교류를 통한 공동체 의식 및 친밀감, 협력 등의 긍정적 효과 도모 ○ 서로의 차이 인정,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역사인식 공유에 대한 내용 추가 ○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로 글로벌 역량활동 내용 추가 ○ 공동체를 평화공동체라고 수정하여 교류활동의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활동 목적과 관련해서는 교류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만이 제시되어 있는데 교류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목표들을 법적 정의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 교류활동의 목적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청소년 교류 활동 목적을 청소년에게 가져올 효과를 중심으로 구체적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V-4

청소년교류활동의 목적 관련 의견

구분	의견
다양하고 구체적인 목표	○ 목적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표현 ○ 교류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다른 사회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 자세 ○ 목적에 시민의식 혹은 세계시민의식 추가 ○ 다양성 및 차이를 수용하는 태도 추가 ○ 국가적 편견 최소화 및 신뢰관계 형성으로 공동의 삶 실현 목적 ○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 및 세계시민 육성과 자신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강화의 목적

응답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표 V-4>와 같다. 먼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체험활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시민의식이나 다문화수용성과

같이 타인이나 다른 사회를 포용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행법적 정의에서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내용을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자기계발과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것으로 교류 활동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장에 따르면,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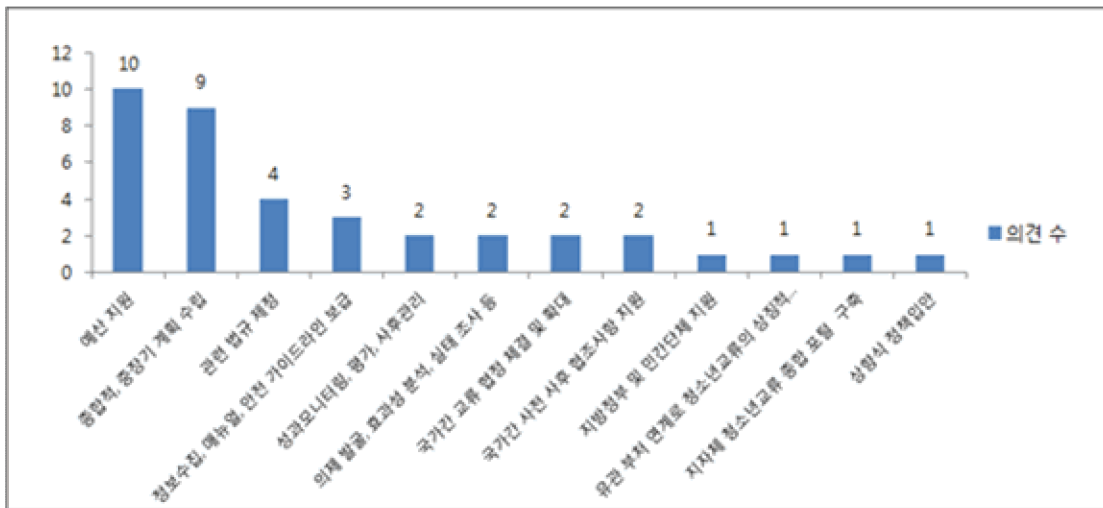
②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의 50%(9명)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50%(9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표 V-5>와 같다. 우선,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기구, 국제기구, 청소년교류센터 등 교류활동사업의 주체별 기능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시행계획을 반드시 먼저 세울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민간기구 및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기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에 설치된 청소년교류센터의 기능이 여성가족부 사업을 수행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청소년 국제교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북교류 활동과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었다. 우선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문구를 바꾸어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통일교육은 남북교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남북 청소년 교류시 교류 활동의 목적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표 V-5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및 역할 관련 의견

구분	의견
주체별 기능	○ 민간기구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 중앙/지방 정부가 시행계획을 반드시 먼저 세울 필요는 없음 ○ 현재 청소년교류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3항에서 민간기구 뿐만 아니라 국내 법률을 기반으로 한 국제기구의 국내위원회 지원 포함 필요 ○ 제54조 제3항의 “지원할 수 있다” 와 제59조 제2항의 “실시할 수 있다” 의 단서가 부적절함
통일교육	○ 남·북 청소년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를 “실시해야 한다” 로 수정 ○ 체계적인 통일교육이라는 말을 좀 더 폭넓게 수정 필요 ○ 통일교육이라는 말은 목적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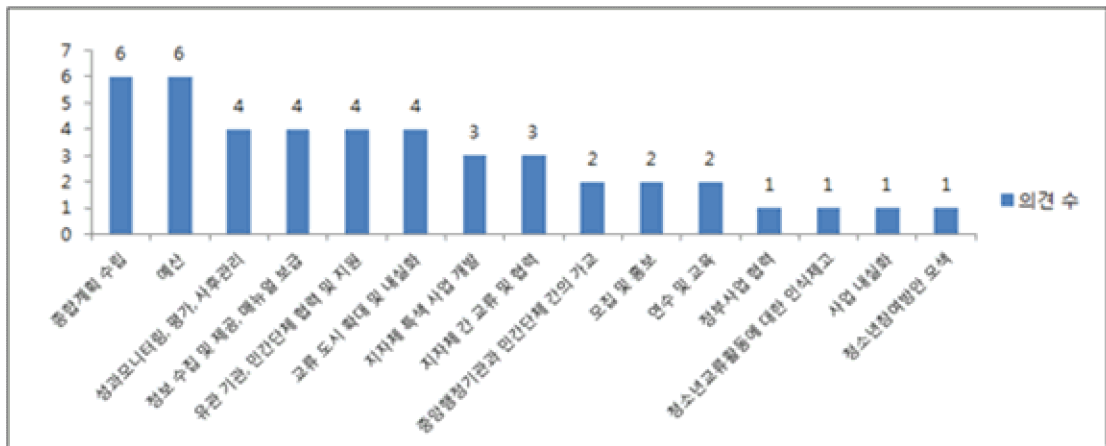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교류 활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림 V-1】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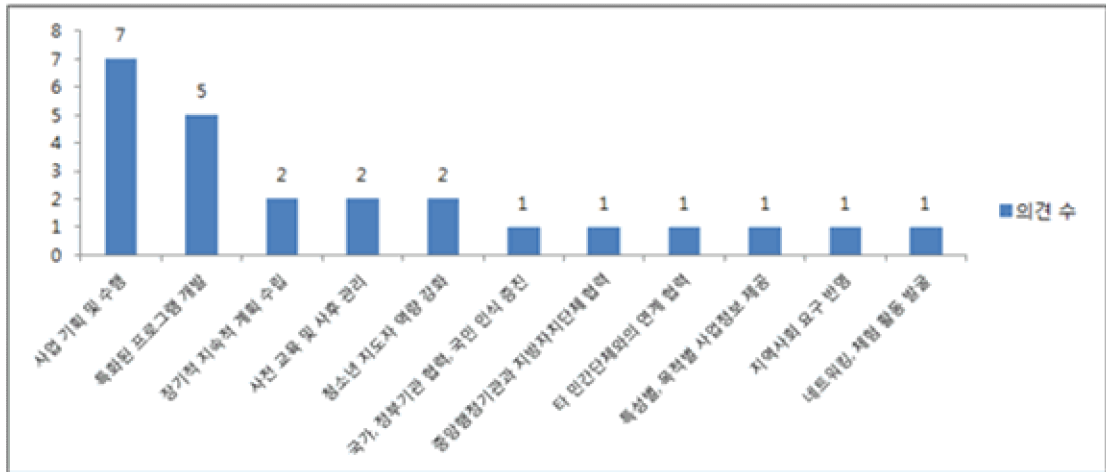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로는 예산지원,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관련 법규 제정 순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는 정보수집, 모니터링, 조사연구 등 지속적인 관리와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가 간에 교류 협정 체결 및 활동관련 협조 등 국가 간 협력도 강조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상징성 강조, 지자체 사업 포털 구축, 상향식 정책 입안 등이 제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유사하게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정보수집 등 지속적인 관리와 관련된 의견과 함께 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자체 간 협력, 중앙행정기관과 민간단체 사이의 가교 역할 등 협력과 중재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었다. 또한 해외 도시와의 교류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 특색사업 개발 및 내실화 등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것 외에도 홍보, 교육, 청소년 참여 등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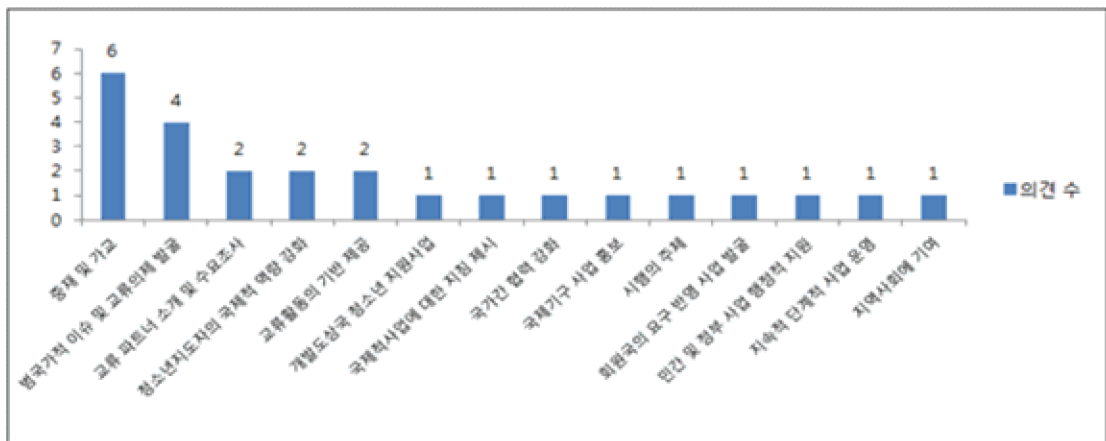
【그림 V-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역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면, 민간단체의 역할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사업의 기획 및 수행, 민간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아 주체별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 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민간단체의 역할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전후의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간단체 역시 설립 목적에 맞게 국제교류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가, 정부기관, 지자체, 타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강조되었고,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및 지역의 자원 발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특성별, 목적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림 V-3】 민간단체의 역할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의 역할로는 여러 국가와 지역 간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중재 및 가교 역할, 그리고 범국가적인 이슈 및 교류의제 발굴 등 다른 주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국제기구만의 독자적인 역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국제적인 교류 파트너 소개 및 수요조사, 청소년지도자의 국제적 역량강화, 교류활동의 국제적 기반 제공 등 국제기구로서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국제기구의 역할로는 민간단체와 달리 실질적인 국제교류 사업수행보다는 국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콘텐츠 발굴하는데 더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는 국가 간 협력, 홍보, 실행, 사업 발굴, 운영의 지속성, 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 V-4】 국제기구의 역할

다음으로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특수한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지역 전체에서 긍정적인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표 V-6>과 같다. 먼저 한류 확산, 동북아 공통의 문화유산, 지리적 접근성, 여러 영역에서의 교류의 확대 등으로 동북아 지역 청소년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진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의 다수를 이루었다. 또한 동북아지역 국가들 간에 평화와 공존의 필요성, 각 국에 대한 이해 증진의 필요성, 협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리고 6자회담, 러시아의 동진정책,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등 교류 추진과 같이 외교 및 각국 정책이 언급되었다.

표 V-6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지역의 긍정적인 환경 요인(괄호: 의견 수)

구분	의견
상호 이해의 기반 조성	○ 한류 확산(6) ○ 유사한 문화의 공유 및 지리적 접근성(6) ○ 경제, 문화, 관광, 인적 교류의 증가(5)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1) ○ 직업 선택 등 실질적인 관심사(1) ○ 서로 다른 발전 시기 및 제도적 차이로 인한 상호학습의 기회(1)
동북아 공동체의 필요성	○ 공동체로서 평화와 공존의 필요성 인식(1) ○ 동북아 국가간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의 필요성 인식(1) ○ 미디어의 동북아 협력 강조(1)
외교 및 정책	○ 6자회담(1) ○ 러시아의 동진정책(1) ○ 정부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등 교류 강조(1)

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서는 청소년들의 인식 부족, 각 국가 간의 대립 등이 지적되었다. 우선 청소년들이 몽골,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중국, 일본과는 경쟁의식이나 역사적 갈등 문제로 인하여 교류활동의 순수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동북아지역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교류활동 시에 심층적인 토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가 관계 측면에서는 일본의 침략전쟁 및 식민지 지배 역사, 남북 분단 및 군사적 긴장 문제,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견제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국가주의의 팽배와 국가 간 경제 수준의 차이도 상대방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육로 교류의 한계, 동북아 국가 간 교류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파트너십이 축적되지 않았음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표 V-7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지역의 부정적인 환경 요인

구분	의견
청소년의 특징	○ 몽골, 러시아에 대한 이해 부족 ○ 중국, 일본에 대한 경쟁의식 및 정치적 입장으로 인하여 교류활동의 의미 퇴색 ○ 청소년들의 동북아지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 주입식 교육을 받는 한·중·일 청소년의 토론 역량 부족
국가 관계	○ 일본의 침략전쟁 및 식민지 지배 역사 ○ 남북 분단 및 군사적 긴장 ○ 미국의 견제 ○ 각 국의 국가주의 ○ 국가 간 경제수준의 차이
기타	○ 철도 등 육로교류의 한계 ○ 동북아 국가 간 파트너십에 한계

다음으로 북한에 한정지어 청소년교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가운데 북한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인식과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가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불확실성 및 위험, 다른 국가의 견제, 북한의 폐쇄성, 오랜 단절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긍정적인 요인으로서는 남북간 민족적 동질성으로 인한 서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통일의 필요성, 여러 교류의 성과 등이 제시되었다.

표 V-8 북한 관련 환경 요인(괄호: 의견 수)

구분	긍정적인 환경 요인	부정적인 환경 요인
인식	○ 역사적, 문화적 공감대 및 유대감(3) ○ 통일의 필요성(3) ○ 호기심	○ 북한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인식(6)
남북관계	○ 스포츠, 문화예술 교류(4) ○ 경제협력(2) ○ 이산가족 상봉(2) ○ 정상회담(2)	○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6) ○ 불확실성 및 위험요소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 어려움(3) ○ 다른 국가의 견제(2) ○ 북한의 폐쇄성(1) ○ 오랜 단절(1)
기타	○ 없음(2)	

다음으로 동북아지역 국제교류활동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논의할 공통의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13개의 의제 가운데 1, 2, 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9>와 같다.

표 V-9 동북아지역 청소년 공통의제(회색 칸의 괄호 안 숫자는 순위를 의미)

공통의제	지역	동북아지역 전체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① 원자력 안전		4	2	14 (3)	5	0	0
② 황사 및 미세먼지 대6처		0	18 (2)	0	0	6	0
③ 생태계 보전 및 환경문제		23 (2)	18 (2)	12	15 (3)	23 (1)	3
④ 재해재난 예방과 해결		2	0	8	0	0	3
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와 보안		2	6	1	2	1	0
⑥ 전통문화		5	5	6	5	14 (3)	18 (2)
⑦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		13	8 (3)	15 (2)	5	6	9
⑧ 인권 및 민주주의		9	2	2	6	0	2
⑨ 대중문화		17 (3)	18 (2)	14 (3)	22 (2)	19 (2)	10
⑩ 청소년문제		28 (1)	23 (1)	27 (1)	27 (1)	23 (1)	24 (1)
⑪ 과학기술		2	3	1	9	6	5
⑫ 언어/문학		3	2	3	4	5	11
⑬ 기타		4 인문유대 강화	7 문화, 사회문제, 인문유대 강화	9 사회문제, 인문유대강 화교육	8 문화, 사회문제, SNS, 세계화와 현대 민족문화,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을 한 청년의 역할	6 도시화, 슬럼화,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교육	17 (3) 통일, 가치관, 교육과정, 청소년문화

응답자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교류의제로 적합한 주제로 청소년 문제와 대중문화를 꼽았고 생태계 보전 및 환경 문제도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활동에서는 영토 분쟁 및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상대적으로 청소년교류가 부족한 몽골의 경우 상대방 국가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로부터 교류활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북한의 경우, 청소년 문제를 비롯하여 가치관, 교육과정, 청소년 문화 등에 대한 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되었고, 공통의 문화적 기반으로서 전통문화도 중요한 의제로서 제시되었다.

표 V-10 동북아지역별 공통의제의 타당성 분석 결과

지역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응답수	긍정 응답수	합의도	수렴도	CVR
동북아 지역	1.청소년 문제	4.67	0.77	5	18	17	0.97	0.13	0.89
	2. 생태계 보전 및 환경문제	4.61	0.50	4	18	18	0.89	0.50	1.00
	3. 대중문화	4.06	0.87	4	18	14	0.86	0.63	0.56
중국	1. 청소년문제	4.72	0.57	5	18	17	0.97	0.13	0.89
	2. 황사 및 미세먼지 대처	4.06	1.16	4	18	14	0.86	0.63	0.56
	2. 생태계 보전 및 환경문제	4.44	0.70	5	18	16	0.89	0.50	0.78
	2. 대중문화	4.39	0.78	5	18	15	0.89	0.50	0.67
일본	1.청소년문제	4.78	0.43	5	18	18	0.97	0.13	1.00
	2.영토분쟁 및 역사문제	4.00	1.14	4	18	14	0.86	0.63	0.56
	3.원자력안전	3.94	0.94	4	18	12	0.78	1.00	0.33
러시아	1.청소년문제	4.67	0.69	5	18	16	0.97	0.13	0.78
	2.대중문화	4.11	0.76	4	18	14	0.86	0.63	0.56
	3. 생태계 보전 및 환경문제	4.17	0.92	4	18	14	0.86	0.63	0.56
몽골	1.청소년 문제	4.67	0.69	5	18	16	0.97	0.13	0.78
	2.생태계 보전 및 환경문제	4.56	0.62	5	18	17	0.88	0.50	1.00
	3.대중문화	4.28	0.83	4.5	18	14	0.86	0.63	0.56
북한	1.청소년 문제	4.50	1.04	5	18	16	0.89	0.50	0.78
	2.전통문화	4.67	0.49	5	18	18	0.89	0.50	1.00
	3.언어/문학	4.50	0.62	5	18	17	0.89	0.50	0.89

2차 조사에서는 1-3순위 결과를 제시하고 지역별로 공통의제로서 타당한지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V-10>에서와 같이 지역별로 의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5점 척도의 평균 점수, 합의도, 수렴도, CVR값에서 모두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의 발전 방안을 정책지원, 현안, 개별사업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견 가운데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는데, 재정 지원 확대, 장기 비전 수립, 사후 관리 및 평가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 밖에도 교류 사업의 콘텐츠 다변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콘텐츠 확보 등 새로운 사업 내용 발굴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표 V-11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정책적 지원(괄호: 의견 수)**

구분	의견
제도적 지원 강화	○ 재정 지원 확대(6) ○ 목적 및 장기 비전 수립(5) ○ 사후 관리 및 평가 체계화(5) ○ 법령 정비 및 교류협정 체결(3) ○ 관련 연구 지원 확대(3) ○ 실무자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양성(3) ○ 청소년교류센터 역할 재정비 및 중점기구 지정(2)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2) ○ EU 정책 벤치마킹(1) ○ 부처 통합 홍보 창구 마련(1) ○ 청소년 국제교류 종합 포털 구축(1) ○ 실무 인력 확충(1)
교류사업 질적 제고	○ 동북아 지역 간 활발한 교류 및 콘텐츠 확보(4) ○ 사업 콘텐츠의 다변화(2) ○ 부처간 연계 및 특화(1) ○ 몽골과의 교류 확대(1) ○ 국가간 사전 협력 강화(1) ○ 교류를 통한 청소년 제안의 정책 반영(1)
인식 및 홍보 제고	○ 청소년교류 업무의 중요성 인식(1) ○ 국가간 공동 연구 지원(1) ○ 문화 홍보 및 전시 지원(1) ○ '청년의 해' 지정 등 행사 지원(1)

다음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을 조사한 결과 <표 V-12>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목표 및 방향이 뚜렷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맞게 관련 주체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 상시적 교류협업체 구성, 이해 증진, 국제 학술활동 추진 등 동북아 지역의 현안과 교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외교적 차원에서는 군사적 긴장, 일본 과거사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과 동시에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접근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차원에서는 한일 관계 등 외교문제로 인해 중단된 청소년교류 사업을 재개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치적인 이슈를 초월하여 청소년교류 사업이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V-12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방안

구분	의견
국가적 차원	○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국가 정책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 구축 ○ 국가간 협력 증진 ○ 동북아지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 ○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기금 조성 ○ 상시적 교류협업체 구성 ○ 동북아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 학술활동 추진
외교적 차원	○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 해소 노력 ○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 ○ 민간단체 차원의 동북아 평화협업체 구성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차원	○ 정치적인 문제로 중단된 교류사업 재개 ○ 다자간 교류사업 확대 및 북한의 참여 유도 ○ 전 지구적인 관심사 및 공통의제 발굴 ○ 청소년지도자 간 교류 확대 ○ 장기 교류 확대 ○ 사업운영단체의 전문성 확보 ○ 동북아 청소년교류 대표단, 평화 원정대, 평화 캠프 등 추진

표 V-13 청소년 교류사업 운영 및 개선 방안

구분	의견
운영체계 구축	○ 사업 성과 측정 및 환류 시스템 구축 ○ 관련 주체간 정보 공유, 협력, 벤치마킹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수립 ○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 효과성 연구 실시 및 반영 ○ 사업 홍보 강화 ○ 청소년 정책과의 관련성 강화 ○ 시대 변화에 따른 청소년교류사업의 방향 및 추진체계 재정립 ○ 청소년 참가자 선정의 체계화 ○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정보 공유 및 종합 포털 구축 ○ 우수 사업 경진대회 개최 등 보급 및 확산 방안 마련
내실화	○ 사업 특색 강화 ○ 교류 국가 확대 ○ 중국과의 교류사업 질 개선 ○ 여행사보다 국제교류 전문가에 의한 진행 필요 ○ 민간교류 전문가 육성 ○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 정규직 현장요원 증원 ○ 교류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 ○ 대학생의 취업용 스펙 쌓기가 아닌 참여 동기부여 방안
프로그램 콘텐츠	○ 사전 교육 강화를 통해 참가자의 주체적 태도 형성 ○ 토론 등 직접 교류활동 강화 ○ 단순 관광 지양 ○ 참가자 스스로 기획, 준비, 실천하는 교류프로그램 개발 ○ 직업군별 체험 프로그램 기획 ○ 청소년 시·아·교류단 등 청소년의 의견 반영 등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사업 발굴 ○ 깊이있는 교류 콘텐츠 개발 ○ 지속적인 교류 실시로 차세대 전문가 양성 ○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고등학생 참여 프로그램 확대

마지막으로, 개별 사업 운영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사업의 계획, 운영, 평가,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이 많았다. 또한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의견도 다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제 VI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언

제 VI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지역에서 청소년교류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교류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한·중·일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 효과와 동북아지역의 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관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참여 주체별 역할에 대하여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지역의 범위 차원에서 볼 때 일본과 중국과의 청소년교류 사업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러시아와 몽골,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과는 오랫동안 교류를 추진해 오면서 일회성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특정 주제와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색있는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중국과는 최근 급격하게 청소년 교류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러시아의 경우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러대화 사무국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가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몽골과의 교류는 몇몇 해외봉사활동 사업 정도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콘텐츠 발굴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과의 교류는 남북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현재 거의 교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 한·중·일 3국간의 교류에 편중되어 있어 그 외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다자간 교류를 위한 공통 의제 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 및 재외동포 등 한민족 교류사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상황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끼친다. 동북아지역은 공통의 역사 기반, 한류 확산, 경제,

*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문화, 관광, 인적 교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의 사업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제교류 참가자들이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 탐방, 학교 방문, 홈스테이, 청소년 교류 등의 프로그램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완전히 낯선 문화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사성을 토대로 차이점에 대해 배움으로써 자신의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공유하는 역사적·문화적 토대가 약한 몽골과 러시아와의 국제교류 활동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표 VI-1 청소년교류활동의 공통의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과 국제교류 참가자의 의견

주체	전문가 패널		한국 국제교류참가자	중국 국제교류참가자	일본 국제교류참가자
지역	한·중	한·일	한·중·일	한·중·일	한·중·일
1순위	청소년문제	청소년문제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 (17.3%)	전통문화 (18.9%)	대중문화 (22.5%) 청소년문제 (21.9%)
2순위	대중문화 행사 및 미세먼지 대처 생태계보전 및 환경문제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	전통문화 (11.2%) 행사 및 미세먼지 대처(10%)	생태계 보전 및 환경문제 (14.7%) 청소년문제 (13%)	재해재난 예방과 해결(16.1%)
3순위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	원자력 안전 대중문화	대중문화 (9.1%) 원자력 안전(8.7%) 인권 및 민주주의 (8.7%)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 (11.2%) 대중문화 (10.7%)	과학기술 (9.9%) 언어/문학 (6.7%)

반면 동북아지역 가운데서도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은 서로가 얽힌 현대사와 더불어 군사적 안보적 긴장관계의 상존은 국제교류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중·일 간 상대방에 대한 낮은 호감도는 서로를 동등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기기보다는 경쟁자나 갈등의 상대로 인식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성찰적 인식은 앞으로의 청소년교류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표 VI-1>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결과 전문가들은 교류의제로 청소년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에 대해 한·중·일 국제교류 참가자 당사자들 가운데서는 일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이었으며, 한국 참가자들은 5%로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한편 각 국 참여자들 간의 비교적 뚜렷한 차이로는 한국에서는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은 전통문화, 일본은 재해재난 예방과 해결에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교류 활동에서 상대방 국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 반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사전 준비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지만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에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델파이 조사결과 전문가 패널 가운데 대부분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정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교류활동의 목적에 청소년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의 수용, 세계시민의식, 변화 역량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청소년 국제교류 효과 검증 결과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의식, 다문화수용성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미래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식 전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수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체험탐방의 형태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문화간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고 평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변화의 역량을 기르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적과 내용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청소년 교류 활동 사업의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이 보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 부처들의 경우 고유의 특색을 지닌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비전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경우 교류 상대국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교류도시 사업의 내실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지역사회 기여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기구의 경우 범국가적인 이슈와 협력사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각 주체의 역할 분담 및 역량 강화와 더불어 콘텐츠 발굴 및 공유,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2.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언

1) 법령 정비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선을 위해 먼저 현행 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교류활동의 법적 정의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4항에서 왜 교류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교류활동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절대 다수가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규정에는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자기계발과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관한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법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대한 규정 제1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제14조 개정(2015년 2월 3일 전문개정, 9월 23일 시행)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14조의 개정 내용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차년도의 시행계획에 분석 및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법 제54조의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14조 개정 이전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동법 제54조 규정 ③항에 민간과 민간기구라는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①항에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정의하되 국제기구 또는 민간이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동법 제59조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남·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꾸어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I-2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조항	기존 법안	개정(안)
제2조(정의)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자기계발과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54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또는 민간이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	①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총괄조정 기능 강화

「청소년기본법」 제9조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에 청소년교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지만 이 센터는 범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간 교류, 해외자원봉사활동, 국제회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여성가족부 외에도 외교부와 교육부, 통일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도교육청에서도 국제교류 활동이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국제교류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시행계획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업의 중복이나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교류 활동을 다변화하고 국가 간 교류뿐만 아니라 다자간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교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단순히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연계하는 허브(hub) 기능과 네트워크(network) 역할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와 교육부의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협력 및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작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환에서 일본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내각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사전교육은 청소년 국제교류센터에서, 사후관리는 일본청소년 국제교류기구(IYEO)에서 담당함으로써 그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방식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동북아 평화공동체 및 통일 기반 구축 사업 연계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시민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 활동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 평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화두인 통일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의 공통의제를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사업과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과 일본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통의제에 관한 의견들을 분석해 보았다. 한국과 중국, 일본 청소년 간에, 전문가와 청소년 간에 공통의제에

관한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청소년 문제를 비롯해 환경 문제, 전통문화, 대중문화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국가 간 교류 이상으로 다자 간 교류가 필요하며 국제기구들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에 포함되는 공통의제를 다루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국제교류활동이 활성화된다면 큰 틀에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한국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동북아지역의 평화공동체 형성과 남북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공통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주체들이 추진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국 내 문 헌 】

- 강현철 (2015). 표본설계보고서. 세종: 청소년정책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 (2015). 2014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사업결과 보고서. 내부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립국제교육원 (2015a). 한·일 중고생교류 초청 시행계획. 내부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2015b).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2015년도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사업. 내부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2015c). 한중 중학생 교류 방한연수. 내부자료.
- 김광익 (2004).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 김기현, 신인철 (2012). 유아교육 및 보육 경험의 장기 효과. *한국사회학*, 46(5), 259-288.
- 김기현, 황세영 (2015).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및 사업현황.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제16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옥순 (2011). 아동의 세계 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6, 8-28.
- 김위정, 이해정, 김태기 (2014). 경기도 교육과정 핵심역량 체계 재정비 및 측정도구 개발 연구 (정책연구 2014-12).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창환, 유시은, 김윤영 (2013). 남북 청소년 교류 추진 방향 연구.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 김호순, 김준영, 강동균, 이필만 (2014). 2014년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만족도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형주 (2014).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북아평화연대(2014). 동북아평화청년캠프 ‘잇다’ 자료집.

http://www.peaceasia.or.kr/bbs/board.php?bo_table=03_01&wr_id=738&sc=ca=&sfl=wr_subje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박승우 (2011).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1(1), 61-110.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부산국제교류재단 (2014). 부산국제교류재단 활동성과. http://www.bfia.or.kr/contents/d4_1.asp
 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부산국제교류센터 (2015). 2015년도 청소년·대학생 국제교류사업 일정표. 내부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2015). 2015학년도 국제교류 매뉴얼.

http://engedu.pen.go.kr/bbs/board.php?bo_table=b2&wr_id=105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손열 (2014). 공생과 변영의 동아시아 다자질서 건축 전략: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넘어서.

EAI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상 연구 보고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양계민 (2013).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연구보고 KYWA-2013-033).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2a).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2b).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a). 2015년 한·중 청소년 교류 1차 파견 실행계획 및 발대식 운영
 계획(안).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15b). 2015년 한·중 청소년 교류 2차파견 사업결과 보고.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15c).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중앙
 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5d).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오해섭, 김진화 (2004).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2008).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 보고 08-R3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20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 10-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외교부 (2015).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http://www.mofa.go.kr/image/main/mofa_asiapeace.pdf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 외교부 (2014). 2014 외교백서. 서울: 외교부.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3). 한일중 어린이동화교류 2013 사업 결과보고서. http://unescoapceiu.org/kor/m/todo01_view.php?mseq=31&seq=93&gubun=3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 윤철경, 박선영, 송민경 (2010).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보고10-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이민희, 박선영, 박숙경, 신인순 (2011). 청소년의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자 (2013)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과 과제. 중국학논문41,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301-321.
- 이윤조, 이용환 (2009).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 준거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4), 277-296
- 인천국제교류재단 (2015b). 자매우호 도시 간 청소년 상호교류 실적. 내부자료.
- 인천국제교류재단 (2015a). 2015년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예산). 내부자료.
- 인천국제교류재단 (2015d). 한중일 음악교류 개최 실적. 내부자료
- 인천국제교류재단 (2015c). 자매우호도시 국제행사 참가 등 기타 청소년 교류 사업 내역. 내부자료.
- 임현진 (2010). 동북아에서의 내셔널리즘과 보편주의의 조화: 문화공동체의 모색. 동북아 문화연구, 24, 169-187.

- 임희진, 송병국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연구보고14-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5). 2015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기본계획(안).
<http://www.jje.go.kr/index.jje>에서 2015년 9월 9일 인출.
- 조남익, 김고은 (2014).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191-215.
- 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백서*. 서울: 청소년위원회.
- 한국스카우트연맹 (2015). 한·중 특별교류 전체일정표. 내부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2015 한·일 국가 간 청소년교류 일정. 내부자료.
-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 (2015). *Young Ambassador Program*. 내부자료.

【 외 국 문 헌 】

(영 어)

- Iacus, S. M., G. King, and G. Porro. (2008). *Matching for causal inference without balance checking*. <http://gking.harvard.edu/files/cem.pdf>.에서 2015년 5월 11일 인출.
- Killick, D. (2012). Seeing ourselves in the world: developing global citizenship through international mobility and campus community.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6, 372-38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일 본 어)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 <http://www.niye.go.jp/services/plan/honbujigyo.html#link04>에서 2015년 8월 20일 인출.
- <http://www.niye.go.jp/about/organization.html>에서 2015년 8월 20일 인출.
- <http://www8.cao.go.jp/youth/kouryu/research/h26/followup/pdf/s1-5-3.pdf>에서 2015년 8월 20일 인출.

- 内閣府 (2012). 「青年国際交流事業の効果測定・評価に関する検討会」の開催について
http://www8.cao.go.jp/youth/kouryu/kouka_kentoukai/pdf/tyuukanhoukou/s1.pdf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 内閣府 (2015). 『平成27年版 子ども、若者白書』(全体版). 東京: 内閣府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7honpen/pdf_index.html에서 2015년 11월 5일 인출.
- 内閣府 共生社会政策統括官 (2012).
 「青年国際交流事業の効果測定・評価に関する検討会」の開催について(資料1)
http://www8.cao.go.jp/youth/kouryu/kouka_kentoukai/pdf/tyuukanhoukou/s1.pdf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 一般財団法人 青少年国際交流推進センター (2014). 「事業報告書(付属明細書)」
http://www.centerye.org/soshiki/pdf/h26_report.pdf에서 2015년 8월 21일 인출.
- 日本青少年教育振興機構 (2014) 日本青少年教育振興機構 事業概要.
- 田中治彦 (1998). 国際交流の戦後史: 青少年の交流を中心に. 青少年と国際交流. 161(3).
 1998년도 최종 가필 <http://www.rikkyo.ne.jp/~htanaka/98/NAYD.html>에서 2015년 11월 5일 인출.

(중 국 어)

中國教育部 (2010). 國家中長期人才發展計劃綱要(2010~2020年).

【 인터넷 검색자료 】

강원도교육청

http://www.gwe.go.kr/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718&boardSeq=1210544&id=kr_031300000000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do?menuId=08010000000000&act=view&bbsMasterId=BBSMSTR_000000013832&bbsId=107679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board/view.sko?boardId=workroom&dataSid=8157603&menuCd=AA040070000000>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경상북도교육청 <http://global.jbdream.or.kr/>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경향신문 (2005. 8. 12). 동북아 청소년환경회의 대표자 선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8121806191&code=100100에서 2015년 2월 27일 인출.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에서 5년 9월 7일 인출

<http://www.niied.go.kr/board.do?boardCategoryNo=48&searchCategory=all&menuNo=280&boardConfigNo=79&action=view&boardNo=7081>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http://www.niied.go.kr/board.do?boardCategoryNo=48&searchCategory=all&menuNo=280&boardConfigNo=79&action=view&boardNo=7133>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http://www.niied.go.kr/board.do?menuNo=280&boardConfigNo=79&action=view&boardNo=6716>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국제교류문화진흥원

http://www.icworld.or.kr/front_icworld/board/board_view.php?leftn=5&subn=1&boardid=icnotice&seq=7446에서 2015년 9월 23일 인출.

국제학생교류기구(일본 JEARN)

http://www.eil.or.kr/center/read.php?menu=&code=notice&data_seq=249&pageNo=3&searchTitle=&searchContent=&searchString=%BE%C6%C4%AB%B5%A5%B9%CC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대구시교육청

http://www.dge.go.kr/board/view.do?manager_seq=39&board_seq=944303&menu_seq=908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동북아평화연대

- http://www.peaceasia.or.kr/bbs/board.php?bo_table=03_01&wr_id=795&sc=ca&sf=wr_subject&stx=%B2%DE%C0%BB+%C3%A3%B4%D9&sop=and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 http://www.peaceasia.or.kr/bbs/board.php?bo_table=03_01&wr_id=663&sc=ca&sf=wr_subject&stx=PEACE+ASIA&sop=and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 http://www.peaceasia.or.kr/bbs/board.php?bo_table=05_01&wr_id=392&sc=ca&sf=wr_subject&stx=PEACE+ASIA&sop=and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 <http://www.peaceasia.or.kr>에서 2015년 10월 22일 인출.
- 동아일보 (2015. 8. 4). 한일 청소년 6년째 ‘일제 강제노역 역사’ 체험.
<http://news.donga.com/3/all/20150804/72854761/1>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1549&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D%95%9C%EC%A4%91+%EC%B2%AD%EC%86%8C%EB%85%84+%EC%98%81%ED%99%94+%EC%BA%A0%ED%94%8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370호, 2015.6.2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7&efYd=20150923#0000>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13182호, 2015.2.3.,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30&efYd=20150804#0000>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 부산국제교류재단
<http://www.bfia.or.kr/contents/d1.asp?pmode=view&num=7363&q=한일&q=subject&pageno=1>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 사단법인한일협회 <http://www.koja.or.kr/>에서 2015년 9월 23일 인출.
-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board/view.sko?boardId=workroom&dataSid=8157603&menuCd=AA040070000000>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www.sen.go.kr/view/jsp/search/search.jsp?q=2014%B3%E2+%BC%AD%BF%EF%BD%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서울특별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http://www.mizy.net/>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http://www.mrakorea.or.kr/>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수원시국제교류센터

http://www.swcic.or.kr/eve/func.asp?page=4&cur_pack=0&SFIELD=>XT=&scate2=J0201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http://swvc.suwon.ne.kr/?_page=24&ListCount=15&_action=view&mode=view&no=4264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http://www.sycc.or.kr/lmth/02_youth/youth02.asp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아시아교류협회

http://asiaea.or.kr/index.php?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2&iBrdContNo=90&sBrdContRe=0&sSearchField=all&sSearchValue=%ED%95%9C%EC%A4%91%EC%9D%BC&CurrentPage=1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http://www.asiaea.or.kr/?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2&iBrdContNo=145&sBrdContRe=0&sSearchField=all&sSearchValue=%ED%95%B4%EC%99%B8%EB%B4%89%EC%82%AC%EB%8B%A8&CurrentPage=1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http://www.asiaea.or.kr/?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2&iBrdContNo=150&sBrdContRe=0&sSearchField=&sSearchValue=&CurrentPage=1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http://www.asiaea.or.kr/?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2&iBrdContNo=160&sBrdContRe=0&sSearchField=all&sSearchValue=%EB%AA%A8%EC%9D%98%EC%A0%95%EC%83%81&CurrentPage=1에서 2015년에서 9월 7일 인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http://www.ilovehistory.or.kr/category/youthcamp/>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아시아희망캠프기구

<http://www.kjforum.org/한일중고생포럼/제6회-한일중고생포럼/>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http://www.workcamp.asia/>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http://www.workcamp.asia/희망캠프china/>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어린이어깨동무

http://www.okfriend.org/sub01_01_03.php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http://www.okfriend.org/sub01_01_04.php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교육원

http://unescoapceiu.org/kor/m/todo01_view.php?mseq=31&seq=93&gubun=3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http://cafe.naver.com/unescoasynet>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news_center/sub_01_view.asp?articleid=3718&cate=D에서 2015년 9월 24일 인출.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http://www.unep.or.kr/sub/sub03_03_02.php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사업 실행위원회

<http://www.douwa-kids.com/ja/index.html>에서 2015년 8월 20일 인출.

재외동포재단

http://www.korean.net/portal/PortalView.do?urlType=Y&menuId=MKNTCS0010&pageUrl=/knt/cms/Cms.do&pageUrlSub=%2Fknt%2Fcms%2FCmsBoardView.do%3Fsearch_boardId%3D58834%26act%3DVIEW%26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http://exchange.gaok.or.kr/exchange/list.action>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중앙일보 (2015. 10. 20). [단독] “중국 신뢰한다” 한 71%, 미 33%, 일 15%.

<http://news.joins.com/article/18892044>에서 2015년 10월 20일 인출.

충청북도교육청 <http://global.cbe.go.kr/site/global/sub.php?menukey=1890&mod=view&no=366237&search=1&kwd=%EA%B5%AD%EC%A0%9C%EA%B5%90%EB%A5%98>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7&mode=view&cid=4153>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투자동북아청소년환경네트워크

http://www.unep.or.kr/sub/sub04_01.php?mode=view&idx=179에서 2015년 9월 24일 인출.

http://www.unep.or.kr/sub/sub03_01_01.php에서 2015년 9월 24일 인출.

http://www.unep.or.kr/sub/sub04_04.php?mode=view&idx=57에서 2015년 9월 24일 인출.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http://www.ptyc.or.kr/>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14).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5년 9월 20일 인출.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menuno=3353>에서 2015년 9월 5일 인출.

<http://www.kf.or.kr/?menuno=2254>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http://www.kf.or.kr/?menuno=3353>에서 2015년 9월 24일 인출.

한국인권신문 (2013.6.26). 청소년들. “남북통일에 미국은 도움. 중국은 반대할 것!” .

http://www.committee.co.kr/sub_read.html?uid=3887§ion=sc59§ion2=사회에서 2015년 2월 27일 인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iye.youth.go.kr/iye/bbs/ntbd/view.do>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https://www.kywa.or.kr/>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http://iye.youth.go.kr/iye/bbs/ntbd/view.do>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한글글로벌피스재단 <http://www.gpfkorea.org/?p=6918>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한러대화사무국

http://ekrd.or.kr/bbs/board.php?bo_table=department_06&wr_id=7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한일100년 평화시민네트워크 <http://cafe.daum.net/youthpeacecamp>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한일경제협회 <https://www.jkcamp.org:447/01/jkcamp02.asp>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한일사회문화포럼 <http://www.kjforum.org/한일미래포럼/>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http://www.tcs-asia.org/dnb/board/view.php?board_name=2_1_2_tcs_news&view_id=348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환경부

[http://www.keep.go.kr/portal/board/view.act?boardId=news&atclNum=188
26](http://www.keep.go.kr/portal/board/view.act?boardId=news&atclNum=18826)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후쿠칸네트

<http://fukukan-net.sakura.ne.jp/html/koryujigyo/2015jenesys.htm>에서
2015년 9월 23일 인출.

(일 본 어)

内閣府 <http://www8.cao.go.jp/youth/kouryu/rekisi.html>에서 2015년 8월 12일 인출.

日本青年国際交流機構

<http://www.iyeo.or.jp/ja/profile/soshiki.html>에서 2015년 8월 20일 인출.

<http://www.iyeo.or.jp/ja/info/caoboshu/naiyou.html>에서 2015년 8월 21일 인출.

(중 국 어)

中國國際青年交流中心 <http://www.21youth.cn/>에서 2015년 8월 15일 인출.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http://www.moe.gov.cn>에서 2015년 9월 20일 인출.

.....

부록

부 록

1.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조사 표본설계 관련 통계표*

부록표 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6,480	78,984	77,406	86,604	99,910	98,528	598	598	598	383	383	381
경기	121,311	124,487	120,637	135,545	152,525	148,525	1,200	1,202	1,203	603	602	602
인천	25,505	26,907	25,956	29,581	33,146	33,004	238	240	243	132	133	134
강원	13,279	13,722	14,161	15,985	17,822	17,779	328	335	340	162	162	162
충북	14,342	14,656	14,795	17,018	18,798	18,651	259	259	264	128	128	128
충남	20,176	20,407	20,131	23,145	25,552	24,933	419	420	420	201	201	200
대전	15,218	15,759	15,398	17,410	19,636	19,229	144	146	146	88	88	87
경북	21,204	22,267	22,188	25,716	29,391	29,327	403	410	425	286	287	287
경남	30,668	31,606	31,321	36,103	40,842	40,468	468	472	474	273	273	272
부산	25,743	27,376	26,914	31,646	35,826	35,934	304	304	305	170	169	170
대구	21,790	23,591	22,936	26,925	30,647	31,168	219	219	219	124	123	123
울산	10,708	11,334	10,898	13,055	14,871	14,909	120	119	120	62	61	61
전북	16,811	17,580	17,947	20,732	23,258	22,799	383	385	388	209	208	209
전남	15,699	16,406	16,771	19,437	22,115	22,094	412	408	422	253	253	254
광주	15,419	16,603	16,280	18,764	21,453	21,091	151	151	151	88	88	87
제주	6,179	6,555	6,423	7,340	8,110	7,799	112	110	110	44	44	43
합계	450,532	468,240	460,162	525,006	593,902	586,238	5,758	5,778	5,828	3,206	3,203	3,200

* 강현철(2015), p.1

* 이 표는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한 표를 부록의 참고 자료로 가져온 것임.

부록표 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7,833	72,214	73,359	13,752	14,051	13,848	17,616	16,745	16,646	4,079	4,303	4,227
경기	121,161	121,388	119,903	4,262	4,197	3,955	20,391	21,363	20,705	3,888	3,969	4,018
인천	22,494	23,667	23,976	1,782	1,859	1,823	7,626	7,537	6,914	1,060	1,053	1,022
강원	14,600	14,714	14,601	157	149	149	3,587	3,439	3,180	370	373	304
충북	11,554	11,901	11,960	1,616	1,556	1,533	5,504	5,398	5,250	432	415	345
충남	17,425	17,508	17,314	2,245	1,913	1,868	6,074	5,977	5,999	663	635	470
대전	12,831	12,831	12,946	3,039	2,807	2,929	3,565	3,597	3,611	753	872	785
경북	19,897	20,881	20,904	2,669	2,675	2,699	6,779	6,827	6,667	594	593	481
경남	31,087	31,479	31,871	2,854	2,880	2,836	5,813	6,033	6,223	734	699	537
부산	22,687	24,152	24,920	3,619	3,737	3,905	8,461	8,241	8,694	2,148	2,179	2,074
대구	18,703	19,946	20,133	5,815	5,996	6,125	6,336	6,355	6,414	846	843	809
울산	10,774	11,562	12,202	957	997	686	3,269	3,219	2,870	419	345	291
전북	17,036	17,081	17,304	1,351	1,327	1,338	5,392	5,345	5,294	581	559	443
전남	13,963	13,968	14,087	2,295	2,331	2,365	6,344	6,604	6,458	468	450	339
광주	15,520	15,825	15,492	1,440	1,349	1,360	4,273	4,631	4,437	359	322	256
제주	5,779	5,910	5,765	225	225	237	1,474	1,543	1,519	141	142	106
합계	423,344	435,027	436,737	48,078	48,049	47,656	112,504	112,854	110,881	17,535	17,752	16,507

* 강현철(2015), p.2

부록표 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2	182	180	44	44	44	74	74	74	18	18	18
경기	341	336	325	13	13	12	79	79	79	18	18	18
인천	79	79	77	7	7	7	29	29	29	7	7	7
강원	86	86	86	1	1	1	25	25	25	4	4	4
충북	46	45	46	6	6	6	27	27	27	4	4	4
충남	72	70	70	10	9	9	36	36	36	6	6	5
대전	37	37	36	8	8	8	12	12	12	5	5	5
경북	119	119	118	11	11	11	55	55	55	6	6	6
경남	136	136	135	10	10	10	38	38	38	6	6	6
부산	80	80	80	14	14	14	38	39	38	11	11	11
대구	50	50	50	17	17	17	20	20	20	5	5	5
울산	35	35	35	4	4	3	11	11	11	4	3	3
전북	89	89	89	5	5	5	34	34	34	4	4	4
전남	82	84	84	8	8	8	51	51	51	5	5	5
광주	45	45	45	5	5	5	14	14	14	3	3	3
제주	20	20	20	1	1	1	7	7	7	2	2	2
합계	1,499	1,493	1,476	164	163	161	550	551	550	108	107	106

* 강현철(2015), p.2

부록표 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9,390	40,825	40,025	37,090	38,159	37,381	45,084	52,251	51,523	41,520	47,659	47,005
경기	62,467	64,322	62,579	58,844	60,165	58,058	70,375	79,349	76,846	65,170	73,176	71,679
인천	13,132	13,777	13,413	12,373	13,130	12,543	15,250	17,134	17,190	14,331	16,012	15,814
강원	6,923	7,087	7,392	6,356	6,635	6,769	8,375	9,418	9,246	7,610	8,404	8,533
충북	7,501	7,615	7,737	6,841	7,041	7,058	8,830	9,824	9,715	8,188	8,974	8,936
충남	10,384	10,544	10,558	9,792	9,863	9,573	11,868	13,282	13,007	11,277	12,270	11,926
대전	7,828	8,126	8,063	7,390	7,633	7,335	9,135	10,161	10,054	8,275	9,475	9,175
경북	11,217	11,684	11,775	9,987	10,583	10,413	13,562	15,645	15,564	12,154	13,746	13,763
경남	16,192	16,723	16,499	14,476	14,883	14,822	19,063	21,756	21,175	17,040	19,086	19,293
부산	13,234	14,300	14,040	12,509	13,076	12,874	16,525	18,868	19,029	15,121	16,958	16,905
대구	11,412	12,386	12,308	10,378	11,205	10,628	14,179	16,280	16,463	12,746	14,367	14,705
울산	5,657	6,049	5,731	5,051	5,285	5,167	6,950	7,862	7,842	6,105	7,009	7,067
전북	8,655	9,016	9,491	8,156	8,564	8,456	10,604	12,031	11,767	10,128	11,227	11,032
전남	8,174	8,498	8,712	7,525	7,908	8,059	10,159	11,598	11,537	9,278	10,517	10,557
광주	7,992	8,726	8,481	7,427	7,877	7,799	9,681	11,214	10,942	9,083	10,239	10,149
제주	3,261	3,432	3,464	2,918	3,123	2,959	3,879	4,168	4,077	3,461	3,942	3,722
합계	233,419	243,110	240,268	217,113	225,130	219,894	273,519	310,841	305,977	251,487	283,061	280,261

* 강현철(2015), p.3

부록표 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4,170	36,152	36,817	9,450	9,684	9,476	8,497	7,850	7,871	1,197	1,343	1,258
경기	62,855	62,743	62,482	2,092	2,105	2,016	11,279	11,433	11,410	1,204	1,247	1,386
인천	11,751	12,111	12,386	1,073	1,120	1,146	3,940	3,892	3,565	444	468	425
강원	7,253	7,168	7,217	85	88	82	2,373	2,261	2,103	173	179	127
충북	5,789	5,900	6,044	936	914	946	3,097	2,900	2,839	186	181	131
충남	8,852	8,818	8,882	1,268	1,102	1,101	3,551	3,435	3,525	232	212	147
대전	6,152	6,133	6,208	1,951	1,842	1,925	2,148	2,112	2,163	310	347	292
경북	9,766	10,265	10,333	1,743	1,743	1,732	4,254	4,151	4,203	261	243	163
경남	15,006	15,253	15,943	2,311	2,268	2,219	3,618	3,653	3,816	316	308	216
부산	11,505	12,238	12,834	2,051	2,118	2,259	5,420	5,004	5,367	841	794	718
대구	9,384	9,797	10,035	3,258	3,348	3,454	4,083	4,016	3,996	366	336	304
울산	5,596	5,900	6,496	495	529	346	2,015	1,931	1,691	168	125	82
전북	8,138	8,279	8,264	1,222	1,201	1,211	3,178	3,057	3,006	222	227	149
전남	6,395	6,378	6,497	1,698	1,717	1,769	3,717	3,771	3,728	191	192	112
광주	7,806	7,828	7,719	869	858	856	2,265	2,518	2,422	177	155	92
제주	3,137	3,275	3,204	0	0	0	746	771	723	63	59	42
합계	213,555	218,238	221,361	30,502	30,637	30,538	64,181	62,755	62,428	6,351	6,416	5,644

* 강현철(2015), p.3

부록표 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3,663	36,062	36,542	4,302	4,367	4,372	9,119	8,895	8,775	2,882	2,960	2,969
경기	58,306	58,645	57,421	2,170	2,092	1,939	9,112	9,930	9,295	2,684	2,722	2,632
인천	10,743	11,556	11,590	709	739	677	3,686	3,645	3,349	616	585	597
강원	7,347	7,546	7,384	72	61	67	1,214	1,178	1,077	197	194	177
충북	5,765	6,001	5,916	680	642	587	2,407	2,498	2,411	246	234	214
충남	8,573	8,690	8,432	977	811	767	2,523	2,542	2,474	431	423	323
대전	6,679	6,698	6,738	1,088	965	1,004	1,417	1,485	1,448	443	525	493
경북	10,131	10,616	10,571	926	932	967	2,525	2,676	2,464	333	350	318
경남	16,081	16,226	15,928	543	612	617	2,195	2,380	2,407	418	391	321
부산	11,182	11,914	12,086	1,568	1,619	1,646	3,041	3,237	3,327	1,307	1,385	1,356
대구	9,319	10,149	10,098	2,557	2,648	2,671	2,253	2,339	2,418	480	507	505
울산	5,178	5,662	5,706	462	468	340	1,254	1,288	1,179	251	220	209
전북	8,898	8,802	9,040	129	126	127	2,214	2,288	2,288	359	332	294
전남	7,568	7,590	7,590	597	614	596	2,627	2,833	2,730	277	258	227
광주	7,714	7,997	7,773	571	491	504	2,008	2,113	2,015	182	167	164
제주	2,642	2,635	2,561	225	225	237	728	772	796	78	83	64
합계	209,789	216,789	215,376	17,576	17,412	17,118	48,323	50,099	48,453	11,184	11,336	10,863

* 강현철(2015), p.4

부록표 7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4.4	24.3	24.0	29.1	31.2	31.3
경기	23.6	23.5	23.3	31.7	32.0	31.9
인천	22.9	22.7	22.2	29.2	32.0	32.2
강원	14.5	14.3	14.2	20.9	23.6	23.4
충북	16.5	16.6	16.5	24.1	25.7	25.7
충남	16.4	16.6	16.4	25.0	26.4	25.9
대전	22.5	22.2	22.2	30.3	32.1	32.0
경북	17.5	17.2	16.9	20.8	21.7	21.9
경남	17.9	17.8	18.0	25.2	26.9	26.9
부산	21.4	21.7	21.4	28.5	30.8	31.0
대구	21.9	22.3	21.7	28.8	31.5	32.7
울산	21.5	21.8	21.2	27.9	30.9	30.8
전북	15.3	15.0	15.1	22.4	23.2	23.3
전남	14.8	15.2	15.1	22.1	22.6	23.1
광주	22.5	22.5	22.5	30.8	32.8	33.6
제주	17.9	18.1	18.3	27.9	29.1	29.0
합계	19.8	19.8	19.6	26.6	28.1	28.2

* 강현철(2015), p.4

부록표 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3	33.6	34.0	30.7	30.4	29.8	26.3	24.8	24.7	29.9	30.3	31.0
경기	32.7	33.5	34.0	31.5	30.9	31.1	28.8	29.3	28.1	29.0	29.4	28.3
인천	28.8	30.5	30.7	30.3	31.0	29.7	28.6	28.3	25.9	26.5	26.3	23.7
강원	28.0	28.1	27.6	14.3	13.5	13.5	23.8	22.3	20.6	26.2	29.6	23.3
충북	33.2	33.6	33.2	30.6	29.4	29.8	29.1	28.5	27.6	24.3	23.8	20.0
충남	31.5	31.9	31.7	29.7	29.0	28.7	25.8	25.6	24.9	26.8	26.1	23.2
대전	34.5	34.8	35.3	35.8	32.8	33.1	28.6	28.3	28.5	26.8	28.6	25.7
경북	27.6	28.3	28.3	30.8	31.1	31.3	25.1	25.0	23.9	29.2	29.0	22.1
경남	30.7	30.7	30.6	31.4	31.1	30.9	24.0	24.1	24.1	24.9	24.6	18.6
부산	30.2	31.6	32.2	29.7	30.3	29.8	25.1	23.7	24.5	26.6	26.8	26.4
대구	32.5	34.6	34.9	33.3	33.6	34.2	28.1	27.5	27.3	27.5	26.5	24.7
울산	32.4	34.9	36.4	29.8	31.1	31.0	31.1	29.9	27.8	23.0	22.8	19.7
전북	28.0	27.7	28.5	30.9	30.4	30.8	25.7	24.9	24.5	27.0	25.5	20.0
전남	27.7	27.8	27.5	32.4	33.0	34.0	22.2	22.5	21.3	25.2	23.1	19.0
광주	35.9	36.7	37.5	36.0	34.5	35.7	30.9	31.4	30.2	27.5	26.7	22.1
제주	34.6	35.0	34.1	32.1	32.1	33.9	28.6	29.7	29.8	22.5	22.9	17.0
합계	31.0	31.8	32.0	31.3	31.1	31.0	26.4	26.0	25.2	27.3	27.4	24.9

* 강현철(2015), p.5

2.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조사 가중치 및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 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 이 원고는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한 가중치 및 모수 추정의 내용을 부록의 참고자료로 가져온 것임.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가설검정 등을 위해 표준화 가중치(standardized weight)를 사용하였다. 표준화 가중치는 가중치의 합계가 표본크기와 같도록(가중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원 가중치를 변환한 것으로, 원 가중치와 표준화 가중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text{표준화 가중치} = \text{원 가중치} \times \frac{n(\text{표본 크기})}{N(\text{모집단 크기})}$$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 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

$$\bar{e}_{h..}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3.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인식조사 설문지

DPID ID - - -

청소년활동 및 국제교류 실태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및 국제교류 실태를 살펴보고 이후 청소년활동 및 국제교류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진행기관:	미디어리서치
담당연구자:	(청소년활동) 문호영 박사 (OO) OO-OO (국제교류) 황세영 박사 (OO) OO-OO	조사문피처:	문화경 부장 OO-OO-OO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학교 및 학년	_____ 학교 _____ 학년	학교지역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동(읍/면)
면접원 ID/성명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모당원 확인	_____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또는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 B, 로 가시오'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 C, 로 가시오'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문39. **유리온이나 스마르톤이 없을 경우 문40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들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만지작 거린다	①	②	③	④
(2) 식사나 대화중에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이 신경 쓰인다	①	②	③	④
(3)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매일 또는 SNS에서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4) 메일, 문자메시지, SNS의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변을 한다	①	②	③	④
(5) 메일, 문자메시지, SNS의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답변이 없으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문40. 청소년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

- ① 예 ② 아니오

문41. 스포츠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야구팀, 축구팀, 농구팀 등)

- ① 예 ② 아니오

문42. 학교의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43. 인주일에 다음과 같은 학원을 며칠 정도 다니고 있습니까?

구분	다나고 있거 않다	1~2일	3~4일	5~6일	매일
(1) 국어, 영어, 수학 등 공부를 위한 학원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 음악, 미술 등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	①	②	③	④	⑤

PART II.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4. 해외에서 살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45. 최근 1년간 해외로 여행을 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46. 지금까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란 청소년이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서,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외국 자매도시 등과의 국제교류' 등이 있습니다.

① 예 → 문46-1. 국가·기간·방문국에 응답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 문47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46-1. 문46에 예라고 응답하신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총 몇 회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문46-2. 최근 순으로 아래에 자신이 참여했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각 적어주십시오.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4가지만 적어주십시오.

언제 참여했습니까?	참가 기간	방문 국가
(1) ① 최근 1년 ② 최근 2년 ③ 최근 3-4년 ④ 5년 이상	① 7일 미만 ② 7-10일 ③ 11-14일 ④ 15일 이상	① 중국 ② 일본 ③ 미국 ④ 기타 () ← 국가명을 적어주십시오
(2) ① 최근 1년 ② 최근 2년 ③ 최근 3-4년 ④ 5년 이상	① 7일 미만 ② 7-10일 ③ 11-14일 ④ 15일 이상	① 중국 ② 일본 ③ 미국 ④ 기타 () ← 국가명을 적어주십시오
(3) ① 최근 1년 ② 최근 2년 ③ 최근 3-4년 ④ 5년 이상	① 7일 미만 ② 7-10일 ③ 11-14일 ④ 15일 이상	① 중국 ② 일본 ③ 미국 ④ 기타 () ← 국가명을 적어주십시오
(4) ① 최근 1년 ② 최근 2년 ③ 최근 3-4년 ④ 5년 이상	① 7일 미만 ② 7-10일 ③ 11-14일 ④ 15일 이상	① 중국 ② 일본 ③ 미국 ④ 기타 () ← 국가명을 적어주십시오

문47.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분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앞으로 세계인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①	②	③	④	⑤
(2) 유학·어학연수·교환학생 등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에서 직업을 구해 일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이 세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48.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식량이 남아도는데도 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더 어려운 다른 나라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을 돕기 위한 모금에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나라에서 굶주리는 사람을 위한 모금에 참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국의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TV나 신문에서 국제관계를 다루는 기사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9.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를 보면 원치 거북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국제결혼)이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4) 흑인이나 백인 등 인종에 따라서 성격이나 능력 등이 어떨 것 같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외국의 전통이나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국내외 지역의 문화가 다양하고 다름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외국 사람들의 문화는 나와 너무 멀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여러 문화에 익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처음 보는 외국인파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지내는 경험은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지내는 경험은 우리나라와 우리 문화를 다시 생각해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이가 전학 왔을 때 적극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을 보면 적극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국내외 지역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50. 다음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십니까?

구분	매우 싫다	조금 싫다	보통 이다	조금 좋다	매우 좋다
(1) 일본	①	②	③	④	⑤
(2) 중국	①	②	③	④	⑤
(3) 러시아	①	②	③	④	⑤
(4) 북한	①	②	③	④	⑤
(5) 몽골	①	②	③	④	⑤
(6) 미국	①	②	③	④	⑤
(7) 프랑스	①	②	③	④	⑤
(8) 호주	①	②	③	④	⑤

문51.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 국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남북한의 철도를 연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북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이에 대해 다음 문항에 답해 주세요.

분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은 동북아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시베리아와 남북한 철도연결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52. 다음 중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아래 빈칸에 선택해 표시해 주십시오.

(), (), ()

- ① 한국, 중국, 일본 간 영토분쟁 해결
- ② 원자력 안전 관리를 위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협력
- ③ 남북의 화해 및 평화통일
- ④ 북한의 식량, 의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중국, 일본의 지원
- ⑤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협력
- ⑥ 일본의 식민지배 반성 등 역사 문제 해결
- ⑦ 기타 ()

문53. 다음 중 동북아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아래 빈칸에 선택해 표시해 주십시오.

(), (), ()

- ① 동북아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 ② 전쟁 방지, 남북 평화 등 안보 문제 해결
- ③ 무역 등 경제적 교류 확대
- ④ 각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증진
- ⑤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문화 교류
- ⑥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

문항		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중국과 일본 친구들과의 국제교류 활동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중국과 일본 친구들과의 국제교류 활동은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중국과 일본 친구들과의 국제교류 활동은 동북아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경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 하는 태도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55. 다음 중 중국과 일본 친구들과의 국제교류 활동 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아래 빈칸에 선택해 표시해 주십시오.

(), (), ()

① 원자력 안전	② 황사 및 미세먼지 대처
③ 생태계 보전 및 환경 문제	④ 재해재난 예방과 해결
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와 보안	⑥ 전통문화
⑦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	⑧ 인권 및 민주주의
⑨ 대중문화	⑩ 청소년문제
⑪ 과학기술	⑫ 언어/문학

문56.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자녀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57. 북한에서 이탈한 이주민의 자녀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PRAT Ⅲ. 다음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배경문항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② 할머니/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구체적으로:) ⑧ 없음

배경문항3. 응답자(학생)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_____시/도 ② _____시/군/구 ③ _____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대도시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라면 서울 ④/도 서초 시/군/구 ⑤ 우면 ⑥/읍/면으로 표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면 충청남도 ④ 아산 ⑤/군/구 배방 동/읍/면으로 표기

배경문항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2)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광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5.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②
(2) 어머니	①	①	②

배경문항6. 학생의 학업 성적(2015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7.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신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청소년 국제교류 1차 델파이조사표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제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1차 델파이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10월 8일(목)까지 이메일(한지형 위촉연구원: ooo@nypire.kr, 최선화 위촉연구원: ooo@nypire.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 구 진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락 처 김기현 ☎○○○ / ✉e-mail ○○○

 황세영 ☎○○○ / ✉e-mail ○○○

응답자 성명		소속기관		부서 (학과)명	
		연락처	작동전화번호: () 핸드폰:		
수집 기관	주소: 주민번호: (은행명)제과번호: * 여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참여 수당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

- 이번에 실시하는 델파이 조사는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이번 조사는 총 두 차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경우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조사부터 본인의 응답 결과와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문 1.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법적 정의와 목적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 4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정의입니다.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법에서의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정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적절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정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의견:

법에서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것을 청소년교류활동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있는데 청소년교류 활동은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문 2.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지원과 역할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중에서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과 제59조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법에서의 국제청소년교류활동과 남·북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적절한 지원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의견:

청소년 교류활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문 3.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의견
※ 동북아지역에 포함되는 곳은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와 북한입니다.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시하신 환경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와의 청소년 교류에 관한 의견 :
	북한과의 청소년 교류에 관한 의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와의 청소년 교류에 관한 의견 :
	북한과의 청소년 교류에 관한 의견

다음은 국제교류를 통해 동북아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할 **공통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 ① 원자력 안전
- ② 황사 및 미세먼지 대처
- ③ 생태계 보전 및 환경 문제
- ④ 재해재난 예방과 해결
- 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와 보안
- ⑥ 전통문화
- ⑦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
- ⑧ 인권 및 민주주의
- ⑨ 대중문화
- ⑩ 청소년문제
- ⑪ 과학기술
- ⑫ 언어/문학
- ⑬ 기타

위에서 제시한 공통의제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지역 전체** 청소년 교류에서 **공통의제**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세 가지** 제시해 주시고 선택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순위:	선택이유:
2순위:	선택이유:
3순위:	선택이유:

다음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청소년들과의 국제교류에서 공통의제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세 가지 제시해 주시고 선택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 공통의제: 1순위 2순위 3순위	선택이유:
일본 공통의제: 1순위 2순위 3순위	선택이유:
러시아 공통의제: 1순위 2순위 3순위	선택이유:
몽골 공통의제: 1순위 2순위 3순위	선택이유:
북한 공통의제: 1순위 2순위 3순위	선택이유:

문 4.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

1)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확충되어야 할 정책적 지원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증진을 위하여 개별 사업 단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 청소년 국제교류 2차 델파이조사표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2차)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학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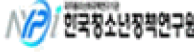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 결과는 **10월 23일(금)까지 이메일**(한지형 위촉연구원: ○○○@nypire.kr, 최선화 위촉연구원: ○○○@nypire.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 구 진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락 처 김기현 ☎○○○ / ✉e-mail ○○○
황세영 ☎○○○ / ✉e-mail ○○○

응답자 성명

■ 이번 2차 설문지에는 1차 설문지에서 응답해주신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응답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 1차 응답 결과들을 참고하셔서 각 문항에 대한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의견란에 기재해주시고, 자문위원님의 응답 결과가 태다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과 달리할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2차)

문 1.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법적 정의와 목적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 4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정의입니다.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정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3.3%(15명)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6.7%(3명)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의견(요약)

- 현재 정의는 지리적 측면만을 부각, 계층별, 지역간 및 시설(단체)간 교류 등 포괄 필요
- 서로의 차이를 인정, 상대방에 대한 이해 증진, 역사인식 공유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목표 구체화 필요
-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한 글로벌 역량과 시민성 함양 목표 추가 필요
- 교류의 목적에 문화 간 협력과 연대, 평화의 강화 등 검토(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등)
-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은 교류의 내용을 너무 제한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필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법에서의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정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경우,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문 2.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지원과 역할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중에서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과 제59조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상술과 같이 국제청소년교류활동과 남·북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0%(9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50%(9명)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의견(요약)

- 제54조①항 "민간"과 ③항 "민간기구"를 "민간"으로 용어 통일
- 제54조①항에서 정부가 시행계획을 먼저 수립하기보다는 단체나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제54조③항을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 필요(적극적인 지원 명시, 청소년교류센터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
- 제54조③항에서 민간기구와 더불어 국제기구에 관한 지원 명기 검토 필요
- 제59조②항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 필요
- 제59조②항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라는 표현이 제한적임으로 언어, 문화 이질성 회복, 한민족 역사인식 고취 등 폭넓게 변경하는 방안 검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법에서의 국제청소년교류활동과 남·북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 1차 조사와 의견을 바꾼 경우에 의견을 변경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문 3.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의견
※ 동북아지역에 포함되는 곳은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와 북한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를 통해 동북아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할 공통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 ① 원자력 안전
- ② 황사 및 미세먼지 대처
- ③ 생태계 보전 및 환경 문제
- ④ 재해재난 예방과 해결
- 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와 보안
- ⑥ 전통문화
- ⑦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
- ⑧ 인권 및 민주주의
- ⑨ 대중문화
- ⑩ 청소년문제
- ⑪ 과학기술
- ⑫ 언어/문학
- ⑬ 기타

1차 조사에서는 공통의제에 대해서 응답자에게 3순위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1-3순위를 아래 질문에 제시하였습니다.

문 3-1. 동북아지역 전체 청소년 교류의 공통의제 가운데 1-3순위에 해당하는 응답 결과입니다. 해당제가 동북아지역 전체 공통의제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동북아 지역 공통의제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	------------	-----	-----	-----------

1. 청소년 문제(28점)	①	②	③	④	⑤
2. 생태계 보전 및 환경 문제(23점)	①	②	③	④	⑤
3. 대중문화(17점)	①	②	③	④	⑤

앞서 제시한 3개 외에도 추가로 공통의제로 삼을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공통의제를 의견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니오

의견:

문 3-2. 중국과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공통의제에 대해서 1-2순위에 해당하는 응답 결과입니다. 해당 의제가 중국과의 공통의제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중국 공통의제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	------------	-----	-----	-----------

1. 청소년 문제(23점)	①	②	③	④	⑤
2. 황사 및 미세먼지 대처(18점)	①	②	③	④	⑤
2. 생태계 보존 및 환경 문제(18점)	①	②	③	④	⑤
2. 대중문화(18점)	①	②	③	④	⑤

앞서 제시한 의제 이외에 추가로 공통의제로 삼을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공통의제를 의견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니오

의견:

문 3-3. 일본과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공통의제에 대해서 1-3순위에 해당하는 응답 결과입니다. 해당 의제가 일본과의 공통의제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본 공통의제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	------------	-----	-----	-----------

1. 청소년 문제(28점)	①	②	③	④	⑤
2.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15점)	①	②	③	④	⑤
3. 원자력 안전(14점)	①	②	③	④	⑤

앞서 제시한 3개 이외에 추가로 공통의제로 삼을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공통의제를 의견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니오

의견:

문 3-4. 러시아와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공통의제에 대해서 1-3순위에 해당하는 응답 결과입니다. 해당 의제가 러시아와의 공통의제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러시아 공통의제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	------------	-----	-----	-----------

1. 청소년 문제(27점)	①	②	③	④	⑤
2. 대중문화(22점)	①	②	③	④	⑤
3. 생태계 보전 및 환경문제(15점)	①	②	③	④	⑤

앞서 제시한 3개 이외에 추가로 공통의제로 삼을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공통의제를 의견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니오

의 견:

문 3-5. 몽골과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공통의제에 대해서 1-3순위에 해당하는 응답 결과입니다. 해당 의제가 몽골과의 공통의제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몽골 공통의제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	------------	-----	-----	-----------

1. 청소년 문제(23점)	①	②	③	④	⑤
1. 생태계 보존 및 환경문제(23점)	①	②	③	④	⑤
2. 대중문화(19점)	①	②	③	④	⑤

앞서 제시한 3개 이외에 추가로 공통의제로 삼을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공통의제를 의견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니오

의 견:

문 3-6. 북한과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공통의제에 대해서 1-3순위에 해당하는 응답 결과입니다. 해당
제가 북한과의 공통의제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북한 공통의제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	------------	-----	-----	-----------

1. 청소년 문제(24점)	①	②	③	④	⑤
2. 전통문화(18점)	①	②	③	④	⑤
3. 언어/문학(11점)	①	②	③	④	⑤

앞서 제시한 3개 이외에 추가로 공통의제로 삼을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공통의제를 의견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니오

의견: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y towards a Peaceful Community of Northeast Asian Region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y can be one of alternatives for realizing the formation of a peaceful commun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hich has been an important current issue in our socie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relating to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ies and propose the future orient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y,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ed concepts and analyzed the current projects ru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sectors.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in spite of the recent increase,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rojects tended to be run by each sector without coordination, and there was an imbalance in terms of the partner countries within the northeast Asia region. Furthermore, the study categorized the current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ies in terms of the form of activity such as 1) experience and visiting, 2) discussion and 3) volunteering, and provided an in-depth analysis of the features of the projects in each category, in order to pursue diversity in terms of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y. Meanwhile, a large scale survey was conducted among approximately 10,000 number of Korean youth, confirming that the effect of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ies on the youth's global competence, global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ata was further compared with the surveys with the Japanese and Chinese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y, with foci on the national image, perceptions on the current issues in the region and common agendas for the youth activities. Finally,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in order to glean from the expert suggestions on the definition and the aim of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y, policy support, agendas for activity, and future directions. Japanese and Chinese policy was also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made suggestions for policy as follows: 1) to revise the current Youth Activity Promotion Act, 2) to strengthen the role of coordination, 3) to develop common agendas for active discussion between the youth, and finally, to increase multilateral activities by including more partners such as Mongolia, Russia and North Korea.

Keywords :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y, Northeast Peace Community, Youth Perception, Effects of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y, Japanese and Chinese Policy, Delphi Method, Policy Suggestions.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문호영·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영석·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인규
- 15-R06 동북아시대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황세영·이경자·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송미경
- 15-R10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오해섭·성윤숙·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 전략 개발 / 오해섭·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모상현·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장안리·김판준·임영언·정호원·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정은주·강현철·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좌동훈·강경균·김정숙·황세영·문호영·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최창욱

수 락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유성렬·임성택·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이유진·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
- 15-R44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김형주·박성재·민주홍·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이종원·유성렬·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정은주·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험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자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자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자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06

동북아시대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동명기획 전화 044)868-754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54-0 93330